제 9 편

종 교(宗教)

제 1장 불 교
제 2장 기독교
제 3장 천주교
제 4장 기타종교

제9편 종 교(宗教)

제1장 불 교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로 알려지고 있다. 즉, 고구려 제17대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에 진왕(秦王) 부견(益堅)이 사자 및 순도(順道)를 보내서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고, 백제에는 제15대 침류왕(枕流王) 즉위 원년(384) 호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진(晋)나라로부터 백제에 이르니, 왕이 궁중으로 맞이하여 예경(禮敬)하였고, 신라에는 제19대 눌지왕(訥祇王) 때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백성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제23대 법흥왕(法興王) 14년에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로 불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에서 불교를 공인하여 불교의 융성과 국운의 발전이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 법흥왕(法興王)의 뒤를 이은 진평왕(眞平王) 이후 역대 왕실이 불교를 신앙하고, 승도들도 자기 수행보다는 국가적 관념을 제일로 하여 양심적으로 일으켜 국력 충실에 노력하는 것이 불교의 일차적 목표라고 생각하여, 신라가 삼국 통일의 대업에 힘있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불교가 통일국가의 정신적 뒷받침으로 국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화 기관도 행정 기구의 중앙집권화와 같이 중앙집권적으로 설치하고, 따라서 각 지방에는 그 정신적 교화 분야를 담당한 사찰들이 국력으로 혹 왕족, 귀족, 승려 등에 의하여 다투어 절이 건립되어 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거제도에 있어서 불교의 발달에 대한 것은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시기로 보여진다.

통일신라 이후에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의상대사는 한국불교를 정립하여 토착화 시켰다.

계룡산 동쪽 구천계곡 대앙산(大仰山)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원효암이 있었고, 계룡산 정상에는 의상대사가 수도하였다는 의상암(義湘臺 : 의상대)의 옛 터가 남아 있다. 661년(문무왕 1년) 의상대사는 당나라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그리고 사등면 오양리 절골에는 각호사(角呼寺)가 있었다. 조선 중기에 폐찰된 자리에서 1940년경에 발견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하청 앵산의 북사(北寺)는 102년에 주조한 동종이 있었는데, 왜구가 침탈해 갔다. 일본 사가현(佐賀縣) 혜일사(惠日寺)에 보관하고 있는데, 일본의 중요 문화재 중 하나이다.

이 절은 동종이 주조되기 훨씬 이전에 작은 암자로 이미 수도처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동(銅)으로 주조된 종을 만들어 불사를 하였다는 것은 고려의 불교가 거제에 유입되어 있었던 것을 증명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 삼층석탑(대우조선소내)도 옥개석의 모양이 고려 탑의 양식에 가깝다. 통일신라 이후 원효 의상의 영향을 받아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10세기는 고려의 불교가 더욱 융성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불교가 전체적으로 상하에 보급되어 성숙기에 달하였고, 건국에서부터 중엽에까지 불교 연구가 극성이었다. 이때에 오교구산(五敎九山)의 승려를 선(禪)·교(敎) 양종으로 구분하여 승려의 위계를 정하고, 왕사·국사를 제도화하여 불교를 국교화하였다.

교종(敎宗)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과 선종(禪宗)의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상호의 포교 운동까지 펼치게 되었다.

임금 자신도 불교에 귀의함은 물론, 그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중에도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등 불사 의식이 국가 행사로 성황을 이루고, 왕과 구국의 복전원당(福田願堂)인 사찰 건설은 일층 월가하여 경향 각지에 사찰의 수가 부지기수로 증가하였다.

이때에 우리 거제에도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옥녀봉(玉女峰) 산록의 은적사(隱跡寺), 앵산(鶯山)의 북사(北寺) 등이었다. 그러나 의종(毅宗) 24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고, 몽고의 침입으로 귀족적 질서의 붕괴로 일대 혼란을 초래하여 무신정권 뒤로는 승려들이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음모와 무력적 실력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경향 각지에서는 승려들의 세속적 활동이 활발하였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은 팔만대장경 경판 작업이었다.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대장경이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은 1232년(고종 19년)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고종 23년부터 38년까지 16년간에 걸쳐 6,256권, 81,258장의 대장경판 조조(雕造)에 전력을 다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판각의 나무는 남해안에서 자생한 자작나무를 벌채하여 공급하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거제와 남해에서 많이 공급되었는데, 가라산, 노자산, 옥녀봉, 앵산 등지가 당시의 원목이 벌채되었던 곳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요즘와서 팔만대장경판 나무의 질을 분석해 본 결과 산벌꽃나무 산화(山樺)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거제의 가라

산과 노자산, 옥녀봉, 앵산 등지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나무이다. 진주에는 대장경분사(大藏經分司)를 두어 안찰사(按察使)가 대장분사도감을 겸임하였다.

거제에는 고려초기에 창건된 하청 북쪽의 북사(北寺)가 있었는데 폐찰되고, 그 후에 북사 아래쪽에 정수사(靜水寺)가 창건되었다. 그리고 산방산 석굴의 석불과 설매암(雪梅庵), 귀절암(貴絶庵)외 여러 암자가 있었다. 이때 거제의 사암은 대부분 경치가 아름다운 산 속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힘을 잃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말부터이다. 승려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본질을 벗어나 관민의 피해는 물론, 사찰에서 농민들의 재산인 전답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새로운 지식층에서 배불론(排佛論)이 일어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으로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정책에 의하여 불교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여 결국은 쇠퇴·은둔의 일로를 취하였다. 이태조(李太祖)는 그의 책사 정도전(鄭道傳)의 의견에 의하여 억불정책(抑佛政策)에 동의하였으나, 태조(太祖) 자신은 불교신심이 돈독하여 무학(無學) 대사를 왕사로 하여 불도로서 개국 당초의 민심 동요를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태종(太宗)은 양유억불(揚儒抑佛) 정책을 하여 종파를 병합하고, 사찰을 철폐하고, 사전(寺田)을 몰수하였다. 불상 불구를 없애고, 병기를 주조하는 등 불교 탄압은 극에 달했다. 태종(太宗) 7년에 11종의 종파가 7종이 되고, 세종(世宗) 6년에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하여 양대 종파를 만들었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 선종(禪宗) 소속의 사찰 18개와 교종(敎宗) 소속의 사찰 18개가 있었다. 우리 거제에 교종(敎宗) 소속으로 견암사(見巖寺)가 있었다. 이 사찰의 원속전(元屬田)이 50결이고, 금가급(今加給)이 100결, 승려가 70명이나 되는 큰 사찰이었다.

이때 선교를 합하여 경남에서는 선종(禪宗) 소속으로 진주의 단속사(斷俗寺)와 교종(敎宗) 소속으로 합천의 해인사(海印寺), 거제의 견암사(見巖寺) 등 국가 공인사찰은 3개뿐이었다. 이어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에 수난을 겪고, 뒷날 문정왕(文定王) 후의 호불로 일시 승과를 복구하고, 도첩법(度牒法)을 실시하여 불일재휘(佛日再輝)를 꿈꾸던 교계가 문정왕(文定王)이 물러난 뒤, 다시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짧은 사이나마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비롯한 이름난 승려들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배출되었다.

그러나 불교는 이처럼 혹심한 박해 속에도 그 명맥을 이어 왔으나, 고종(高宗) 이후 일본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일본 승려의 한국 진출에 따라 한국불교가 설자리를 잃어가게 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1911년 6월 3일 총독부령(總督府令) 제7호로서 사찰령 7조를 공포, 동년 7월 8일 사찰령 시행규칙 8조를 공포하였다. 전국에 30개 본사를 정하고, 본사에 각자 주지(住持)를 두었다. 다음 해부터 30개 본사 주지는 각기

말사법(末寺法)을 만들어 총독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이것을 시행하였다. 그 종지는 과거의 관습에 의하여 선·교 양종으로 칭하였다. 그때 경남에는 3대 사찰의 하나인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漁寺)가 있었다. 그 교구에 속한 거제의 사찰은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백련암(白蓮菴)과 거제면 동상리 수정봉 아래에 있는 세진암(洗塵菴)이 있었다. 그 후로 거제에도 여러 사찰이 창건되어 불교의 교세가 늘어났다. 그러나 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복(祈福)의 위치에 있었다.

8.15 광복 후 9월에 전국 승려 대회를 개최하고, 일제의 교화 체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치활동을 지향하면서 다시 교화 체계를 결의하였다. 각 도별로 교구를 정하여 각 교구에 교무원을 두고, 그 지역의 사찰은 그 교무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중앙에는 중앙교무원을 두어 각급 교무원을 관할하되, 따로 심의기관과 감찰기관을 병립하였다. 1946년 5월에 중앙교무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 교헌을 제정하여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발전하여 온 대중 불교의 실현 이념과 관리 이념은 민주 사회에 휩싸여 촉진되어 갔다.

그러나 불교는 해방과 동시에 종파의 분쟁, 불교 정화운동 등이 전개되어 불교계에서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것은 토지개혁에 의한 사찰 경제의 정돈 상태가 도화선이 된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나 대처승(帶妻僧)은 스님이 아니라는 논리가 대두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그 분쟁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비구승(比丘僧)이 종단 주권을 잡게 되어 사찰 행정이 비구승(比丘僧)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 특히, 종단의 재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비구승(比丘僧), 대처승(帶妻僧) 상호간의 격심한 싸움과 법정 문제로 해결을 보았다.

이렇듯 한국불교의 근·현대사 속에 주요 사건들을 요약해 보면, 〈표 9-1-1〉과 같다.

〈표 9-1-1〉 근·현대 한국 불교의 변천

1911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제정	1968년	군승법사 실현
1913년	조선불교 유시론 발표	1975년	불탄일 공휴일 제정
1930년	만(卍)당 결성	1979년	중앙승가대학 설립
1947년	봉암사 결사	1980년	10.27 법난사건
1955년	전국 비구승대표자대회(불교정화운동)	1985년	민중불교연합 창립
1960년	불교신문 창간	1986년	9.7 해인사승려대회
1963년	대불련 창립	1990년	불교TV방송 설립
1965년	한글대장경 간행	1994년	종권분쟁과 종단 개혁운동

찬불가운동, 도심포교당운동, 60여 개에 이르는 수많은 종단의 출현 등…, 희비의 쌍곡 속에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제 1 절 거제 불교의 전래

거제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통일신라 전후로 생각된다. 불교의 증흥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61년경 문무왕 때 당나라에 유학한 의상(義湘)과 원효가 한국불교를 정리한 시기이다.

거제에는 옛 사찰의 흔적이 여러 곳 있다. 계룡산 남쪽의 원효암 터와 정상에 있는 의상대는 그 당시 원효와 의상이 이곳까지 왔거나, 그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은 하청의 북사이다. 하청면 유계리 앵산 중허리에 있었던 북사(北寺)는 고려 때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던 동종을 가져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사가현(佐賀縣)의 혜일사(惠日寺)에 보관하고 있다. 그 동종의 기록에 의하면, 1026년 태평(太平) 병인년(고려 현종 17년)에 주조된 하청 북사의 동종이라 한다. 이 동종이 주조될 즈음에 하청 북사가 건립되어 창건 불사를 하면서 이 종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하청 북사 이전에도 이미 절이 있을 수도 있다. 법률사와 은적사 등 많은 절이 신라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에 불교가 거제에 들어와서 이때는 자리를 잡고 번성의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효와 의상이 6세기 말쯤에 거제에 불교를 전파하였다면, 하청 북사와는 3세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하청 북사보다 적어도 3백년 전에 불교가 들어 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양리 각호사(角呼寺)의 고찰 터에서 발견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의 초기 작품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고려의 불상 수법이 약간 혼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배불정책의 조선시대에 와서는 불교의 탄압이 있었으나, 거제는 관헌의 손길이 깊숙이 미치지 못하여 대체로 자유로웠던 것으로 전해 오고 있다.

산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선종의 사찰들은 대부분 사찰운영이 어려워 폐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빈대 때문에 없어 졌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는데 구전(口傳)이 기록 못지 않게 정확할 수도 있다.

조선 중기는 하청 북사가 있었던 아래쪽에 정수사(靜水寺)란 절이 있었다. 이 절에 있던 승려들이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107대 통제사 조경(趙儆)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조선 후기에 없어지고, 겨우 몇 개의 사찰만 민가와 가까운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에 의해 마을에 소규모의 절이 세워졌으나, 해방과 더불어 없어지고, 옛 절터나 민가 가까이 절이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25 동란 후부터 현재까지 생긴 사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고찰의 폐사 현황

1. 정수사(靜水寺)

하청면 유계리 앵산에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조선조 영조(英祖) 때에 통제사(統制使) 조경(趙儆)이 제승당(制勝堂), 정당(正堂)과 협사(挾舍) 등 35동을 중창하고, 거제 앵산 정수사(靜水寺) 승도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다고 제승당(制勝堂) 중수기에 보이고 있음으로 이 정수사(靜水寺)는 적어도 조선시대 후기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은적사(隱跡寺)

일운면 삼거리 옥녀봉 산맥의 서남 산록에 있었다. 고려시대 창건되어 폐찰되었다. 지금도 암자 터가 완연히 남아 있다.

3. 북 사(北寺)

하청면 하청리 앵산에 있었다. 문헌에 의하면, 고려왕조 때에 이루어진 큰 절이라 한다. 이 북사(北寺)에는 동종이 있었다.

「대평 6년 병인 9월 하청면 부곡(部曲)북사 유종일구인(鍮鍾壹軀人) 중(重) 121근 동량괘(棟樑卦)」에 의하면 대평 6년 병인(고려 현종 17년, 1026년) 9월에 하청부곡의 북사(北寺)에 유종(鍮鍾)을 달았는데, 그 크기가 사람의 키만큼이나 컸고, 중량은 120근(270㎏)이나 되는 큰 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큰 종을 보유했던 사찰이므로 그 규모 또한 방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문헌(日本文獻)에 의하면, 이 북사(北寺)의 유종은 현재 일본의 사가현(佐賀縣)

동송군(東松郡) 종촌의 혜일사(惠日寺)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본 응안(應安) 7년(고려 조 공민왕 7년) 처음 승락사(勝樂寺)에 시입된 각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는 기록을 미루어 보아 고려 말기에 대거 침범한 왜구에 의하여 약탈하여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원효암(元曉庵)

계룡산 동쪽 계곡인 구천계곡 대앙산(大仰山)에 있었다. 이 절터에서 1960년경 길이 15~16cm 정도 되는 금동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5. 의상암(義湘庵, 일명 의상대)

계룡산 정상 바위 사이에 약 50여 평쯤 되는 절터가 있다. 화엄종의 개조인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의상대(義湘臺)라 한다. 절터에서는 당시의 기와편과 그릇 조각이 발견된다. 1950년대 중반에 이곳에서 금동 불상 길이 15~16cm 되는 것을 고현에 거주하는 윤송해씨가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일에 관리상의 부주의로 분실되었다고 한다.(윤송해씨 증언)

6. 설매암(雪梅庵)

둔덕면 산방산에 있었다.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조선조에 와서 폐사 되었다.

7. 은적사(隱寂寺)

아주동의 승지산 넘어 북병산록에 있었던 고찰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 창건되어 조선중기에 왜구의 병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축대나 대숲의 흔적이 있어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하며, 그 외 와편 및 그릇 조각 등이 그 주위에 흩어져 있어 옛 모습을 더듬게 한다.

8. 법률사(法律寺)

이 사찰은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내려오다가, 1935년 논갈이 때 항상 쟁기의 끝에 걸리는 것이 있음으로 아양리 고 박학중(朴鶴重)씨가 발굴한 결과 석씨유적(釋氏遺蹟) 신라고찰인 삼층탑이란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곳이 법률사(法律寺)의 사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탑은 탑골(아주)길목 탑신골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승포에서 아양리 2구에 이르는 도로변에 발견자인 고 박학중(朴鶴重)씨가 이설하였는데 높이가 8척이고, 1층 탑신 폭이 2척이다. 지대석과 기단은 탑이 섰던 논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 같고, 지석의 일부는 현재 당등산 입구의 표석으로 세워져 있을 뿐, 나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탑의 발굴처에는 아직도 이에 따르는 유물 등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연화강석을 석재로 사용하였고, 옥개나 탱수, 노반 등의 양식을 보아 신라시대의 삼층석탑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후대의 것이 아닐까 한다.

1973년 대우조선소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1975년에 이 탑이 옥녀봉 쪽 약 100m 지점으로 옮겨졌다. 지금은 대우조선 내 큰 길가 공원에 있다.

9. 귀절암(貴絶庵)

둔덕면 산방산에 있었던 암자로서 고려시대에 창건하였으나 없어졌다.

이 외에도 산방산에는 설매암(雪梅庵) 등 고려시대에 7개소의 대소 사찰이 있었다고 하며, 한때 불교문화의 융성을 이룩하였던 곳으로 전해진다.

10. 세오암(洗汚庵)

덕포리 강망산 정상에 있었다. 고려시대에 창건하였으며, 조선조 말기에 폐찰되었다.

이 암자에는 왜적이 몰려와서 남편을 납치해 가고, 부인은 왜적에게 몸을 빼앗겼다. 부인은 그 후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남편이 끌려간 먼 바다를 바라다보는 강망산에다 암자를 짓고, 왜구에게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뜻에서 세오암(洗汚庵)이란 이름을 지었다. 왜적에게 끌려간 남편의 명복을 비는 불공으로 일생을 눈물로 보냈다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는 옛 절터이다.

11. 견암사(見岩寺)

견암사에 대한 소재지는 여러 설이 있다. 진병기(陣丙淇) 스님의 거제 사찰고에 보면, 견암사는 가라산 남쪽 견암봉(見巖峯) 아래 있다고 적혀 있고, 1998년 거제의 사찰

을 찾아 서에는 둔덕면 우두봉(牛頭峯)에 있었다고 한다. 가라산과 우두봉에 견암사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곳 다 견암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어느 한쪽이 시대에 따라 옮겨졌거나, 맨 처음 기도 도량으로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다. 이 두 지역에 절터가 있다. 어느 지역이 견암사 터인지는 앞으로 정밀 조사가 있어야 결론을 내릴 것 같다.

견암사가 큰 절이었다는 것은 세종실록에서 알 수 있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조에 보면, 「경상남도 거제 견암사 원속전 50결 금가급일백결 거승 70」(慶尙南道 巨濟 見巖寺 元屬田 五十結 今加給一百結 居僧七十). 이 내용을 보면 견암사는 거제에 있었는데, 사찰에 속한 전답이 처음에는 오십 결이었는데, 이제 더하여 백 결이 되었다. 그리고 승려가 칠십 명이 거주한다고 했다. 당시 해인사는 승려가 백 명이 있었다. 거제의 견암사는 규모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12.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사등면 오양리 옛 각호사(角呼寺)에 있었다. 조선 중기에 와서 폐찰되었다가, 1940년경 밭갈이하던 농부의 쟁기 끝에 석조 불상이 발견되었다. 목이 부러지고, 연좌대(蓮坐臺) 하나는 찾지 못했다. 그 불상이 발견된 후 암자를 짓고, 석불암이라 이름하였다가 벽담사로 개칭하였고, 또 신광사라 하였다. 이 석불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라 한다.

「李忠武公 全書」에 의하면, 임진년(1592년 8월 26일자) 이충무공 일지에 야간 이동 중에 각호사 앞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角呼寺 在慶尙南道 巨濟郡 見乃梁 李忠武公 全書戰中 日記云 夕移舟 到角呼寺前洋宿)

제3절 현존 사찰 현황

1. 심적사(尋寂寺)

○ 소 재 지 :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860번지
○ 종　　파 : 조동종(한국불교)
○ 대 표 자 : 주창덕(무상진법)
○ 관리자 주소 :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860번지

○ 창건연도 : 1993년
○ 창 건 주 : 배우혜 보살
○ 유　　래

28년 전 심적사 창건주 배우혜 여사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득병하여 개종을 하면서 기도할 곳을 찾던 중, 이곳 물 맑은 약수골에 자리를 하므로 오랜 수행 끝에 1993년 9월 7일 심적사를 낙성하게 되었다.

1990년 11월 8일 한·중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다라마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 사리 2과를 기증받아 현재 심적사에 봉안하고 있다.

현재 이곳 심적사 산신각에 자리잡고 있는 물 맑은 약수골은 아주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 수용되어 살았는데, 이곳의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서 불치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칠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맞으러 오고 있으며, 특히 이 물은 위장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2. 장흥사(長興寺)

○ 소 재 지 :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1042번지
○ 소속종단 : 천태종
○ 창건연대 : 1985년
○ 창 건 주 : 강동안(姜東安) 보살
○ 현 주 지 : 마길 스님
○ 유　　래

장흥사의 창건을 위한 첫 법회는 1985년 10월 10일 능포동 옥수상가 2층에서 5명의 신도들에 의해 개최되었다. 그 당시 강동안 보살과 네 사람은 충북 단양에 있는 거광사에서 처음 만나 거제도에서 사찰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본사 교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승포, 옥포, 하청, 연초, 고현 지역의 신도 80여 명을 모집하여 기도도량을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강동안 보살을 추대하였다. 1994년 2월 10일 현 장승포동 327-1번지에 1층·2층(200평)에다 요사체와 법당을 건립하고 기도와 포교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곳 마길스님은 매월 7일 많은 신도가 운집하는 정례법회 때만 임석하여 법회를 집전하였고, 여러 곳의 사찰을 순회하면서 포교일선에 노력이 지극하였다.

최근에 신현읍 수월리로 이건하여 법당, 요사채를 중창하였는데 종래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신도들이 자주 내왕할 뿐 아니라, 가일층 불심이 돈독

해진 느낌을 갖게한다. 현재 장홍재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지도위원, 총무부, 교무부, 재무부, 섭외부, 사회부, 각 분야별로 분회장 등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사 합창단(약 40명), 장흥사 어린이회(60명) 등이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청년회, 여성회를 조직할 예정으로 있다.

장흥사는 요사채 100여 평, 법당 100여 평에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신도수는 1,000여명 정도 된다. 요사채의 건물은 석조 2층, 근자에 법당을 건립하여 낙성식을 가진 바 있으며, 날로 발전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3. 계룡사(鷄龍寺)

○ 소 재 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05-9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창건연대 : 1955년
○ 창 건 주 : 최성록 스님
○ 현 주 지 : 장지연 스님
○ 신 도 수 : 약 2,000명
○ 유　　래

거제의 계룡산 계룡사(鷄龍寺)는 법화종에 속하는 사찰로, 거제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큰 절이다. 신현읍 고현리 505번지에 소재하며, 계룡산의 동쪽 거제읍성 남문천의 발원지인 산명수려한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계룡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義湘大師)의 수도처로 전해지는 계룡산 산정에 소재한 절터가 오늘날에도 돌담, 샘터, 대밭 등이 남아있는데, 그 정기를 이어받아 자리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으로 UN군 포로수용소가 철수함에 따라 분산되었던 원주민이 복귀하고, 거제군청이 장승포에서 고현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 때 1955년 9월 8일 최성록 화상이 계룡사를 창건하였다.

1962년 10월 15일 계룡사를 문화부에 등록하였으며, 당시 주지 옥광오(玉光五) 화상이 사유지 480평을 부지로 희사하였다.

1990년 5월 22일 대웅전을 팔각포집으로 손계수(孫桂秀) 화상이 중건하였으며, 건물의 현판을 능인전(能仁殿)이라 하였다.

1995년에는 주지 손계수 화상이 인도의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실론섬 “스리랑카”의 사원에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眞身舍利) 3과를 모셔와 7층석탑을 건립하고, 여기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1996년에는 주지 장지연(長智演) 스님의 원력으로 대웅전에 삼천불 조성 봉안불사를 추진하여 많은 신도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능인전 현판을 대웅전으로 환원하고 새로이 단청불사를 성취하였다. 계룡사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으며, 부속전당으로 극락전과 삼성각 등이 있다. 대웅전의 앞뜰에 1993년 범종각을 건립하였고, 입구에 일주문이 있으며, 그 안으로 이르면 사천왕문(四天王門)이 있고, 요사(寮舍) 30평을 증축하여 많은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남쪽에는 종무소가 있어 사찰관리의 본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내객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다. 남쪽 뜰에는 석조「비로자나불」, 북쪽에 석조관세음보살상이 자리하여 도량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거제시청이 소재하는 거제도의 중심지로서 신도는 3천명을 넘어 경내 확장사업으로 부지 1,400여평 매입을 추진하여 그 동참시주의 모연이 결실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4. 용주사(龍珠寺)

○ 소 재 지 : 거제시 신현읍 문동리 91번지
○ 소속종단 : 태고종
○ 창건연대 : 8. 15 해방 후
○ 창 건 주 : 호포스님
○ 현 주 지 : 종현스님
○ 신 도 수 : 100명 가량
○ 유　　래

용주사는 계룡산 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길게 뻗어진 곳인데, 문동 생약산(生藥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문동(門東)은 문동폭포와 구천댐으로 연결되는 주요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용주사는 1970년 삼거리 돌고개의 구천계곡의 구천동 사곡에서 구룡산(九龍山) 용주사로 이건한 거제관광의 명소였는데, 1987년 구천댐 부근에서 다시 문동으로 재차 이건한 것이다. 용주사 주변에는 거제 유일의 문동폭포를 볼 수 있다. 옥녀봉에서 흐르는 자연의 맑은 물이 20m의 암벽에 쏟아지는 폭포수는 늪과 연못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물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며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같이 용이 등천하였다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용주사의 창건주는 호포스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의 구천동에서 토굴을 만들어 생활하다가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 후 구천댐의 건설로 인하여 문동폭포 쪽으로

다시 옮겨지었다. 현재 대웅전과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가 있으며, 대웅전 앞에 5층석탑, 종각 등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에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이 봉안되고, 이 대웅전은 약 15년 전에 건립하였고, 산신각 등 대부분의 부대시설도 그 무렵에 세워진 건물들이다.

5. 심원사(深源寺)

○ 소 재 지 : 거제시 신현읍 삼거리 139번지
○ 소속종단 : 한국 불교 태고종
○ 대 표 자 : 김 명 오(만오)
○ 관리자 주소 : 거제시 신현읍 삼거리 139번지
○ 창건연도 : 1781년
○ 신 도 수 : 500명
○ 유　　래

심원사는 신현읍 삼거리 마을에서 소동리를 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심원사 푯말을 볼 수 있다. 북병산 자락에 깊숙이 들어앉은 심원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심원사 진입교를 건너 도보로 걸어가다 보면, 6월 염천에도 푸른 숲이 우거져 그늘 밑을 걷노라면 숲속 바람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 낙엽 지는 가을에는 붉은 단풍과 어우러져 보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 정도로 정취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심원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 고찰인 유명한 옥녀봉 줄기를 이어온 달각산 자락 은적골에 은적암이 북병산 앞쪽 지금의 심원사 건너편에 있었는데, 폐사 직전이라 살수가 없어, 당시 이방오 주지스님이 사찰을 떠나면서 수행자 김상업에게 말하기를 「너의 갈 곳을 가거라」 하였다. 상업이 말하길 "스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하길 "너는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남긴 후 떠나갔다고 한다. 스님이 떠난 후, 고개를 들어보니 앞산이 북병산이었다. 김상업은 떠나지 않고, 정면에 있는 북병산 중턱 산하에 지금의 심원사를 1781년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은적암이 있던 폐사지에는 이방오라는 이름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그때 당시에 거제도에는 사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칠천도, 장목 외포, 덕포, 일운, 동부 등 전 신도들은 심원사를 비롯한 백연암, 제진암을 찾았다고 한다. 그후 임수원(취암당) 주지의 수행자 진성주 스님이 지세포에 지선암을 창건하였고, 이상문(용호당) 주지께서 심원사 법당을 다시 건립하였다.

용호 스님과 동문 수행하던 방연호 스님이 심원사를 떠나, 구천리 절골에 부명암을

창건한 사찰이 이전되어 현재 문동리 용주사가 되어 있고, 그후 정인순(월아당) 주지 스님의 뒤를 이어 김명오(만오당) 스님이 절을 인수받아, 새 건물 대웅전을 건립하고자 하여도 왕래 길이 숲속이요, 오솔길이라 부처님께 기도하기를 '부처님을 웅장하고 좋은 법당에 모시겠사오니, 소승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20년을 기도한 끝에, 심원사 입구 교량 진입교를 준공, 도로개설, 포장, 전기, 전화까지 설치하여 32평 대웅전 준공, 법당에는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불 후불탱화, 아미타불 지장후불 신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시황탱화, 영단(영가 모시는 곳)에 지장보살 인도왕보살 후불(부처님 오불)탱화 등 7점을 모시고, 요사 10평 1동, 요사 30평 1동 건립 준공하였고, 불심의 정진에 많은 신도들이 왕래하며, 만오스님이 출가한지 51년이 된 현재까지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아래로는 중생을 포교 제도하며, 양심과 지성으로 부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범부중생의 한 사람이다.

심원사에서 전방 계곡을 바라보면, 북쪽산이 병풍과 같이하여 북병산, 심원사 계곡 또한 깊고 역사가 깊어 심원사라 칭하였고, 은적암을 둘러싸고 있는 달각산을 비롯하여, 일곱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어 북두칠성과 같다. 산신과 신장 칠성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인지 옛부터 현재까지 지성껏 기도하면 꼭 성취된다고 한다. 현재까지 심원사에서 고시 공부를 한 학생은 합격의 소원을 이루었고, 복잡한 이 세상에 고층건물과 차의 매연 그리고 많은 인파 속에서 종사하는 모든 중생이 한, 두 시간이라도 심원사를 찾아 맑은 공기와 물 한 모금 마시면,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될 것이라고 소풍객, 등산객, 사부 대중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6. 이진정사(離塵精舍)

○ 소 재 지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옥녀봉 산록)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67년
○ 창 건 주 : 김명수
○ 현 주 지 : 오심(悟心) 스님
○ 신 도 수 : 60명 가량
○ 유　　래

거금 30수년 전, 이진암이 옥녀봉(해발 555m)의 산자락에 창건되던 시절의 거제도는 사회간접시설이 빈약하고 특히, 교통이 불편하여 험하고 꼬불꼬불한 황토길에 겨우 버스 몇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왕래하는 구석진 섬에 불과했다. 섬에 있는 산치고는 비교

적 깊은 계곡을 끼고 있는 옥녀봉의 산맥이 지세포 항구를 내려다보는 곳에서 정동쪽을 향해서 마치, 차(茶) 숟가락과 같은 형국의 안쪽, 해발 약 400m 위치의 숲속에 자리잡게 된 이진암의 창건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유가 실재하고 있다.

경남 통영 태생인 박형근(朴炯根)과 경남 거창 태생인 김명수(金命壽)는 서로 기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 후에 만나 부부가 된 사람들로서, 통영지방에서 건축공사 청부업과 식당경영을 하고 있었으나, 원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로, 중년의 나이가 되자 뜻이 맞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육바라밀 성취발원으로 부부로서의 인연을 끊고, 서로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도동지의 사이로 승화(承和)시켜, 같이 수행(修行)의 길로 나설 것을 서약하고, 그 길로 전국의 대소사찰을 순회하면서 법덕(法德)이 높은 선지식을 찾아가 자진시봉(自進侍奉)과 온갖 고행(苦行)으로 수도에만 전념하였다.

이러한 수도생활을 10여 년 하던 어느날 새벽에, 박형근 스님이 꿈을 꾸다가 놀라 깨어 김명수 보살의 숙소로 찾아와서 "내가 부처님의 계시(啓示)를 받았소, 거제도로 떠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자신들의 고향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지만, 생전 가본 일도 없는 거제도를 향해서 고달픈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박형근 스님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거제도를 향해서 무엇에 쫓기듯이 갈 길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가까스로 거제도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수중에 돈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 박형근 스님이 누군가에게 이끌려 가는 듯이 옥녀봉 중턱까지 수풀을 헤치면서 올라간 해발 400m 높은 계곡의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김명수 보살님은 기진맥진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그 때 박형근 스님은 혼자 장승포로 내려가서 당분간의 식량과 스레이트 몇 장에다, 몇 가지의 공구까지 둘러메고 올라와서는 남의 산에 나무를 베어 작은 움막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명수 보살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쳐다보면서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이것이 바로 이진암 창건의 시작이었다.

1964년 봄, 남해안의 연안여객선 회사를 경영하던 남편을 사별하고, 여성의 몸으로 힘들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부산의 김봉순(金鳳順)씨는 착실한 불교 신도였는데, 어느날 밤 뜻밖에도 관세음보살이 꿈에서 말하기를 "거제도에서 제일높은 산 밑에 가면 그 곳에서 움막을 짓고 있는 남녀가 있을 것이니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하는 현몽을 받고 잠을 깼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했기에,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 즉시 간부 한 사람을 거제도로 급파하여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시켰던 것이다.

거제도에 간 간부사원이 옥녀봉 아래의 옥림 마을에서 나무꾼을 앞세워 산 위에 올라가 박형근 스님을 만나보니, 두 사람이 그 곳에 움막 토굴을 지은지 3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며, 두 사람의 신앙생활의 앞날이 사실상 막막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곧, 부산으로 돌아가서 사장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를 받은 김봉순씨는 그 간부를 시켜서 적지 않은 돈과 식량을 그 곳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암자 건립을 도울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받아가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곧 부산으로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 두 사람을 만나본 김봉순씨는 두 사람이 예사 사람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를 계기로 크게 발심하게 되어 두 사람의 암자 건립을 전적으로 도와줄 각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무렵 옥림리에 살고 있던 그 산의 산주(山主)는 아무런 인사말이나 부탁도 없이 남의 산에 올라가 몇 그루 안되는 나무이지만, 소나무를 마구 잘라서 움막을 치고 있는 괘씸한 남녀를 찾아 올라가서 야단을 쳤던 것인데, 박형근 스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부처님의 은덕을 보실 것이니 이 땅을 저희들에게 팔아주십시오" 하고 태연하게 이야기했으며, 기가 막혔던 산주 역시 그들의 깊은 신심과 발원에 감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누구보다도 열심히 불교를 믿는 이진암의 알뜰한 신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이진암에는 영남의 각지로부터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신도들로 줄을 이었다. 기담스님이 신도들에게 요구하는 불교신도로서의 계율은 무척 엄격하였으며, 심지어는 법당 앞에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신도의 신발을 절마당 밖으로 던져 버릴 정도로 엄격히 신도들을 다루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김명수 보살은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을 감싸고 어루만져 주었고, 심지어 신도들의 가정사까지 걱정을 하며 보살펴 주었는데, 모든 신도들로부터 '어머니' 또는 '언니' 라고 불리었고 가정사정이 어려운 집에는 남모르게 이를 도와주는 자비의 보살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불문에 귀의한 이후로 속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두 사람이었지만 소문에 따라 일가친척들도 차츰 이진암을 찾아와서 오랫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사에 정진하던 기담스님이 건강을 잃게 되어, 모든 신도들의 애도 속에 13년전 아쉬움을 남긴 채 입적했다.

기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노보살님의 원력과 모든 신도들의 협력, 그리고 서울 김사장(김명수보살 형제)의 협조로 법종각과 산신각이 건립되고, 2동의 요사채와 보탑과 성지(聖池)가 이룩되고, 잇따라 명부전이 건립된 이래, 이진암 마당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 위치에 자비로운 해수관음보살 성상이 건립되기까지 10여년 동안에 계속 불사는 성취되고 있었다. 이 공사는 모두가 김사장 자신의 설계와 시공감독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으로, 실로 김명수 큰 보살 형제우애의 산물이었다.

이진정사는 산지가람 1금당 1탑식 기본양식에 본당 대법당, 천불전, 범종각, 산신각, 오층석탑 및 연지, 해수관세음보살석상, 명부전, 납골당과 요사채,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7. 지선암(知仙庵)

○ 소 재 지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교항 80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약100여년 전
○ 창 건 주 : 견성암 스님 김기재
○ 중창불사 : 박명길 처사
○ 현 주 지 : 학산 스님
○ 신 도 수 : 500세대
○ 유　　래

지선암은 약 100여년 전에 연초 견성암에 있던 김기재 스님이 창건하고, 후일에 김성환 스님이 인수를 받아 유지되어 오다가, 박명길 처사의 원력으로 중건하였다. 그 후, 은성 스님과 학산 스님이 자리를 잡고 주석하면서 많은 불사를 추진하였다.

은성 스님과 학산 스님이 1998년 영은사를 창건한 후, 두 사찰을 관리하고 있다.

8. 영은사(靈隱寺)

○ 소 재 지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374-1번지
○ 소속종단 : 대한 불교 조계종
○ 대 표 자 : 김봉인(恩成)
○ 창건연대 : 1998년
○ 창 건 주 : 김봉인
○ 신 도 수 : 1700여 명
○ 유　　래

지세포 지선암에 있던 은성 스님이 관세음 보살의 현몽을 받아 영주산 아래터를 잡아 불사를 하였다. 대지 1,750평, 대웅전 30평, 용왕각 2평, 삼신각 3평, 요사체 164평을 1998년에 착공하여, 1999년에 완공을 하였다. 뒷산이 신선봉이고, 왼쪽은 북병산과 옥녀봉이 합치는 곳이며, 오른쪽은 영주산이 지이끝 등대에 휘감았다. 좌우 산이 옹위한 청룡백호의 명당지로 지세포항을 바라보고 있다. 관세음 보살의 화현처로 전해지며, 기도 도량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다.

절 앞에는 구대청이란 곳인데, 지세포 진의 관청이 있던 곳이라 전해진다. 구전에 의하면, 팔만대장경판을 만들었던 자작나무가 거제에서 자생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

어서 운반하던 대청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구대청이라 한다고 한다. 시멘트로 와가형식의 집을 지었다.

9. 봉곡사

○ 소 재 지 :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516-3번지
○ 소속종단 : 원융종
○ 창건연대 : 1979년
○ 창 건 주 : 성민스님
○ 현 주 지 : 남민스님
○ 유　　래

봉곡사는 개창주인 성민스님이 경북 팔공산 은해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회향하고 절터를 찾아 이곳 저곳으로 만행하던 중, 여기에 터를 잡고 1979년 10월에 봉곡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봉곡사 뒤로는 거제의 최고봉 노자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정상인 연화봉은 금방이라도 피어날 듯 봉우리져 있다. 그 앞으로 천혜절경 외도와 몽돌 해수욕장 앞바다가 굽어보이며, 서출동류라 하여 연화봉 밑에서 발원한 물은 몽돌 해수욕장쪽의 바다로 흘러들어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앞바다의 일출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인근 산에는 자작나무를 비롯하여 활엽수가 무성하며, 봄에는 벚꽃과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외에도 많은 철새가 찾아와서 지저귀고, 노래하는 곳이기도 하며, 녹음이 우거진 여름과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 계절마다 변화를 자랑하는 매우 아름다운 산명수려한 곳이다.

대웅전에는 청동 석가여래 좌상과 문수·보현양대 보살이 봉안되어 있으며, 천수관음의 영험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진신 사리탑인 5층 금강보탑은 신심을 더욱 북돋우어 주는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

10. 장수암(長壽庵)

○ 소 재 지 :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34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창건연대 : 1940년
○ 창 건 주 : 김관수
○ 현 주 지 : 심법지(沈法知)

○ 신 도 수 : 200명
○ 유　　래

장수암은 율포만이 내려다보이는 나즈막한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바, 약 60년전 동부면 가배리에 주소를 두었던 김관수씨가 창건하여 천모씨에게 기증한 절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암자는 율포 주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지금의 장수암으로 유지하고 있다.

15년 전, 이곳 어촌마을 여러 신도의 모연으로 아담한 법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마을주민들의 유일한 기도처로서, 마음의 안식처이자 어촌마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알려져 있는 도량이다.

11. 백련암(白蓮庵)

○ 소 재 지 :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1249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대 표 자 : 이귀연(혜윤)
○ 창건연대 : 1700연대
○ 유　　래

백련암 창건 연대는 구전에 의하면 1700년대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부산 동래 범어사 관할로서 법당과 요사가 소실되고 사지만 남았다가, 일본인들의 세부 측량과 최초 지적도에 의해 부동산 다수가 1912년도 백련암 소유로 토지 대장에 확정되었고, 이후 자연암의 이름으로 여러 스님들의 토굴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학수 스님이 법당 10평, 요사 8평을 건립하고 백련암이라 하고, 당시 정부 시책에 따라 현 관할 본사인 하동 쌍계사에 말사로 등록하여, 1962년 10월 20일에 대한 불교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말사 백련암 초대 주지에 임명되었다.

그후 진성 스님이 1995년에 법당과 요사 중창불사를 하던 중에 입적하고, 후 주지 해공 스님이 법당 단청불사와 도량불사를 마무리 지었고, 현 주지 혜윤 스님이 사찰 소유인 부동산 지분을 등기하여 확실한 사찰의 면모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렀다.

12. 혜양사

○ 소 재 지 :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 64-3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대 표 자 : 최동만(도열)
○ 창건연도 : 1972년
○ 창 건 주 : 도열스님
○ 신 도 수 : 5,000여 명
○ 유　　래

동부면 소재지에서 산양교를 건너 부춘리로 접어들어 노자산 등산을 하다보면 혜양사 길목과 만나게 된다. 거제의 명산인 노자산은 오래 전부터 산수 풍경이 수려하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혜양사는 오래된 사찰이라기 보다 일반인들이 노자산 등산과 함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부춘 저수지를 따라서 작은 포장길을 오르면서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 사이에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어 좋은 환경을 지녔다고 본다. 혜양사는 1972년 11월에 최도열 스님이 노자산을 등산하며 아름다운 풍치를 마음깊이 간직하다가,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관음전, 산신각, 용왕각 등의 건축과 산수 풍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다.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신장·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으며, 후불탱화 등을 모시고 있다. 그 외 산신각 내에는 산신, 용왕각에는 용왕과 독성상을 봉안하고 있다.

또한 혜양사에는 크고 작은 요사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머물 수 있도록 넓은 방과 수도 정진할 수 있는 선방도 있다. 이 사찰 주변으로 넓은 공터가 마련되어 등산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3. 대성암(大成庵)

○ 소 재 지 :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23년
○ 현 주 지 : 명보스님
○ 신 도 수 : 약 100명
○ 유　　래

대성암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다대리 유지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대성암이 있는 다대마을은 해금강과 명사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거제는 이름난 관광지인지라, 해금강을 찾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또한, 가라산 자락과 노자

산이 만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대성암은 참배객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암자는 1923년 3월에 창건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대성암에는 대웅전, 요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웅전에는 창건 때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부처님은 다대리에서 채취한 흙을 빚어 조성하였다는게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불상이 나무나 쇠로 조성되는데 비하여, 대성암의 부처님은 그 소재가 이 지역의 흙을 채취하여 조불되었으므로 더욱 친근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원래 대성암은 다대리 저수지 오른쪽에서 현 위치로 이건하고, 대웅전이나 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라 건물의 개축이나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곳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주지스님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14. 관음사(觀音寺)

○ 소 재 지 :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253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60년
○ 창 건 주 : 양달욱
○ 현 주 지 : 미생 스님
○ 신 도 수 : 60여 명
○ 유　　래

거제시 가라산(加羅山) 줄기의 영축산에 위치한 관음사는 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절이다. 남부면 다포리 253-3번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소재하는 바, 그 주변 경관이 뛰어나며 멀리 다대항이 바라다보이는 좋은 위치이다.

관음사는 1960년대 남부면에 거주하는 고 양달욱 불자가 지극한 신심으로 발원하여, 관음도량을 건설하기 위해 사유지 205평을 시주하고, 많은 신도들의 동참으로 관음사가 창건되었다. 법당에는 주불 아미타불을 중앙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렇게 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다.

현재 관음사 주지 강미생 비구니 스님이 기도와 포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남부면 여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50~60명의 신도가 있어, 관음사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남부면 다대마을을 지나서 저구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남부주유소가 있는데, 그 옆 탑포로 가는 길에서 가라산으로 접어드는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관

음사를 찾을 수가 있다.

15. 서자암(序玆庵)

○ 소 재 지 :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2-1번지
○ 소속종단 : 태고종
○ 창건연대 : 1958년 경
○ 창 건 주 : 박일선 스님
○ 현 주 지 : 김선민 스님
○ 신 도 수 : 700여 명
○ 유　　래

서자암은 명승2호 해금강을 바라보고 있다. 뒤에는 서불암산(기우제봉)이 있고, 주위는 동백과 노송이 우거져 있는 절경지다. 해금강이 있는 갈곶마을에서 해금강 호텔을 지나 바닷가에 있는 이 절은 창건주 박일선 스님이 이곳에 절을 세우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미륵보살이 화현하여 연꽃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 곳에 절을 세웠다고 한다. 절 아래 바닷가에는 약수가 솟아나는데 만병 통치수라 한다. 옛날 한발이 심할 때에 뒷산에 기우제를 지내면, 이 약수터에서 무지개가 섰다고 한다.

지형은 협소하나 기도 도량으로는 좋은 곳이다. 해금강을 바라보면서 참선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를 한다고 하는 이 암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요사체가 2동 있다.

16. 녹야선원

○ 소 재 지 : 남부면 저구리 736-6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대 표 자 : 장 유(법명)
○ 창건연도 : 2001년
○ 유　　래

장유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산수가 좋은 곳에서 화관을 쓴 여신을 만났다. 그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다니던 중, 1989년경에 홍포에 와서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터를 잡게 되었다. 2001년부터 홍포마을 바닷가에 절을 지어 녹야선원이라 했다.

17. 세진암(洗塵庵)

○ 소 재 지 :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270-1번지
○ 소속종단 : 대한불교 조계종
○ 대 표 자 : 남미애(인화)
○ 창건연대 : 조선후기
○ 유　　래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의 세진암은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하동 쌍계사 말사로 등록된 고찰로서, 현존 거제의 사찰 중에서는 기록상 가장 오래 되었다.

조선 고종 32년(1895)에 편찬된 거제 읍지에는 없어진 절로 정수사, 원효암, 은적암이 있고, 당시의 사찰로서는 계룡산 산하에 세진암 하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절 또한 화재로 소실되자 지금의 수정봉 아래로 옮겨왔다고 하며, 옛터에는 절골이란 이름과 함께 기와 조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세진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관음, 세지의 3존불을 봉안하고 있는데, 향나무로 조각한 목불로 불신 내에는 비어 있도록 파내어 팔경의 다라니와 칠보가 예쁜 보자기에 싸여 있지만, 그 매듭이 복잡하여 풀어 볼 수 없었고, 고성군 하이면 절에서 옮겨왔다는 기록만 알 수 있어,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양식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일제 때에는 사찰령에 의하여 동산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정부에서 지정된 바는 없고, 거제시의 향토 유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람배치는 대웅전 외에 용왕단, 육화당, 범종각, 사무실 등이 있다.

18. 벽수암

○ 소 재 지 :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607-3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대 표 자 : 이양자(혜원)
○ 유　　래

김창선 스님이 만행 중, 이곳을 지나다가 부처님의 도량으로 만들고 싶어서 불자 몇 사람과 고가를 이건하여 사찰이 되었다. 김창선 스님이 입적한 뒤로, 여 신도 박천수 외 5명이 관리하다가, 박창남 스님이 1974년도에 부임하여 1983년 7월까지 주석하였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주지 이양자(혜원) 스님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19. 내원암(內院庵)

○ 소 재 지 :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42년
○ 창 건 주 : 백남종 외 3명
○ 현 주 지 : 박점순
○ 신 도 수 : 1,000여 명
○ 유　　래

내원암은 둔덕면으로 넘어가는 거제면 내간리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한 암자이다. 1942년 3월 죽림만과 가까운 곳에 세워진 내원암은 섬 주민들의 애원이 담겨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미륵불을 봉안하고 있는데, 이곳의 미륵불은 일반 불상과는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민간신앙에서는 미륵불을 숭상하고 귀중한 존재로 믿어오고 있는데, 여기 미륵불은 죽림만의 미륵바위와 미륵골(내원암 자리)은 지대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죽림만에 있는 미륵불은 숫바위이고, 내원암에 있는 미륵불은 암바위라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앞 제방공사 때 발견한 미륵불을 내원암에 봉안하였고, 따라서 이 미륵불은 지역주민들의 추앙을 받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1942년 3월에 백남종 등이 힘을 모아 창건하고, 1971년 8월에 원해대사와 백씨 문중에서 중창을 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사찰 앞에 저수지가 보이며, 죽림과 활엽수림이 어우러져 좋은 명당자리라고 생각된다. 대웅전을 비롯하여 미륵전과 요사채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20. 봉원사

○ 소 재 지 :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산 31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40년
○ 창 건 주 : 백남훈 스님
○ 현 주 지 : 이상주 스님
○ 신 도 수 : 500 여 명
○ 유　　래

거제의 명산으로 알려진 산방산에 자리잡은 수도 사찰로서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다. 이곳은 둔덕면 옥동마을 산방산 등산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오랫동안 산방산 부근은 고찰들이 즐비하게 있었다고 구전되어 오지만, 현존하고 있는 사지는 보이지 않으며, 설매암이 있었던 곳 외에는 특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봉원사는 1940년에 백남훈 화상이 최초 창건하였다.(德峰庵) 당시에는 법당 1동, 요사 1동이 있었다. 1964년에 이상주 화상이 주지로 부임하여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요사 1동을 중건, 불사를 진행하였다. 현 주지스님은 본래 통도사에 주석하였으나, 이곳 봉원사와 인연이 되어, 1982년에 봉원사를 인수·전입한 이래, 대웅전삼존불 개금불사를 시작으로 요사 증축, 진입로 확장·포장 등 사찰의 면모를 일신케 하였다.

21. 보현사(普賢寺)

○ 소 재 지 :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20-1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창건연대 : 1930년
○ 창 건 주 : 주경화 스님
○ 현 주 지 : 황영담 스님
○ 신 도 수 : 500여 명
○ 유　　래

거제 둔덕면 산방리에 있는 이 산방산은 금강산과 유사한 산세를 가졌다하여, 옛부터 소금강산이라고 불렀다.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그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도 하다. 또한, 둔덕면 주민들은 산방산을 일명 영산(靈山)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한발이 심할 때에는 이곳에 기우단(祈雨壇)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부터 약 2백년 전에 적지 않았던 규모의 설매암이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 터에는 지금도 사지의 초석이나 기와장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1930년 안정사 이용운 화상이 둔덕면장 장우형씨와 합심하여 산방산 중턱에 산암(山庵)을 건립하고 대덕사(大德寺)라 하였고, 용화사 소속 불교포교당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폐사지경에 놓인 것을, 용화사 주지 김청하 스님, 안정사 주지 정보과 스님, 지방 유지 황계룡, 지방신도, 장우형 면장 등이 힘을 모아, 1954년(갑오)에 중창을 완료하고 보현사라 개칭하였다.

한국전쟁 때에는 중창불사 진행중이었으나, 피난민들이 몰려와 식사제공처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난민 불자들이 증가하여 당시로서는 유명한 사찰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40년 전 조선 인종 때, 지우대사가 산방산을 찾아서 수도하였다고 전해지는 바, 다음과 같은 전설을 남기고 있다. 대사가 산방산을 오르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암노루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가 노승을 눈여겨 쳐다보고 있었다. 지우 스님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대화를 나눈 바 있었다.

그는 산방산 팔부능선에서 석굴암을 발견하고 수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여기어, 그 곳에 머물게 되었다. 이곳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의 수도생활을 9년동안 정진으로 일관하였다. 예전에 골짜기에서 만났던 암노루가 어느 날 동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는 노루와 함께 기도하면서 수도에 정진하였는데 노루가 다음 세계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염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9년이 지난 어느 날, 동굴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때의 암노루가 울고 있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고 하면서, 열달 후에 둔덕면 산방리 김초시 댁의 막내아들(인간)로 환생할 것이라 하면서 죽었다. 스님은 노루를 묻고 수륙천도재를 지내어 주었다. 이에 그는 열달 후 김초시 댁으로 찾아가니, 겨드랑이에 긴 노루털이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 한다. 그리고, 노루는 하늘로 승천하면서 흰 꽃가루를 뿌렸다는데 산방리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보현사는 대웅전 외에 관음전, 칠성각, 산신각, 범종각 등의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찰이다.

22. 수도사

○ 소 재 지 : 둔덕면 상둔리 122번지
○ 소속종단 : 해동종
○ 대 표 자 : 임인선
○ 유　　래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2가 6-1번지(전 거주지), 자비사 자유공원의 조그마한 절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부처님 뜻이 무료 양로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점심 공양을 실천하라고 하시길래, 매주 수요일이면 3~4백 명씩 오셨다.

매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주 1번씩(수요일) 작은 정성이지만, 그날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다렸고, 반가운 얼굴로 수요일이면 찾아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공원에서 노래부르시고, 장구 치시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 어른들의 즐거움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한지 3년, 지라산 토굴에서 30일 기도 중 이제는 거제도 산방산 밑(현거주지)으로 자리를 옮겨라 하시길래 물설고, 낯설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의논할 데

조차 없는 이 자리에, 길조차 없는 산이라 허가 문제로 울며불며 힘들게 부처님을 모셨다. 겨우 비 피하고, 이슬 피해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스레이트 법당이지만, 부처님 모시고 사월초파일 행사 세 번을 치뤘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곳 거제에 인연이 되었으니 때가 되면 할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욕심 없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괴롭고 힘든 자, 몸도 마음도 병들고 아픈 자. 지쳐 있는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정진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3. 신광사(神光寺)

○ 소 재 지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 74-3번지
○ 소속종단 : 대한불교 조계종
○ 대 표 자 : 정순규(종문)
○ 창건연대 : 1930년 경
○ 신 도 수 : 1,000여 명
○ 유　　래

신광사는 불기 2542년 6월 9일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말사로 등록된 사찰이다. 신광사의 위치는 신 거제대교를 지나, 우측 첫 마을인 오량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백암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신광사의 원적을 살펴보면, 1930년경 오량리 절골 마을의 농민이 논, 밭을 일구다가 쟁기에 돌 뿌리가 걸려 이것을 발굴해 보니, 돌부처가 출토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가내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귀의처로 삼아 많은 부처님의 가피를 얻었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도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올려 사랑스러운 손자를 얻고, 병마에 시달리던 병자에게는 병마를 이기고 무병장수로 가내 화목과 행복을 얻었다고들 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통영 안정사 스님은 돌부처를 안정사로 가져 가려고 인부 6명을 동원하여, 석조여래좌상을 현 절터에서 돌부처를 이운하여 10여리를 내려오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운을 하려고 하였으나, 돌부처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다고 한다. 이에 놀란 안정사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불공과 이운 발원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안정사 스님은 돌부처 이운을 포기하고 안정사로 돌아갔다. 이러한 신비로운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 통영 유지 송병문씨의 설판 발원과 마을 주민들의 동참 발원의 깊은 신심으로 법당과 불단을 건립하여 오량마을 주민들에게 기증하고, 사명을 석불암이라고 했다. 이때가 1950년경이라 한다. 신광사의 석조여래좌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석조여래좌상의 형상은 얼굴을 도색하여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계란형의 단아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견편단의 불의는 비교적 얇은 편이고, 옷 주름은 밀집형을 이루며, 여기에 왼손은 무릎 위에 얹고,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내린 이른바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나타낸 석가불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신광사 석조여래좌상은 8조각의 연꽃 봉우리의 대좌 위에 불상이 새겨진 큰 돌 좌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이라는 일설도 있으나, 조각의 일체감이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지만, 하반신의 조각이 소홀한 감이 있고, 옷의 무늬가 퍽 형식화한 점등은 고려시대 불상이라는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거제도에서 이러한 큰 불상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1170년의 고려 의종이 거제도에 폐왕성을 쌓고 3년간 오량성에서 지냈다는 설과 그 폐왕성 바로 밑에 있는 암자인지라, 그 때에 조각하고 절이 있었다는 설도 부인할 수 없다. 또 다른 문헌의 기록에는 각호사라는 설도 있다. 이처럼 신광사에는 석굴법당 외에도 전임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나한전, 명부전, 산신각, 용왕각 등 많은 불사를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4. 대덕사(大德寺)

○ 소 재 지 :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28-14번지
○ 소속종단 : 대한불교 해동종
○ 대 표 자 : 이원광
○ 창건연대 : 1990년대
○ 신 도 수 : 200명
○ 유　　래

대덕사는 1980년대부터 동자암이라는 암자였는데, 모든 시설을 보수하여 대덕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으로 등록하였다가, 1990년대 대한불교 해동종(자비원) 사단법인 경남 종무원으로 현재까지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25. 견성암(見性庵)

○ 소 재 지 :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21번지
○ 소속종단 : 일붕종
○ 창건연대 : 1950년
○ 창 건 주 : 금호(金乎) 스님

○ 현 주 지 : 보광(普光) 스님
○ 신 도 수 : 1,000여 명
○ 유　　래

견성암은 하청의 앵산 줄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명당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곳이다. 이 암자는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곳이라고 구전(口傳)되어 오는데, 정확한 문헌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확실하지는 않다.

견성암은 연초면 연초초등학교 뒤편을 따라 100여 미터를 올라가다 주차장을 지나면, 한 눈에 대웅전 건물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 금호스님이 이곳에다 토굴을 만들어 기도도량으로 삼고, 암자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한국전쟁으로 죽토마을에는 피난민과 소개민(고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견성암에 불공드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죽토마을 주변에는 극장이나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번화가였다고 한다. 그 당시 옥용완 처사(處士)와 이차선(불명 공덕화) 보살이 견성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2년 보광 스님이 대웅전과 요사채, 범종각을 중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은 우진각 팔작지붕으로 삼포집 형태로 약 20평 정도이며, 요사채는 맞배지붕으로 약 50여 평의 건물이다. 범종각은 우진각 지붕에 16평으로 1995년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다 대웅전을 건립할 때, 신도들의 보시공덕을 기리는 뜻으로 견성암 대웅전 공덕비를 세웠다. 대웅전에는 석가여래좌상, 오른쪽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후불탱화를 비롯한 신중탱화 등을 봉안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상과 신중탱화는 견성암 창건 이전에 조성된 것을 다른 곳에서 이운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견성암은 원래 법화종에 속하는 사찰이었으나, 1997년 11월에 일붕종으로 개종되었다. 종조는 일붕대법왕 서경보 박사이다.

26. 대비정사

○ 소 재 지 :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865번지
○ 소속종단 : 원효종
○ 대 표 자 : 유정식
○ 창건연대 : 1981년
○ 신 도 수 : 300명
○ 유　　래

창건 동기는 불교 포교 수행 목적으로 하였으며, 거제 시민의 건강과 6.25동란 무주

고혼의 천도와 불자들의 가정안정,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안정을 기원하며, 승려의 본분을 수행하며, 거제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1981년 창건하여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현재 사찰을 유지하고 있다.

27. 해인정사(海印精舍)

○ 소 재 지 :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741번지
○ 소속종단 : 대한불교 조계종
○ 대 표 자 : 김자원
○ 창건연대 : 1995년
○ 신 도 수 : 300명
○ 유　　래

1995년 자원 스님의 수행과 정진, 도량과 포교에 원력을 뜻한바 있어, 한내리의 앵산줄기의 정각산에 터를 잡고 목조 전통 양식으로 대웅전을 건립하였다. 현 대웅전 터는 장발심등처라 즉, 항상 발심하여 지혜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옛부터 구전되어 장밧등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그리고 한내리의 모감주, 모감주 숲의 300여 그루는 지방 기념물 112호로 지정되어 있고, 옛날에 강원도의 노스님이 가져와서 한내리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원력으로 심었다고 전해진다. 모감주는 원래 추운 지방에서 서식하는 것인데, 이곳 남쪽에서 서식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그 언제인가부터 이곳은 많은 절터와 스님이 상주하며 수행하였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주지 자원 스님은 약 2,000여 평의 대지 위에 부처님 도량의 원력을 심어 불사와 수행 및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12교구 해인사 말사로 등록하여, 거제시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후손들에게는 전법 도량의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28. 바름정사

○ 소 재 지 :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025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대 표 자 : 백행화
○ 창건연대 : 1999년
○ 유　　래

불기 2543년(서기 1999) 음력 5월 7일 연초면 송정리 857-1번지에서 창건.
불기 2545년(서기 2001) 음력 4월 27일 현 소재지에 법당 신축하여 이전.

29. 천곡사(泉谷寺)

○ 소 재 지 :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산 10번지
○ 소속종단 : 한국불교화원
○ 창건연대 : 1957년
○ 창 건 주 : 김덕찬 스님
○ 현 주 지 : 동암(東岩) 스님
○ 신 도 수 : 약 110명
○ 유　　래

천곡사는 일명 아랫 천곡(下泉谷)과 윗 천곡 사이 산기슭에 자리한 조그마한 암자이다.

한국전쟁 휴전 얼마후인 1957년에, 이곳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그만 초가암자를 짓고, 김덕찬 스님을 모셔와 처음으로 불법을 전파하게 되었고, 기복처로서 주민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부에 등록하였으며, 1980년대에 처음 지었던 초가 암자가 퇴락하여 이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블록벽에 스레이트 지붕으로 건물을 지어, 법당과 방 1칸을 꾸며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신앙의 도량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30. 대곡사(大谷寺)

○ 소 재 지 :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274-1번지
○ 창건연대 : 1970년대 초
○ 창 건 주 : 유복금
○ 현 주 지 : 이학년
○ 신 도 수 : 100여 명
○ 유　　래

대곡사는 옥녀봉 밑에 위치한 칠천도에서 하나뿐인 절이다. 27년 전에 한 보살의 원력으로 지어졌으며, 그동안 여러 스님들이 거쳐갔다. 1991년도에 지금의 주지스님이 정

착해 주석하면서, 주위 산 2정보를 매입함과 동시에 도로 확장과 아울러, 법당 부지를 마련하고 불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신도는 100명 정도이며, 어느 종파에도 가입하지 않고, 법당 건립과 불사의 마무리에 따라 조계종에 등록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은 법당(슬라브 지붕), 요사 3동 등의 부대시설을 가지고, 발전계획에 따른 추진을 서두르고 모연에 힘쓰고 있다.

31. 대성사(大成寺)

○ 소 재 지 :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59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창건연대 : 1946년
○ 창 건 주 : 성혜(윤덕진) 스님
○ 현 주 지 : 용석(윤대수) 스님
○ 신 도 수 : 500여명
○ 유　　래

대성사는 8·15 해방직후에 창건된 절이다. 당시에는 대성암이라고 하였는데, 이임순 보살이 해방을 맞아 일본에서 귀국하여, 이곳 하청면 유계리 앵산 자락에다 토막을 치고 부처님을 모신 것이, 현 대성사의 창건이었다. 옛 법당은 대성사 윗쪽 대밭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6.25 때 피난민들이 들어와 갑작스럽게 신도가 증가하였지만, 휴전 이후에 작은 사찰로 변모하고 있다.

대봉산 기슭에 자리한 대웅전에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삼존불이 봉인되어 있으며, 이 삼존불은 창건 당시에 조성되었다. 칠성, 산신단도 부설되고 있다. 그 외의 부대시설은 종각과 요사채 2동이 있다. 또, 대성사 입구에는 석불좌상을 안치하고 있는데, 약 100년 전 대성사가 창건되기 이전에 어느 불자에 의해 봉안된 것으로 전해지는바, 높이는 약 50㎝ 정도로 작은 불상이고, 재료는 석재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 각자 된 입석 위에 온화한 미소로 자비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32. 광청사(光淸寺)

○ 소 재 지 :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산 109번지
○ 소속종단 : 대한불교 화엄종

○ 대 표 자 : 지청숙(월천)
○ 관리자 주소 :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산 109번지
○ 창건연대 : 1982년
○ 유　　래

창건주 지청숙 원장이 7년 동안 사찰을 건립하라는 현몽을 받고, 전국의 산천을 찾아 다니던 중, 거제도 하청면 앵산에 도착하였다. 그 산세가 꿈에 본 곳과 일치해 사찰을 건립하기로 발원하고, 백일 기도에 들어가니 기도 도중 백미 위에 '법출생만'이라는 글자가 드러나고, 당시 이것을 본 여러 신도들이 과연 이곳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는구나 하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하청면 유계리 앵산 자락에는 세 그루의 큰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잎이 제대로 무성하게 자라지를 못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세 그루의 정자나무가 다시 무성해지면 앵산에 다시 큰 절이 들어선다고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지청숙 원장이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하자 전설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정자나무들이 잎을 무성히 하여 살아났는데, 그것이 1982년 2월 7일이다. 앵산에는 북사, 정수사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다시 광청사가 들어서게 되었다.

33. 해룡사(海龍寺)

○ 소 재 지 :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1167번지
○ 소속종단 : 태고종
○ 창건연대 : 1970년대 초
○ 창 건 주 : 이명희 보살
○ 현 주 지 : 법광(法光) 스님
○ 신 도 수 : 500여 명
○ 유　　래

해룡사는 앵산의 동북쪽 줄기를 따라 하청면 소재지에서 1㎞ 떨어진 화산(華山)에 있는 사찰이다. 이 절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이름 모를 스님과 이명희 보살이 힘을 모아 창건하였는데, 이명희 보살은 부산 영도 출신으로 종전에는 다른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여러 업적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세연이진 하였다. 창건주의 뜻밖의 사망으로 텅 비어 있던 사찰을 인수하였다는 당시 비통한 내용을 현재 스님이 전해주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 명부전을 창건하였고, 대웅전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문, 사천왕문을 비롯한 부속 건물로 용왕각, 산신각,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또한 5층석탑을 세웠고, 범종은 주성되었으나, 아쉽게도 종각은 세우지 못했지만 머지 않아 성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전에는 아미타불, 대제지보살, 관세음보살 등 삼존불과 108불이 봉안되어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4. 대흥사(大興寺)

○ 소 재 지 :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산 4번지
○ 소속종단 : 일붕종
○ 창건연대 : 1904년(갑진)
○ 창 건 주 : 서진구 스님
○ 현 주 지 : 김상기
○ 신 도 수 : 100여 명
○ 유　　래

장목면 외포마을 뒷산에 들어앉은 대흥사는 일제시대 초기에 초가집으로 창건되어, 작은 어촌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佛法)을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전한다.

이곳은 망월산이 올려다 보이는 곳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다. 민족애환을 담은 내 고장 거제도 해동의 법응이 나래를 펴, 남쪽의 봄기운이 구천리를 감도는 조국의 영광이 불국화에 있어, 그 이름을 대흥사라고 명하였다.

35. 장흥사(長興寺)

○ 소 재 지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47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창건연대 : 1920년대(대한제국)
○ 창 건 주 : 진덕산
○ 현 주 지 : 진지용
○ 신 도 수 : 1,000여 명

○ 유　　래

상기 소재지에 위치한 장흥사는 입구부터가 아예 찾기 힘든 곳이다. 거제도에도 이렇게 깊숙한 골짜기가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다.

풍수지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금계포란(金鷄包卵)의 지형으로, 한국전쟁시에도 총을 쏘았을 때 총알이 피해갔다는 설과, 총에 맞은 새도 절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경내를 벗어나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설까지 전해오는 명당자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선입감 때문인지 경내에 들어서니, 무척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장흥암은 신라 때의 고찰이 있었다는 자리로 전해지며, 조선중엽의 금은박불화(金銀佛畵)가 가로 1.5m, 세로 1.5m 크기의 동산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 금은박불화는 견본채색화로서 섬세하게 금과 은분(銀粉)으로 그려져 있어, 1971년에 동산문화재로 등록한 바 있었다.

40여 년 동안 장흥사를 지키고 있다는 보살의 구전을 들어보면, 이렇게 소중한 금은박불화를 감히 매수하겠다고 이곳을 찾아드는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접할 때나, 200여 년 된 탱화를 도난당했을 때는, 인과응보를 모르는 인간이하의 소행들에게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보름 후에 되찾을 수는 있었지만, 훼손상태를 회상하면 지금도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어렵기만 하다.

이곳 장흥사는 1,000여 명의 신도와 주지스님의 큰 원력으로 일천불조성 대작불사의 성취를 위해, 사부대중이 다함께 기도에 여념이 없다.

36. 거제 불교 거사림

○ 소 재 지 : 거제시 옥포1동 537-44번지

○ 창설연대 : 1989년

○ 유　　래

지역의 성인 불자들이 각자의 불교 동을 공동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고 발전시켜, 밖으로 지역의 평안한 이웃을 이끌어 나가고 화합하며, 안으로 각자의 마음을 밝히고 꾸준히 수행 정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룩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고자, 거제불교 거사림을 창설하였다.

37. 대연사(大蓮寺)

○ 소 재 지 : 거제시 옥포 1동 193-2, 두모동 313번지

○ 소속종단 : 미타종
○ 창건연대 : 1937년
○ 창 건 주 : 최대연 보살
○ 현 주 지 : 이혜봉(李惠鳳) 스님
○ 신 도 수 : 500여 명
○ 유　　래

대연사는 1937년 최대연 보살의 뜻에 따라,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서 처음 창건되었다. 이후 1970년 12월에 진주시 상대동 선악산 기슭에 이건하였다가, 부산으로 다시 이건하였다. 1984년 3월에 장승포동 두모마을로 또다시 이건하였는데, 1992년 현재의 위치에 기도도량 대연사로 분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모마을 흠석산 자락에 대연사, 갑골산(甲骨山)에 대연사 특별기도도량을 건립하게 되었다.

대연사는 옥포 1동 고개에서 왼쪽으로 성지원 옆길을 따라 갑골산으로 200여 미터 들어간 곳에 있는 단층 건물로, 지금은 대웅전 건립불사가 진행 중이다. 법당에서 옥포시내를 바라 볼 수 있는데, 산림에 덮혀 깊은 산중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현재 갑골산에 있는 대연사는 혜봉 스님이 주지로, 흠석산 대연사에는 백청연화(白靑蓮華) 보살이 대표로 있다. 갑골산 대연사에는 요사채, 대웅전 등이 있고, 흠석산 대연사에는 인법당으로 요사와 함께 쓰고 있다. 앞의 대연사에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천수관음, 지장단 외에 칠성, 산신, 용왕단이 부설되고 있다. 이곳의 후불탱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찰의 법당은 단층 슬라브로 20여 평 되고, 요사채는 단층 슬라브 20여 평으로 비교적 아담한 규모이다. 흠석산 대연사는 단층 슬라브에 대웅전, 요사채로 이루어져 있다.

38. 보광사(普光寺)

○ 소 재 지 : 거제시 옥포2동 755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89년
○ 창 건 주 : 황엄(黃嚴) 스님
○ 현 주 지 : 황엄 스님
○ 신 도 수 : 1,000여 명
○ 유　　래

보광사는 옥포 2동 중심지에서 벗어나 조라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덕포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작은 산 중턱바지가 된다. 황엄 스님은 1987년 범어사 선방에서 수행하다가, 강원도 낙산사에서 천일기도를 회향 후, 그 해 겨울 거제도로 들어왔다. 달세방 생활을 하면서 옥포지역에 사찰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사찰 창건을 결심했다고 한다.

1989년 현재의 보광사 부지 140평을 매입하여, 포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7년 요사채와 법당을 동시에 건립하여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종불사를 위하여 끊임없는 정진과 천일기도 끝에 시주단월을 만나 범종 불사를 성취할 수 있었다. 범종불사를 맡은 유순례 보살은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그 후 남편의 신병은 쾌유되었다고 한다. 보광사는 일반 시민을 위한 '보광사 시민선원' 이라는 봉지를 삼고, 마음의 포교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봉안하고 그 좌우에 관음, 보현의 협시로, 이 삼존불은 최근에 조성하였다.

그리고 보광사는 요사채 20평의 슬라브 건물로 지었고, 대웅전은 팔작지붕에 16평 정도이다. 또한, 지장전은 지장보살 주존의 법당이며, 일반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은 2층 석조건물로 지붕만 기와를 올린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다. 현재 신도의 수는 1천 여명으로 늘어나, 옥포지역에서 많은 신도가 모여들고 있다.

39. 대성사

○ 소 재 지 : 거제시 옥포 2동 1914-3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대 표 자 : 양달헌
○ 창건연대 : 2000년
○ 유　　래

본 대성사는 옥포 2동에 위치한 자그마한 포교당이며, 창건동기는 불교의 진리를 불자들에게 포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40. 총명사(總溟寺)

○ 소 재 지 : 거제시 장승포동 산 17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창건연대 : 1900년대 초(대한제국)

○ 창 건 주 : 명오 스님
○ 신 도 수 : 500여 명
○ 유　　래

총명사(總溟寺)는 거제시 장승포동 신부마을 뒤 망산(望山)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장승포에서 옛 일본식 건물을 지나, 장승포 우체국 앞을 따라 500미터 정도 걷다가 뒷산을 바라보면 총명사가 보인다. 이곳 대웅전 앞에서 바라다 보는 장승포항 전경이 시원스럽게 트인게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다.

조선말기에 망산 정상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구전되어 왔다. 일제 때 그 자리에 일본의 바다신을 모시는 신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1925년 5월 일본인 이리사는 총명사를 폐찰시키고, 콘피라신사를 건립하였다. 이에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폐찰된 총명사는 1931년 장승포동 장승마을 서남쪽 산록에 건립하였다가, 한국전쟁을 거쳐 애광원의 설립으로, 다시 196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창건주는 명오 스님이었고, 낡은 초가 요사채를 지었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낡은 나무로 대웅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1962년에 중건된 총명사는 1979년 현 스님이 중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에 대웅전은 팔작지붕에 양쪽 끝으로 용마루가 세워져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다. 처마 아래에도 용머리를 장식한 모습이 이채롭다.

대웅전의 삼존불은 아미타주불에 좌우 관음·세지협시보살과 신중단이 있고, 칠성단, 산신단, 용왕단 등의 부설단이 봉안되고 있다.

창건주 명오 스님은 "장승포 지역에 사찰이 없어 망산에다 터를 잡고 포교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곳은 장승포 전 지역과 마전동, 멀리는 쓰시마(대마도) 섬까지 바라보이는 전망 좋은 명당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총명사는 1979년 11월 중창할 때, 일반 신도들이 기와 한 장, 모래 한 삽을 모아서 지었다고 전해지는 바, 요사채 옆에 있는 '총명사대웅전건립공덕비'에 보면, '황폐했던 총명사를 지금의 총명사로 이룩하기에는 여러 동참단원의 신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기와 한 장, 모래 한 삽, 석가래 기둥, 심지어는 대웅전 대들보를 운반하는 작업이 야말로 열사와 같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적고 있다.

현재 대웅전 20여 평과 요사채 60여 평, 산신각, 용왕각으로 부속건물을 이루고 있는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말사로 관리되고 있다.

41. 백연암(白蓮庵)

○ 소 재 지 : 거제시 능포동 630번지
○ 소속종단 : 법화종

○ 대 표 자 : 이무훈
○ 유　　래

이 암자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제11교구 창원 불곡사, 우담 종문회 문도의 수행처로 소속되어 있다. 현지의 주지스님은 백연암과 2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 보다 발전적인 가람수호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창건주 윤상순(법성화) 보살은 일찍이 불문에 입문하여, 약 30년간 본 도량에 주석하면서 많은 신도 불자들에게 마음의 지주가 되었고, 자비심을 베풀어 수행 정진해 왔다.

42. 수도암(修道庵)

○ 소 재 지 : 거제시 능포동 701-78번지
○ 소속종단 : 조계종
○ 대 표 자 : 하만동(원정)
○ 창건연대 : 1974년
○ 신 도 수 : 700명
○ 유　　래

거제시 능포동 복골산 수도암은 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서, 항구 도시이자 청정 해역 멀리 가덕도까지 한눈에 들어오며, 시내가 환히 내려다 보여 멀리 부산 다대포까지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물이 맑아 동네 이름도 옥수동이라 불리며, 옥수동 10-1호에 위치하고, 도심 포교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수도암은 일본에서 30여년 수도한 석기화상이 귀국하여 월정사, 신흥사, 조계사 등 제방에서 안거, 이곳 거제도로 인연하여 장승포 구촌 총명사를 창건하여, 쌍계사 말사로 등록하고 이전하였다.

현 수도암을 토굴로 삼아 1974년 3월 1일에 창건하여 지역 포교 활동과 정진에 여념 없었으나, 세연이진 하여 1981년 1월 29일 입적하였다. 이후 월운(원공) 스님이 부임하였으나, 인도의 한국 사찰 건립을 위해 인도에서 불사 중이며, 현 주지 원정 스님이 부임한 후, 현대식과 고전 건축양식을 겸한 2층 법당(100여평)을 건립 불사 중이며, 현재 1층 법당(50평)이 완공되었다. 수도암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을 3존불로 봉안하고, 천불 중 365불이 봉안되었다. 그리고 후불, 신중탱화와 칠성탱화도 봉안하고 있다.

밖에는 산신, 용왕의 석상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의 부속 건축물로 대웅전 앞뜰에

는 쌍석등과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5층석탑 2기가 세워져 있으며, 요사채 4동과 방사가 많아 언제나 숙식이 가능하다.

43. 약수암(藥水庵)

○ 소 재 지 : 거제시 마전동 650-4번지
○ 소속종단 : 대한불교 조계종
○ 대 표 자 : 도리천
○ 창건연대 : 1975년
○ 창 건 주 : 박성덕 보살
○ 신 도 수 : 700여 명
○ 유　　래

목마른 생명을 촉촉이 적셔 주는 감로 약수물과 같은 뜻으로 이름지어진 약수암은 거제도 제2의 해금강이라고 불릴 만큼 산과 바다와 수목의 풍경이 뛰어나, 원시적 대자연 경치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는 약수암은 1975년 5월경, 당시 장승포에 거주하던 박성덕씨가 음력 4월 초파일 밤에 현몽을 받고, 본 사찰을 창건하게 되었다. 박성덕 씨의 한 평생은 그야말로 불심으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으며, 그때의 초파일 밤에 평소에 다니던 먼 사찰에 가서 등불을 밝혀 놓고 귀가하여, 늦은 밤까지 지극 정성 기도를 드리던 중, 비몽사몽간에 수십 명의 동남 동녀가 등불을 밝혀 들고 박성덕씨를 현재의 약수암 절터에까지 인도한 뒤, 강강수월래 춤을 추듯 빙 둘러 춤을 추며 노래 부르기를, "이곳에 절을 지으면 생전에 큰 행복을 얻고 사후에는 왕생극락하리로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이곳에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 과연 아름다운 경치 속에 훌륭한 명당터라는 생각이 들어, 그 환희와 감동에 찬 마음을 가누지 못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칠일 칠야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린 뒤, 본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다.

약수암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중앙에 모셨으며, 좌·우 협시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봉안하였다. 그리고 산신각, 용왕각, 9층석탑, 종각, 감로선원, 요사채 건물이 있어 아담한 사찰 규모를 갖추고 있다.

제2장 기 독 교

제1절 기독교의 전래

기독교의 수용은 일찍이 1816년 영국출신의 홀(Hall, B)에 이어, 1832년 독일 태생의 구츠라프(Gutzlaff, K. F. A), 그리고 1866년 영국의 토마스(Tomas, R.), 1867년 스코틀랜드의 윌리암슨(Williamson, A.) 등에 의해 꾸준히 시도되었다. 그러나 성과 없이 내려오던 중, 1873년(고종 10) 조선선교에 뜻을 두고, 만주 통화현(通化縣) 고려문(高麗門)에 진출한 스코틀랜드의 일치 자유교회 출신의 로스(Rose, J.)와 그의 매부 매킨타이어(McIntyre, J)가 그곳에서 마침내, 의주출신의 청년학자 이응찬(李應贊)·이성하(李成夏)·김진기(金鎭基)·서상륜(徐相崙) 등을 만나, 그들에게 성서를 가르치면서 함께 성서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1876년에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1882년에는 《예수선교누가복음전서》라 하여 신약성서 전부가 간행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출발한 셈이다.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기독교회의 반일성과 애국성을 알고 있는 일본은 경술국치 이후, 조선통치의 장애물이 기독교라 단정하고, 비인도적인 날조와 탄압으로 그 근절을 꾀하였다. 1910년 말 일본 총독 선천을 음모했다고 날조하여, 서북지방의 기독교인 지도자 157명을 검거하고, 고문으로 공백서(供白書)를 작성, 더러는 고문 치사하게 하고, 105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윤치호, 이승훈(李昇薰) 등 기독교계 인사와 신민회 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교회는 독립선언의 기치를 내걸고 앞장서 이승훈이 천도교와의 교섭을 담당하고, 길선주·유여대·오화영(吳華英)·신석구(申錫九) 등 16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안세환의 일본 내각 총리대신에게의 선언서 전달, 현순(玄循)의 미국 대통령에의 탄원서 전달, 그리고 국내 각지로의 선언서 배포 및 연락을 취하여 일제히 3.1운동에 대거 참여하였다.

1. 사회 · 농촌운동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 공산주의의 국내 침투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 교회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 특히, 1925년 일본정부가 소련정부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공산주의 활동이 본격화되어,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게 되고, 반 기독교 운동을 전개하며, 부흥사 김익두(金益斗)의 부흥회에 난입, 구타와 파괴로 교회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종교 만행은 함양 · 이리 · 간도 등지에서 잇달아 일어났다. 교회는 처음 이들 사회주의개혁 기운에서 소박한 기독교 사회복음과의 일치점을 모색하려 했고, 기독교가 바로 민중의 종교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공격에 일부에서는 교회 자성론까지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8년 공산주의자들은 제3차공산당 사건을 계기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 · 시베리아 등지로 피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와 교인들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계속하였다.

농촌운동은 1925년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27년 브루너(Brunner, E.S.)가 다음해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에 제출할 《농촌한국》이라는 방대한 조사연구보고서가 간행되면서, 교회는 농촌사업의 중요성을 역설, 농촌전문가인 클라크(Cark, F.C.) · 번스(Bunce, H,C.) 등을 초빙하여 농촌사업에 전력하였고, 1929년에는 예수교연합공의회와 YMCA · YWCA 연합으로 대대적인 농촌강습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촌사업협동위원회를 조직, 1929～1930년에 전국 27개 도읍에서 대규모 농촌강습소를 개설하여, 농촌개량 · 농사기술 · 협동조합 · 법률문제 · 의식화 교육 등을 진행시켜 나갔다.

2. 신사참배 저항과 그 시련

1921년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불가 진정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하였고, 1932년에는 평양에서 기독교학교들에 대한 참배강요 공문이 떨어져,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는 이때 신사참배 거부의 자세를 굳혔는데, 이는 기독교 유일신에 대한 예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절대 통제를 위해 신사참배 강요에 나서 교회의 굴복을 강요했다. 이에 그들의 강요와 위협에 견디다 못해, 1938년 장로교총회는 신사참배가 국민의례의 형식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가결하였고, 이어 감리교와 기타 교파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교회는 이미 1936년 기독교학교 대부분의 교육 인퇴(人退)를 가결

하여 신사참배에 저항했고, 주기철(朱基徹)·최봉석(崔鳳奭) 등은 이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 문제로 신학교가 폐쇄되고, 2백여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2천여 신도가 투옥되고, 50여 교역자들이 순교하였다. 한편, 전쟁 말기가 되자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혹해져,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선교사들은 1942년 6월 연희전문의 언더우드 등을 마지막으로 모두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1938년 YMCA와 YWCA를 해산시켜, 일본 YMCA에 종속시켰고, 그해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또한 해산되어, 조선기독교연합회로 변질되었으며, 농촌운동·절제운동은 〈치안유지법〉 저촉혐의로 금지되고, 관련 인사들은 모두 구금되었다.

1940년에는 침례교를, 1943년에는 안식교와 성결교회를 각각 폐쇄시켰으며, 신학교는 황도정신연성소(皇道精神鍊成所)로 교회당은 군수공장 또는 헌병사령부로 징용하였고, 교회로 하여금 전향 성명을 내도록 강요하였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실질적 말살을 꾀하였던 일본은 마지막 남아 있던 교회들마저 강제로 해체, 병합하여 조선교단(朝鮮教團)을 만들어 일본 기독교단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신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폐쇄된 평양신학교 대신에 관인신학교가 설립되고, 서울에서는 김재준(金在俊)을 중심으로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3. 광복과 6.25사변

광복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재생과 부흥의 계기를 약속하였다.

광복 직후의 혼란기에서 점차 질서를 찾아 순수성과 전통성 문제 해결의 단서를 포착하려던 때에 6.25남침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미국의 주구로 민중의 착취자로 몰아 탄압하고, 교인들을 학살하였다. 손양원(孫良源)·조민형(趙敏衡)·정일선(丁一善) 등이 순교하였고, 남궁혁·양주삼·박현명(朴炫明) 등 교회의 지도자들이 납북되어 소식이 끊어졌으며, 6.25남침으로 인해 교회가 입은 피해는 교회의 파손·손실에서 장로교가 152개, 감리교가 84개, 성결교회가 27개, 그리고 구세군영이 4개, 그 밖의 교파 교회의 손실도 막대하였다. 그리고 순교, 납치된 기독자는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에 달했다.

장로교는 전란 중에 기독교장로회와 예수교장로회로 분립하여, 각각 오늘에 이르렀고, 1951년에는 이미 고려파(高麗派)가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 법통(法統) 총회로 갈라섰다. 신사참배 교회에 대한 이들의 정리는 이것으로 일단 결말이 난 셈이었다. 감리교는 1954년 총리원파의 감독중임 요구관철과 호헌파(護憲派)의 감독경질 선거요구로 충돌하여 결국 양파로 분립되었다. 이러한 겨레의 시련과 교회의 분열은 전통교회의 태도

불신 등이 겹쳐, 소종파운동이 창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종파적 운동들은 현실적인 욕구충족의 동기 명시, 체험적 신앙의 확실성, 생활의 소규모 집단적 경제이익공동체의 구성이나 기성교회에 대한 거부 형태로 대중침투의 방향을 잡아, 그들은 그런 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4. 한국적 신학과 교회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는 4월 의거의 격동과 5월 혁명의 충격을 겪었고, 현실의 변동과 신흥 종파의 창궐은 교회에 자성의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 교회는 이때부터 분열 극복의 신학을 성서적 근거에서 재발견하고 에쿠메니컬운동에 정진하였다.

1966년에는 초동교회에서 신·구교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예배를 드리고, 1971년에는 부활절을 기해 신·구교 공동번역의 《신약성서》가 간행되었으며, 1977년에는 《성서》 전부가 완역, 간행되었다. 신학교육에서의 초교파적 연합운동도 1964년 4월 연세대학교 안에 연합신학대학원을 설치하여, 어느 교파 출신이건 간에 함께 교수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구현되어 나갔다. 1965년에 창설된 한국신학대학협의회나 강원룡(姜元龍) 주도의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대화운동, 중간집단운동 또한 이 연합운동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1965년에는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전국 교회가 다 함께 단결하여서 추진한 '전국 복음화 운동'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선교의식의 발현, 촉진에도 중요하겠지만, 에큐메니컬 정신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남겼다.

1) 부산·경남지역의 기독교 선교활동

1876년 부산포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이주어촌 형성과 외국인들의 출입은 현저하게 늘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포는 물류이동과 함께 신 문물들이 오가는 개항장으로서 바뀌었으며, 또한 부산포 개항은 경남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마산포·울산·거제·통영·고성 등지에도 일본인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

부산포 개항으로 부산지역은 각국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활동하는 첫 선교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어 경남 전 지역으로 전파되어, 기독교 선교활동의 본격적 장을 열게 되었다. 여기서 부산지역의 선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거제지역의 기독교 전래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창기 부산지역의 기독교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거제도의 기독교 전래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회는 조선사회의 전통성과 이질감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다. 척사위정파의 왜양일체(倭洋一體)라는 이념에 의한 기독교 배척의 상소가 잇달아 일어났다.

을미사변으로 이루어진 명성황후 민비 시해사건 때, 선교사 언더우드 헐버트(Halbert, H. B.), 아비슨(Avison, O. R.), 윤응렬(尹應烈)이 총을 들고 고종을 불침으로 지켰고, 알렌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미국과 세계 각국에 알렸다. 기독교의 반일태도는 독립운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895년 11월 춘생문 사건, 1896년 9월 고종탄신 기념일의 축하예배 등을 통해서 교회는 철저한 민족교회로 그 형질을 굳혀 갔다.

이때(1896년), 거제군 국산리 50번지 초가삼간에서 주금주씨, 부인 윤혜선씨, 아들 주형찬 등이 창립예배를 드린 것이, 거제지역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오게 된 동기다.

옥포지역에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은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던 때, 부산에서 옥포는 거제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3절 교회 현황

1. 고현교회

○ 주 소 : 신현읍 고현리 661번지
○ 창건자 : 김 수 영(전도사)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교
○ 목 사 : 박 정 곤
○ 연 혁

- 1940. 김수영 전도사가 임찬식·윤송학·반봉연·김두악씨와 함께 개척함. 고현 170-2번지 대지 70평, 초가 2채 구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함.
- 1942. 8. 김수영 전도사 신사참배 거부로 일경에 검속되다.
- 1952~1953 한국전쟁으로 설치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군내 분산 소개되어, 교회는 약 2년간 문을 닫게 됨.
- 1954. 군내 분산 소개된 주민이 입주하여, 고현 170-2번지 교회당 대지 70평을 구상용씨 대지 고현 159-1번지 157평과 교환하여, 정

부 후생 주택 2동을 인수받아 목조건물 20여평 교회당 건축하다.

- 1968. 4. 고현 159-1번지에 35평 블로조 교회당을 건축
- 1974. 고현 159-50번지 50평을 기증 받음.
- 1978. 8. 고현 159-1번지에 1차 73평 스라브조 1층 교회당 건축
- 1981. 12. 양정성결교회 영입(교인 20여명)
- 1982. 10. 고현 159-16, 159-27번지의 102평 및 주택 2채 구입
- 1983. 5. 고현 159-1번지에 2차 171평 스라브조 2층 교회당 건축
- 1984. 3. 고현 어린이 선교원 개원
- 1990. 5. 고현 156-37번지의 대지 154평 및 건물 구입(구해금강)
- 1990. 12. 교회설립 50년사 발간
- 1992. 2. 양정리 산 207-3번지 630평 기증 받음.(60평 건물 건축)
- 1994. 5. 고현 159-33번지 68평 및 주택 구입
- 1996. 5. 고현 661번지 일대 1,820여평 구입
- 1997. 3. 고현경로대학 설립
- 1997. 5. 고현 661번지에 220평 조립식 교회당 건축이전
- 2000. 12. 고현 668-1, 2번지 300평 구입. 교회 설립 60년사(화보) 발간
- 2001. 7. 고현 674번지 700여평 구입

2. 고현감리교회

○ 주 소 : 신현읍 고현리 866-2번지
○ 목 사 : 김 성 기
○ 연 혁

- 1984. 10 마산동지방회에서 교회를 개척
  박청수 전도사 30평 건물을 임대하여 개척하고 설립예배 드림.
- 1989. 고현리 866-2번지 대지 200평 구입하여 60평을 건축.(40평 성전, 20평 사택)
- 1996. 식당 20평 증축

3. 고현충현교회

○ 주 소 : 신현읍 고현리 86-4번지

○ 목 사 : 윤 신 혁
○ 연 혁

- 1986. 6. 15 신현제일교회에서 분리한 김기종 장로 외 11명이 수요기도회로 모임
- 1986. 6. 19 신현읍 고현리 37-35번지 창조아파트 2층 10평을 임대, 고현충현교회 설립하여 초대목사로 정진왕 목사 시무
- 1986. 10. 15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에 가입
- 1987. 5. 1 예배 처소를 신현읍 고현리 37-31번지의 2층 40평으로 이전
- 1988. 12. 10 새 성전 입당예배
- 1992. 3. 20 목사관으로 한양아파트 502호 임대
- 1992. 6. 20 교육관 30평을 임대
- 1994. 10. 신현읍 고현리 산 33-1번지 6천평을 성전 부지로 매입
- 1999. 10. 19 성전 증축 준공 및 입당예배

4. 동산교회

○ 주 소 : 신현읍 문동리 561번지
○ 목 사 : 김 용
○ 연 혁

- 1958. 7. 2 반석근 집사는 고향인 문동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김두연 목사를 모시고 개척예배. 당시 반씨의 부모 반평관, 윤치선씨도 함께 시작함.
- 1965. 5. 10 교회당을 문동 561번지로 이전
- 1966. 3. 5 김동원 목사 부임
- 1983. 7. 10 교회당 증축

5. 샘물교회

○ 주 소 : 신현읍 고현리 중곡동 1014-8번지
○ 목 사 : 손 창 식

○ 연 혁

- 1994. 6. 9 손창식 목사 부임. 현재 시무 중

6. 수월교회

○ 주 소 : 신현읍 수월리 1082-3번지
○ 창건자 : 제 정 건(전도사)
○ 목 사 : 황 준 영
○ 소유자 :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 연 혁

- 1964. 4. 5 김종석 집사 주택에서 예배. 해명교회로 시작
- 1964. 11. 5 신현읍 수월리 1082-1번지 해명교회 건축
- 1990. 3. 1 신현읍 수월리 1082-3번지에서 새 성전 건축하고, 수월교회로 개명

7. 신현교회

○ 주 소 : 신현읍 고현리 686-2번지
○ 창건자 : 손종길외 2명
○ 종 파 :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 목 사 : 유 종 하
○ 연 혁

- 1954. 3. 부산영도교회 보조 손종길, 박남선씨가 모여 첫 가정예배를 드림. 교회명은 고현교회
- 1958. 2. 현 시장에 건평 15평 교회당 신축.(백양메리야스 건물소재) 김철주 전도사 시무
- 1961. 3. 교회명 고현교회에서 고현제일교회로 변경. 신종규 전도사 시무
- 1972. 6. 교회예배당 40평을 신축 봉헌. (현 호돌이 오락실 위치)
- 1978. 3. 고현제일교회에서 신현교회로 변경. 박병율목사 시무
- 1985. 5. 영건령 272평의 새 성전 준공, 입당예배(현위치). 오성희목사 시무
- 1986. 2. 선교원 개원

- 1998. 12. 선교교육관 570평 준공. 유종하목사 시무. (선교원 및 중고등부 교육관으로 사용)

8. 주은교회

○ 주 소 : 신현읍 고현리 249-2번지
○ 목 사 : 조 정 오
○ 연 혁

- 1985. 3. 13 고현리 성내아파트 110호에서 개척예배
- 1988. 5. 5 고현리 194-1번지에 교회 이전
- 1989. 12. 5 조정오 목사 안수
- 1989. 12. 23 고현리 249-2번지 교회 부지 110평 매입
- 1990. 9. 10 입당 감사예배
- 1995. 12. 4 한국 비디오 성서통신대학 분교 개원
- 1998. 6. 1 재건신현교회에서 주은교회로 명칭 변경

9. 평강교회

○ 주 소 : 신현읍 장평리 379-16번지
○ 목 사 : 이 흥 섭
○ 연 혁

- 1982. 4. 25 신현읍 장평리 342번지 임시 천막 교회로 이종호·원광호·허창대·김자경·김찬태 목사의 일가친척들과 16명이 새장평교회로 개척
- 1982. 5. 16 회장 김찬태 목사, 서기 허창대 집사, 회계 원광호 집사 제직회 조직
- 1982. 7. 5 사회 김찬태 목사, 설교 김상도 목사, 기도 전성준 목사, 부산노회 회원들과 새장평교회 창립예배

10. 장평교회

○ 주 소 :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238번지

○ 종　파 :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 창건자 : 임도오(목사)
○ 목　사 : 이 종 세
○ 소유자 :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 유　래

- 1955. 6. 거제시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임도오 목사에 의하여, 신현읍 장평리 320-2번지에 개척하다.
- 1956. 대지 42평, 건평 30평의 성전을 건축 완공하다.
- 1978. 1. 31 거제지역(장평) 출신 중, 천경주씨를 초대 장로로 장립하여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다.
- 1983. 12. 14 본 지역출신 성도 중, 두번째로 정규영씨를 장로로 장립하여 지역복음화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다.
- 1992. 6. 7 장평리 238번지에 건평 250평(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 성전을 건축, 완공하여 명실상부 거제시의 중추적 교회로 발돋움함.
- 1996. 10. 12 정금영, 윤초명씨 2명을 장로로 장립하므로 교회의 성장을 대내리에 알리다.
- 2001～현재 13명의 담임 교역자와 13명의 부교역자가 교회를 섬겨 왔으며, 현재는 담임목사 이종세, 부교역자 허성욱, 전병철 전도사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11. 화평교회

○ 주　소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03-2번지
○ 종　파 :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 목　사 : 이 형 철
○ 유　래

본 교단은 고신 교단이 예배당 소송과 유엔군 철수 반대 성명서 발표 등 비 성격적, 비 신앙적 정치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1959년 상회 불복종으로 제명된 고 백영희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장로교 보수 교단으로, 1987년 신상만 전도사가 장평에 파송되어 위홍렬 집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을 시작으로, 장평 천막교회 고현리 961-165번지를 거치면서, 현 위치인 고현리 503-2번지에 1996년 6월에 역사적인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2. 고현재림교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52-3번지
○ 종 파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창건자 : 홍 탐 실
○ 소유자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 유 래

- 6.25 동란후 피난생활하던 홍탐실씨가 거제군청 토목계장 부인(하동 남장로 처제)과 가정예배 시작
- 1956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는 무질서와 빈곤으로 모두가 희망을 잃고 살았다. 그때 종교의 힘은 삶에 대한 활력소가 되었다. 예배 볼 장소가 없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 1957 통영지구 전도사의 방문으로 가끔 거제교회와 연합예배
- 1959 대회로 헌금 송금 시작
- 1963 미국 구호물자 배부로 예배인원 증가. 50여명 집회
- 1963~64 일부 구호품을 판매하여 교회부지 구입(약 2만원), 이용진 대회장의 조언으로 159-31번지(약 60평)
- 1973 홍탐실 소장 중병으로 부산 및 서울위생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던 중 예배 감소 해산되어 헌금송금 중단. 합회서 부지 매매 명령으로 매매됨.
- 1980 초대 목회자 전한봉 전도사 부임. 이용진 대회장이 부양료로 고현목회자 파송 및 교회 월세 계약(현 읍사무소 건너편) 홍탐실(현재 고현거주), 김현무, 강치은(사망), 이기원(박명호 파 전향) 주축됨(전한봉 30만, 남종섭 참여)
- 1981 756-16번지 교회부지 구입(대지 75평, 480만원)
- 1982 성병우 전도사 부임
- 1984. 3~'86. 2 목회자 부재로 김만석 소장이 교회를 돌봄.
- 1986 송병호 목사 부임, 현 위치 100평을 1,500만원에 매입, 슬라브 단층만 건축완료됨.
- 1987. 3~'89. 2 목회자 부재로 김만석 소장이 교회를 돌봄.
- 1989 종탑, 3, 4층 성도들과 합회 그리고 옥미조씨(장로교 장로,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완공, 여기에는 동래교회 조수남 장

로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

- 1991. 2 교회입주 예배, 전영수 목사 부임
- 1993 정종환 전도사 부임
- 1994 김인한 전도사 부임
- 1995 교회 도색 및 커튼 휘장 장식
- 1997 최윤호 목사 부임
- 1999. 1 2층 조립식 식당 준공, 2월 강현중 목사 부임
  거제, 유호 성도들이 고현으로 통합 출석하게 됨.
- 2000. 3. 교회당 바닥 보일러 시공 및 내외부 도색, 조립식 현관 증축 및 간판 제작하여 부착함.
- 2000. 4. 29 교회 조직예배

13. 고현제일교회

○ 주 소 : 신현읍 양정리 987-1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 전도사 : 권 혁 이
○ 창건자 : 박 일 호(안수집사)
○ 유 래

박일호, 서순완 집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정하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신현읍 양정리 987-1번지에 220평을 빌려 매립을 하고, 조립식 45평 건물을 세워, 1994년 4월 17일 설립된 교회이다.

14. 경남교회

○ 주 소 : 신현읍 상동리 13-5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전도사 : 박 종 성
○ 연 혁

- 1996. 4. 5 신현읍 상동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구원의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설립하였다.

15. 구조라교회

○ 주　소 : 일운면 구조라리 382-1
○ 종　파 : 옥 치 봉
○ 연　혁

- 1967. 4. 19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개척하여 설립

16. 동광교회

○ 주 소 : 일운면 망치리 358
○ 목 사 : 정 쌍 모
○ 연 혁

- 1975. 12. 7 부산 동광교회 구원옥 장로가 방 3칸짜리 기와집을 구입하여, 김철주 목사를 시무케 함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음.
- 1987. 5. 기공식
- 1987. 7. 25 준공식

17. 소동교회

○ 주　소 : 일운면 소동리 277-3번지
○ 전도사 : 김 재 민
○ 연　혁

- 1977. 5. 지세포교회 이추경 집사를 중심으로 소동마을 회관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가정집, 바닷가, 정자나무 밑을 전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세포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소동리 404번지 밭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자 했으나, 밭 소유주 가족들의 반대로 짓지 못하였다.

- 1981. 6. 소동출신인 지세포교회 신종도 집사가 소동리 377-3번지 대지 81평 헌집을 사서 헌납함으로, 지세포교회에서 구입했던 404번지의 밭을 판 대금으로 뒷밭 소동리 277-1번지 대지 86평을 구입하여 합치고, 일을 해야 한다고들 하였지만, 역부족으로 더 이상 이어가기가 힘들 것을 알고, 당시 지세포교회 반석문 장로가 남마산노회 남전도회에 개척사업을 청원한 바,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함.
- 1992. 1. 10 조립식 교회 건물을 완공함.
- 1992. 7. 6 장흥 강도사 부임
- 1992. 7. 21 설립예배를 드림
- 1994. 4. 13 장흥 강도사 퇴임
- 1994. 4. 14 최재열 전도사 부임
- 1994. 12. 23 최재열 전도사 교통사고로 소천
- 1995. 3. 13 김재민 전도사 부임(현재 시무 중)

18. 지세포교회

○ 주 소 : 일운면 지세포리 950-1번지
○ 창건자 : 박동환, 이명순 부부
○ 목 사 : 최 우 권
○ 연 혁

- 1918. 11. 호주장로교회가 파송한 왕길지(王吉志, Rev, Gelsoy Engil)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박동화·이명순씨 부부가 일운면 지세포리 725번지에 설립한 회진서당(會珍書堂)에서 예배드림으로 지세포교회가 설립됨.
- 1921. 3. 회진 교황에서 초가 3간을 개축하여 예배당 건립
- 1925. 12. 지세포리 850번지로 옮겨 30평 예배당을 건축
- 1944. 4~1945. 8. 15 일제의 박해로 예배당이 폐문되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다시 예배
- 1975. 6. 45평 예배당을 건축
- 1986. 3. 31 기공하여 현 위치에 단면 115평, 연건평 300평의 예배당을 건축
- 1986. 12. 25 입당

19. 지세포제일교회

○ 주 소 : 일운면 지세포리 819-1번지
○ 목 사 : 이 종 대
○ 연 혁

- 1979. 4. 1 신인규·이추경·김부조 외 8명이 일운면 대신에 있는 지세포 유치원에서 첫 예배
- 1979. 4. 8 고신에 지세포제일교회로 거제시찰에 가입
- 1980. 5. 25 본 교회 초대교역자 양기철 전도사 부임

20. 가배교회

○ 주 소 : 동부면 가배리 311-14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창건자 : 송 진 율
○ 목 사 : 김 기 현
○ 연 혁

- 1928. 3. 9 1대 교역자 송진율 장로 설립
- 1931. 5. 22 2대 교역자 배남정 전도사
- 1933. 10. 16 3대 교역자 배성식 전도사
- 1941. 2. 3 4대 교역자 옥천실 전도사
- 1949. 10. 4 5대 교역자 김맹곤 집사
- 1950. 12. 16 6대 교역자 정봉찬 전도사
- 1956. 5. 10 7대 교역자 김재곤 전도사
- 1957. 1. 15 8대 교역자 김재곤 전도사
- 1958. 11. 20 9대 교역자 오제창 전도사
- 1962. 2. 25 10대 교역자 박영기 전도사
- 1965. 9. 30 11대 교역자 최상두 장로
- 1967. 4. 10 12대 교역자 정문현 전도사
- 1971. 11. 10 13대 교역자 하대원 장로
- 1974. 10. 3 14대 교역자 김태곤 전도사

- 1976. 4. 15대 교역자 최광형 전도사
- 1977. 4. 16대 교역자 최정제 전도사
- 1979. 17대 교역자 김동성 전도사
- 1982. 12. 27 18대 교역자 문귀석 목사
- 1989. 4. 19 19대 교역자 임순호 목사
- 1990. 12. 13 20대 교역자 홍용서 목사
- 1991. 4. 23 21대 교역자 김득두 목사
- 1991. 10. 30 22대 교역자 이대승 목사
- 1994. 4. 23대 교역자 이병군 목사
- 1996. 1. 9 24대 교역자 김기현 목사(현재 시무 중)

21. 동부교회

○ 주 소 : 동부면 산양리 335번지
○ 목 사 : 이 동 진
○ 연 혁

- 1950. 6·25동란으로 피난 성도인 임관석 장로와 동승순 집사 제씨가 낙바위에서 천막교회를 세움
  천막교회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1952년 다시 장소를 오망천으로 옮김. 또다시 태풍으로, 1953년 동부중학교 교정으로 장소를 옮김.
- 1966. 동부중학교 교정에서 현 위치로 옮겨와 목조 건물로 교회를 세우고, 동년 11월 30일 전장훈 집사를 장로로 장립
- 1968. 목조건물에서 블록 건물로 세움(35평)
- 1999. 8. 20 30년 된 사택 신축(25.7평)

22. 동부중앙교회

○ 주 소 : 동부면 산양리 904번지
○ 목 사 : 진 용 근
○ 연 혁

- 1980. 3. 20 류재수씨 집 2층에서 개척, 발족예배로 시작. 양희식 목사

(1980. 3. 20~1983. 4. 12)

- 1981. 8. 29 산양리 904번지 150평을 매입하여 천막교회 세움.
- 1982. 2. 28 17평 성전을 건축
- 1984. 35평 성전을 건축

23. 영월교회

○ 주 소 : 동부면 오송리 726-13번지
○ 목 사 : 정 명 채
○ 연 혁

- 1969. 3. 26 가배교회에 출석하던 김기문·윤양수·김정석씨의 가족들이 가배교회에서 분리해 와서 김정석씨의 집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설립
- 1970. 6. 15 제1대 교역자 조석찬 전도사 부임
- 1980. 10 셋째주일 영촌교회와 영월교회가 통합하여 고려파로 가입
- 1996. 3 사택신축
- 1997. 4 교육관 신축
- 1998. 7. 5 윤양수·이교수 장로 피택

24. 유천교회

○ 주 소 : 동부면 산양리 224번지
○ 목 사 : 김 하 종
○ 연 혁

- 1909. 박한주씨가 아주 국산에 주형찬 장로에게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되어 유천교회 시작
- 1918. 진병호 전도사 부임
  당시 추마전 호주 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취임하고, 박한주씨가 영수로 교회를 봉사하였으며, 1942~1945. 8. 15까지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와 교회 폐쇄령으로 교회 문을 닫음.
- 1945. 8. 15. 해방과 동시에 교회문을 열고, 곽봉조 목사 부임(거제교회 오수

교회 겸무)
- 1987. 2. 10 교회당 신축 기공 예배
- 1987. 6. 20 교회당 준공
- 1989. 10 사택신축(25평)

25. 재건영북교회

○ 주 소 : 동부면 오송리 542번지
○ 창건자 : 박 문 옥
○ 목 사 : 김 수 근
○ 연 혁

- 1942. 박문옥 조사가 충무에서 거제 동부면 영북 마을에 와서, 여자의 몸으로 몇몇 아이들과 야외에서 예배. 얼마 후에 초가 3칸 빈집을 얻어서 예배 처소로 사용
- 1962. 5. 14 5평 정도로 예배당을 지어 입당

26. 평지교회

○ 주 소 : 동부면 구천리 540-1번지
○ 목 사 : 오 대 성
○ 표 어 : 승리하여 칭찬받는 교회
○ 연 혁

- 1949. 동부면 구천리 평지동에 교회 설립
  거제연합전도회에서 이기진 전도사 파송
- 1951. 3. 12 교회 대지 30평에 예배당 10평을 신축
- 1955. 9. 1 박창호 전도사 부임
- 1959. 5. 2 하부열 전도사 부임
- 1964. 4. 2 최기호 전도사 부임
- 1969. 4. 6 김한홍 전도사 부임
- 1983. 10. 30 최진양 전도사 부임
- 1987. 3. 20 평지교회를 구천리 연담 510번지에, 대지 17평을 김봉연 집사가 부지 헌납으로, 건평 30평에 새 교회 신축

- 1991. 6. 6 오대성 전도사 부임
- 2000. 4 11 오대성 목사로 임직, 현재 시무 중

27. 학동교회

○ 소재지 :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580-15번지
○ 창건자 : 이 상 수
○ 목 사 : 나 창 환
○ 유 래

1965년 8월 25일 이상순 목사가 당시 어장창고건물(24평)을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개조하여 교회명을 지역성을 살려 학동교회라 하고,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창건하였다.

1991년 4월 17일 교회부지 140평을 매입하고, 10월 20일 건축 허가를 얻어 공사를 착공, 1992년 2월 29일 완공하여 현재에 이름.

28. 거제다대교회

○ 주 소 : 남부면 다대리 102-1번지
○ 목 사 : 김 수 영
○ 연 혁

- 1935. 4. 28 다대교회 설립예배(원금안, 성도회 5명 가정예배로 출발)
- 1979. 3. 30 남부면 다대리 184번지 소재 건평 40평, 대지 200평에 1차 성전 건축
- 1985. 9. 13 김수영 전도사 다대교회 부임
- 1991. 12. 21 전기 합선되어 다대교회 화재로 전소
- 1992. 4. 8 김수영 전도사 목사 안수
- 1994. 4. 28 남부면 다대리 102-1번지에 새성전 건축 헌당예배(건평 149평, 대지 484평)

29. 남부교회

○ 주 소 : 남부면 저구리 276번지

○ 목 사 : 김 훈
○ 연 혁

1968년부터 김종중 성도의 집을 기도처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1970년 1월 옥전도사가 부임하면서 저구교회 설립

1974년 명사와 저구 중간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남부교회라 개명. 1980년에 김종중, 배영빈 장로를 임직 하였으며, 남부교회를 통하여 배출된 교역자는 배영빈 목사(방주교회), 권삼용 목사, 양점재 전도사(장전제일교회) 등이다.

30. 여차교회

○ 주 소 : 남부면 다포리 42번지
○ 목 사 : 유 창 수
○ 연 혁

- 1986. 신연범 목사가 강명용 집사 가정에서 예배
- 1986. 11. 20 김병곤 목사 시무. 다포리 42번지 주택 1동을 매입하여 교회 건축, 당시 명칭 거화교회
- 1989. 1 오수길 목사 시무
- 1989. 5. 5 가건물 14평을 만들어 여차교회로 명칭 변경
- 1990. 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에 가입하고, 초대 당회장 변재철 목사 시무

31. 쌍포교회

○ 주 소 : 남부면 쌍근리 577번지
○ 창건자 : 강 형 술(전도사)
○ 목 사 : 설 춘 봉
○ 연 혁

- 1980. 4. 5 거제군 남부면 쌍근리 504번지(쌍근초등학교 분교 사택) 김낙한 씨 집에서 예배
- 1980. 9. 15 쌍근리 구 동사무소로 이전
- 1981. 2. 10 강형술 전도사 부임

- 1983. 1. 25 부산동광교회에서 개척
- 1985. 4. 26 쌍근리 577번지에 교회 100평 신축 기공
- 1990. 5. 현 담임목사 설춘봉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중

32. 해금강교회

○ 주 소 : 남부면 갈곶리 301번지
○ 전도사 : 최 만 기
○ 연 혁
- 1960. 3. 18 김덕용·박연희씨가 김덕용씨 집에서 창립 예배
- 1961. 교회 명칭을 갈곶교회로 함.
- 1963. 8. 20 김난영 전도사 시무 이후로
- 1963. 정규영·권오성·손선목·정진·김성곤·한문수·김대전·진맹현·최성대·김종문·임경주·나한규·임명광·김철환·정용철 전도사 시무
- 1977. 5 성전 건축(현 위치, 26평)
- 1977. 10 3회 경남노회에서 갈곶교회를 해금강교회로 명칭 변경
- 1991. 5. 30 최만기 전도사 부임. 현재 시무 중
- 1991. 10 교회 사택 건축(16평)
- 1993. 4 교회 사택 증축(2층)

33. 다포교회

○ 소재지 :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135-2번지
○ 창건자 : 최 성 달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
○ 유 래

최성일 목사의 선대가 다대부락에 이주하여 명사초등학교 5년 재학 중에 부산으로 이사, 부산에서 목회자로 성장하여 어렸을 때의 자란 고향에 왔을 때, 부락마다 교회가 있는데 다포마을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가정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다포명광교회 설립 후, 오늘의 다포교회로 개명

34. 탑포교회

○ 소재지 : 남부면 탑포리 431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경남노회) 합동측
○ 목 사 : 장 은 석
○ 유 래

- 1983. 2. 9 황치은 전도사 외 5명 창립예배 드림.

35. 해금강영광교회

○ 소재지 : 남부면 갈곶리 55-10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 목 사 : 장 세 영
○ 연 혁

- 1988. 3. 최선동, 이순재, 권춘자, 송영숙, 김금순, 김남조 제씨가 인근 도장포마을 해금강교회에서 분리하여, 갈곶리 55번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
- 1989. 3. 4 장세영 전도사 부임
- 1989. 12. 18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신총회 영남노회 소속 해금강영광교회로 설립 예배 드림.
- 1991. 12. 19 남부면 갈곶리 55번지(대지 68평) 주택을 매입, 예배당과 사택으로 개조하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림.
- 1992. 1. 해금강영광교회 수양관 개관
- 1992. 3. 해금강 선교유아원 개원
- 1992. 10. 27 장세영 목사 안수 받음.
- 1993. 7. 샬롬하우스 개원
- 1994. 6. 가조도 계도교회 개척 설립예배
- 1997. 9. 25 예배당 신축부지 343평 매입(갈곶리 91번지)
- 2001. 7. 1 영빈관(별장) 개관

36. 근포교회

○ 소재지 : 남부면 저구리 498-1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
○ 목 사 : 조 석 찬
○ 연 혁

- 1976. 남부면 저구리 48번지(이음전 집사집)에 이음전, 김선애, 임정순, 조영선, 이계수, 노영숙, 김정자, 강석금, 박중현, 박중철, 박현진, 송영식, 차영옥 모두 13명이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 미신타파 등을 위해 설립
- 1991. 12. 준공(교회당 1동, 사택 1동, 서재실 1동, 외부 화장실 1동)

37. 거제성광교회

○ 주 소 : 거제면 동상리 618-1번지
○ 목 사 : 권 영 광
○ 연 혁

- 1950. 3 지역소재 통합측 교회에서 진리투쟁으로, 당시 마산 문창교회 시무하던 정선이 전도인의 주동으로 하기만·하순이·공또명·황만년·황봉금 집사 가정이 따로 나와 시가인, 황만년 집사 주택에서 예배
- 1953. 3 서정리 199번지 당시 피난민들이 설립한 거제 중앙교회당(판자집)을 매입하여,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거제지방 연합여전도회에서 심재찬 조사를 파송
- 1955. 7 동상리 대지 528, 529번지 25평 교회당 부지를 매입
- 1955. 8 교회당 석조 건물을 건립
- 1992. 8. 14 새 성전 건축 대지 구입(거제면 동상리 618-7번지, 486평)

38. 거제제일교회

○ 주 소 : 거제면 서상리 297번지
○ 목 사 : 김 형 곤
○ 연 혁

- 1908. 7. 거제군 서상리 하대원씨 행랑방에서 하대원씨 외 8, 9명의 청년

이 창립예배. '거제읍교회'로 시작(호주 선교사 손안로 시무)
- 1909. 7. 윤병국 장로 장립
- 1912. 이성균, 유진관 영수 임직 예배 처소를 동상리 유성목씨 집으로 변경
- 1920. 가옥 3간을 구입, 대지 12평을 확보 이사. 왕대선 목사가 통영·거제·고성 등지를 관할하면서 시무하였고, 라예인 선교사가 전도사업을 하다가, 태평양전쟁으로 선교부를 마산으로 이적
- 1926. 거제구읍교회로 명칭을 변경
- 1977. 3 제일교회·중앙교회를 통합

39. 내간교회

○ 주 소 : 거제면 내간리 221번지
○ 목 사 : 이 성 열
○ 연 혁

- 1976. 4 내간리 242번지 윤명선씨 자택에서 시작하여, 1977년 10월 노회에서 내간 기도소 설립인가를 받음.
- 1978. 부산 소전교회 지원으로 교회를 건축하였고, 1978년 10월 노회에서 내간교회 승인을 받음.

40. 동림교회

○ 주 소 : 거제면 동림리 674번지
○ 목 사 : 전 선 도
○ 연 혁

- 1950. 1 성상보씨 외 가족 8명이 1947년 하순경부터 거제 서상교회(현 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씨를 받아 자라던 중, 신앙 노선의 차이로 서상교회에서 분리되어 고려파 소속으로 개척, 가정제단으로 예배하다.
- 1950. 3 초대 교역자로 심재천 전도사를 거제지방연합 여전도회에서 정식으로 파송

- 1950. 7 경남노회로부터 동림교회 설립을 승인받다.(일반 교인 24명, 주교생 30명으로 시작)
- 1954. 5. 3 제1차 교회당 신축(16평 목조 건물에 지붕은 기와로 교외당 신축하다. 이 당시 목재는 평지교회 황집사가 기증함.)
- 1954~1959 제2대 남기수 전도사 시무
- 1959~1963 제3대 김전근 전도사 시무
- 1964. 5. 15 제2차 교회당 신축(목조건물을 헐고, 부럭으로 현 건물로 개축함.)
- 1964. 3~'66. 10 제4대 박광명 전도사 시무
- 1969. 5~'69. 12 제6대 허남수 전도사 시무
- 1969. 12~'71. 10 제7대 전은표 전도사 시무
- 1972. 6~'75. 7 제8대 손창호 전도사 시무
- 1975. 8~'78. 4 제9대 유익수 전도사 시무
- 1977. 3. 7 제3차 교회당 신축(1층 50평, 2층 10평) 교회 옆 전답 20평을 추가로 구입하여, 60평으로 현재의 교회당으로 신축
- 1978. 4. 6 이기천 집사의 집을 50만원에 인수하여 사택으로 사용
- 1978. 10~'86. 6 제10대 정창용 전도사 시무
- 1983. 5. 사택을 교회 옆 전답에 신축하다.
- 1983. 12. 9 거제군으로부터 특정 건축물 양성화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음.
- 1986. 6~'88. 2 제11대 김태환 강도사 시무
- 1987. 10. 교회사택 14평 건축
- 1988. 제12대 이광현 목사 부임
- 1989. 5. 제13대 권경진 강도사 부임
- 1990. 6. 30 제14대 전선도 목사 부임, 현재 시무 중
- 1991. 3. 초대 장로 장립 김용찬, 집사 장립 유정형·한형거, 권사 조봉수·전성이
- 1991. 11. 목사 위임, 집사 장립 각옥철
- 1993. 4. 18 조봉수 권사 은퇴
- 1995. 7. 김용찬 장로 시무 사면
- 1996. 3. 장로 피택 곽옥철·한형거
- 1997. 7. 새 성전건축 설계(진주라인건축 송종태 장로)
- 1997. 7. 10 건축계약 149평
- 1997. 7. 15 새 성전건축 기공
- 1997. 7. 26 밑 논(980.6평) 구입 등기

- 1998. 2. 28 입당. 장로 장립 곽옥철 · 한형거, 집사 장립 강금철
- 1998. 4. 새 성전 준공
- 2001. 50주년 기념행사 차재완 장로, 김재돈 목사
- 2001. 4. 조지원 전도사 부임.
- 2001. 9. 사택 기공
- 2001. 12. 사택 준공

41. 법동교회

○ 주 소 : 거제면 법동리 573번지
○ 목 사 : 제 석 동
○ 연 혁

- 1994. 4. 10 제석동 목사가 개척의 꿈을 가지고, 거제면 법동리 784번지에 폐허된 스레트 건물을 빌려서, 이정래씨와 학생 4명과 함께 9명이 첫 예배를 시작으로 법동교회가 설립됨.
- 1995. 12. 8 동 건물과 주택 2동과 대지, 전, 합 475평을 매입함.
- 1996. 2. 10 대지 73평을 구입함.
- 1996. 3. 2 교회당 건축 착공 예배를 드린 후, 공사를 시작함.
- 1996. 6. 6 건평 30평 슬라브 완공하여 헌당 예배를 드림. 박원흠씨를 안수집사로 임직함.
- 2000. 11. 16 박원흠 장로, 손규석 안수집사, 박달년 권사 임직함. 제석동 목사 위임목사가 됨.

42. 산달순복음교회

○ 주 소 : 거제면 법동리 산달1구 287-3번지
○ 목 사 : 장 승 재
○ 연 혁

- 1996. 2. 8 장승재 목사 취임예배
- 1996. 3. 18 법동리 323, 324번지의 밭 400평을 산달진료소 소장 퇴임기념으로 김숙의 권사가 기증

- 1996. 5. 14 287-3번지(교회와 사택)의 건물을 종교 단체로 등록하였다.

43. 소랑교회

○ 주 소 : 거제면 소랑리 328
○ 목 사 : 강 병 식
○ 연 혁

- 1947. 9. 27 소랑지역 당시 방앗간터에서 김점석 영수의 전도로, 윤인업·이지현 외 몇 명의 무리가 집회장소가 없지만 거적으로 칸막이를 하고 예배를 드려, 첫 복음의 씨앗이 울려 퍼지므로 교회가 시작
- 1951. 9 전쟁으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어 오다가, 거제 흥남교회에서 출석한 이행필 집사의 헌신적 봉사로, 현재 있는 터 위에 허술한 초가에서 윤인업 성도 외 몇 명의 무리가 핍박속에서도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 때, 도르가회의 선교지원으로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오다, 이형필 집사님의 개인사정으로 교회 존속이 어렵게 됨.
- 1952. 도르가회를 통해 선교지원을 받으므로 교역자 초빙을 부탁하여, 2대 교역자로 주옥련씨가 부임하여 3개월 시무하여 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
- 1953. 거제지역 성경구락부가 조직. 이로 인하여 교회가 활성화되어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됨. 이성군 장로가 3대 교역자로 부임하여 교회가 조금씩 안정됨.
- 1954. 9. 4대 교역자로 김정석 영수가 부임하여, 희생적인 봉사로 협소한 초가교회를 헐고, 흥남교회에서 철거된 자재를 운반하여 판잣집 교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림.
- 1956. 12. 5대 교역자 전원필 전도사 부임
- 1958. 6대 교역자 정명규 전도사 부임
- 1960. 7대 교역자 유진원 전도사 부임
- 1963. 8대 교역자 옥천실 장로가 제일교회에서 부임하여 판잣집교회를 헐고, 벽돌로 쌓아 올려 전형적인 교회를 갖추었고, 변조은 선교사가 소랑지역에 머물면서 함께 사역함.
- 1967. 6. 9대 교역자 서덕삼 전도사 부임

- 1969. 5. 서덕삼 전도사 사임
- 1970. 10대 교역자 조인수 전도사 부임
- 1972. 3. 12 11대 교역자 최영성 전도사 부임
- 1972. 5. 28 교회가 성장하여 권사를 선출하기로 하니, 윤인업 집사가 권사 선출
- 1974. 4. 20 12대 교역자 고석근 전도사 부임
- 1977. 교회가 성장하므로 낡은 성전을 헐고, 3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봉헌한다.
- 1983. 1. 22 고석근 전도사 사임
- 1983. 3. 9 13대 교역자 최만기 전도사 부임
- 1983. 4. 23 헌당식과 안수집사를 선출하여 윤병욱·이춘호·윤병석 씨를 장립함.
- 1984. 7. 밭 150평을 구입하다.
- 1985. 4. 부대시설인 교육관(23평)과 화장실을 건축하다.
- 1986. 3. 11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기로 하여 장로 장립에 윤병석, 집사안수에 윤병돈, 권사 취임에 김말순씨의 임직식을 하다.
- 1987. 9. 15 최만기 전도사 사임
- 1987. 11. 10 14대 교역자 황오식 전도사 거제시찰 대금교회에서 부임
- 1990. 8. 28 황오식 전도사 사임.(밀양시찰 밀양남부교회)
- 1990. 11. 13 15대 교역자 김승권 전도사 진주노회 기리교회에서 부임
- 1991. 7. 14 선교용 차량으로 베스타 구입.(12인승)
- 1992. 8. 2 소량교회를 소랑교회로 명칭을 변경
- 1993. 3. 14 건축위원회를 발족한 후 꾸준히 실천한 가운데, 1997년 시공할 것을 잠정 결의하다.
- 1994. 7. 31 해안 3대대 선풍기 기증
- 1995. 3. 13~19 노회를 통하여 장로 1명, 권사 2명 증선을 허락
- 1995. 3. 19 장로 및 권사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므로, 장로 피택은 윤병돈, 권사 조덕수 집사가 피택
- 1995. 5. 4~5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의료선교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선교 및 전도사역을 하다. (협력기간 : 염광교회, 남선교회)
- 1996. 1. 7 학생회에서 “예닮인” 회지를 창간

- 1996. 3. 1 윤병돈 장로 장립, 윤인업 권사 은퇴, 조덕수 권사 취임
- 1996. 4. 2 김승권 목사 광주노회 광림교회로 부임
- 1996. 8. 3 16대 교역자 황홍길 목사 부임(경남노회, 내산교회)
- 1997. 6. 23 시찰장 목사와 시찰 여러 목사를 모시고, 성전건축 기공감사 예배를 드림.
- 1997. 10. 2 입당예배를 드림.
- 1998. 1. 18 안수집사 및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회집하여 투표하니, 안수집사 이점식·윤병노, 권사 이일금·김명자 피택.
- 1998. 10. 29 성전봉헌 및 임직식, 권사 은퇴식 하다.
  임직 : 이점식·윤병노집사 안수, 이일금·김명자권사 취임, 김말순권사 은퇴
- 1999. 8. 31 황홍길 목사 사임
- 1999. 11. 9 17대 교역자 강정식 목사 부임. (포항노회 금곡교회)
- 2000. 1. 1 가정예배문을 작성하여, 전교인 가정예배를 생활화하다.
- 2000. 1. 9 노약자와 지체장애인을 위해 비디오를 설치하여 예배 돕다.
- 2000. 2. 13 '소랑샘터' 소식지를 발행하여, 외지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향교회 소식을 전함으로 유대관계를 다져 나가다.
- 2000. 3. 10 약정인 장애인을 위해 헤드셋을 설치하여 예배를 돕다.
- 2001. 1. 7 누가복음 의료선교단에서 의료선교를 실시하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의료진료를 받다.
- 2001. 2. 11 목사위임 및 권사 3인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회집하여 투표하니, 강정식 목사 위임, 김태련·이상금·조미자 3인이 권사로 피택되다.
- 2001. 5. 17 제1대 강정식 목사 위임식과 김태련·이상금·조미자 권사 임직식을 갖다.

44. 오수교회

○ 주 소 : 거제면 오수리 569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 장로회
○ 목 사 : 정 상 길
○ 연 혁

- 1921. 2. 28 거제성대교회 윤봉세 영수님의 전도로 김태근씨 집에서 김태근, 윤순자, 전두진, 김수선, 전학규, 김남수, 백부용 등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림.
- 1923. 10. 총공사비 48원 10전으로 초가 3칸의 교회를 신축하고, 15명의 신도가 되었다.
- 1923. 박영화 목사가 부임하여 5년간 시무함.
- 1936. 3. 총공사비 1,500원으로 24평의 성전을 신축하다.
- 1943. 일제의 탄압이 날로 심해갈 때, 주일예배 드리는 중에 일본경찰이 김태근, 전학규, 박원실, 김남수, 신채순, 원덕순, 백달악, 김재금, 김재두 제씨를 체포해 감. 이들 중, 5명은 3일만에 석방되었으나, 김태근, 전학규, 김남수, 박원실 등은 2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석방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못보게 되고, 일본 사람의 창고로 사용하게 된 슬픈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 1945. 8. 15 해방의 종소리 금수강산 삼천리에 널리 퍼지자, 교회는 다시 문을 열고, 박영기 조사를 초대하여 예배를 드렸다.
- 1945. 곽봉조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46. 이성균 장로가 부임하여 시무
- 1947. 임병길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48. 진병호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49. 신용권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49. 9. 7 김태근 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니, 초대 장로였다.
- 1950. 이계실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51. 김용진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52. 황화운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53. 3. 26 김덕화 전도사가 부임하여 2년간 시무
- 1955. 5. 4 조윤길 장로가 부임하여 5년간 시무
- 1955. 10. 20 강대원 집사를 제2대 장로로 장립하다.
- 1960. 12. 28 배재윤 목사가 부임하여 4년간 시무
- 1962. 4. 15 교회를 20평 증축하다.
- 1965. 6. 25 신재우 강도사가 부임하여, 동년 9월에 목사로 안수받고, 2년간 시무
- 1967. 11. 26 문기종 목사가 부임하여 4년간 시무

- 1971. 김용주 목사가 부임하여 시무
- 1972. 1. 13 김희구 집사를 제3대 장로로 장립하고, 윤순지 · 김남수씨를 권사로 취임하다.
- 1972. 5. 3 김을길 목사가 부임하여 5년간 시무하다.
- 1973. 교육관을 신축하다.
- 1975. 교회사택을 신축하다.
- 1976. 12. 23 김임목 · 김맹곤 집사를 제4대 장로로 장립하고, 신채순 · 원덕선씨를 권사로 취임하다.
- 1977. 11. 20 김성필 목사가 부임하여 2년간 시무
- 1979. 6. 5 전흥호 집사를 제5대 장로로 장립하다.
- 1980. 1. 29 정형달 강도사가 부임하여, 동년 3월에 목사로 안수 받다.
- 1981. 11. 26 정형달 위임목사 위임식을 하다.
- 1982. 11. 17 정형달 목사 사면하다.
- 1983. 신광식 목사가 부임하여 2년간 시무
- 1985. 2. 26 주국회 강도사가 부임하여, 동년 4월 목사로 안수 받아 시무
- 1986. 12. 17 박종철 목사 부임
- 1987. 1. 6 제2여전도회 조직하다.
- 1987. 9. 8 박종철 목사 위임, 김대균 집사 제6대 장로 장립, 김봉순 · 배수산 권사 취임
- 1987. 9. 27 남전도회 조직하다.
- 1987. 11. 13 전흥호 장로 취임
- 1988. 11. 29 배학록·곽덕영 장립 집사 취임, 최두락·정말수·황복희 권사 취임.
- 1991. 5. 5 박종철 목사 사면하다.
- 1992. 4. 15 권재홍 목사 부임하다.
- 1993. 11. 1 새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리다.
- 1993. 11. 10 교육관과 사택을 헐다.
- 1994. 8. 1 새 성전과 사택을 준공하다.
- 1994. 8. 28 정상길 목사가 부임하다.
- 1994. 11. 24 새 성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다.
- 1995. 10. 13 식당(20평) 기공
- 1995. 11. 29 식당 완공하다.
- 1996. 12. 5 새 성전 헌당. 정상길 목사 위임, 배학록 · 박정철 제7대 장로 장립, 신덕선 · 김창금 권사 취임, 김봉순 · 배수산 권사 은퇴

- 2000. 2. 29 김정구·김종만·제성열 안수집사 취임, 진희자·김경자 권사 취임, 전흥호 장로 은퇴, 정말수·최두락·황복희 권사 은퇴
- 2001. 4. 17 김중길 목사 부임하여 현재 시무 중

45. 옥산교회

○ 주 소 : 거제면 옥산리 999-1번지
○ 전도사 : 하 효 열
○ 연 혁

- 1972. 3 동부면 소재 기도원에서 뜻이 있는 이정언 목사, 김기선 장로, 장장훈 장로가 모여, 옥산 마을에 교회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마을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하여 약 70,000원이 모였으니, 교회 건립의 기금이 됨.
- 1972. 5. 4 이정언 목사가 옥산마을 조하규씨 작은 방을 빌려 기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복음 전파의 첫발을 내딛게 됨.
- 1973. 12. 7 이 시기에 옥산 마을 뒷산에 밀감 농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한광순, 김기성 장로가 농장 경영을 위하여 정착하면서, 이정언 목사와 협력하여 복음 전파를 도왔고, 본격적으로 교회 건립을 위하여 대지를 구입하였으니, 현재 교회의 대지 133평을 114,000원에 구입하였다.
- 1974. 4. 교회 건립 시작
- 1974. 11. 건축 완공(건축비 약 1,160,000원 소요)
- 1975. 11. 5 주일예배 필한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옥산교회 담임 교역자 하 효열 전도사의 사회로 5월 정기 제직회를 개회. 이 때 결의 내용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에 등기 이전

46. 외간교회

○ 주 소 : 거제면 외간리 460번지
○ 소유자 : 윤 삼 지(은퇴장로)
○ 연 혁

- 1949. 9. 2 거제면 외간리 498번지 윤삼지, 처 이연수, 자 윤병석(3세) 등이 평북 싹주에서 남한으로 온 전도사 최동화로부터 전도 받음. 3개월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림.
- 1949. 9. 20 1대 교역자 최동화 전도인
- 1949. 12. 학생모임, 장년 25인
- 1950. 2. 24 통영 진종학 목사님 모시고, 학습문답 10명 받음.
- 1950. 3. 교회장소는 윤삼지씨 집 마당에서 10명 가량이 모여 예배
- 1950. 9. 2대 교역자 이성균 장로
- 1952. 1. 3대 교역자 이신용 목사
- 1953. 1. 4대 교역자 박임실 전도사
- 1955. 1. 5대 교역자 윤삼지 집사
- 1955. 7. 10 460번지에 2동 8간 매입
- 1965. 1. 6대 교역자 진희규 전도사
- 1968. 5. 24 7대 교역자 윤삼지 장로 안수
- 1971. 교회 30평으로 신축함.
- 1971. 8. 8대 교역자 이주환 목사
- 1973. 1. 9대 교역자 윤삼지 장로
- 1977. 9. 10대 교역자 정정국 전도사
- 1979. 3. 11대 교역자 이정희 전도사
- 1979. 12. 12대 교역자 윤삼지 장로
- 1980. 6. 13대 교역자 홍성원 목사
- 1983. 4. 14대 교역자 공석규 목사
- 1984. 2. 15대 교역자 김종덕 전도사
- 1985. 7. 16대 교역자 서덕삼 전도사
- 1986. 5. 16 임직식 이정도 장로 안수, 권사로 이련수, 김덕순
- 1989. 3. 17대 교역자 윤삼지 장로
- 1990. 1. 18대 교역자 이정도 장로
- 1990. 2. 19대 교역자 진형봉 목사
- 1991. 4. 30 임직식 윤삼지 원로장로 은퇴, 윤옥만 장로 안수, 옥형선·진말년·옥정자 권사로 안수
- 1992. 12. 20대 교역자 이춘길 목사
- 1997. 6. 10 이성열 목사
- 1999. 11. 14 임직식 김덕순, 신봉둘, 옥형선 권사 은퇴

- 2001. 4. 20 이성열 목사 퇴임
- 2001. 4~ 현재 외간교회는 목사가 없지만, 신현교회 부목사님 오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47. 죽림교회

○ 주 소 : 거제면 오수리 915-1번지
○ 전도사 : 배 경 환
○ 연 혁

- 1989. 11. 19 구자태 전도사를 중심으로 김종복·윤금순 성도와 첫 예배
- 1989. 12. 28 죽림교회당(거제면 오수리 915-1)건축 허가
- 1990. 3. 20 죽림교회 건축 기공예배
- 1993. 7. 17 죽림교회 창립 및 성전봉헌 예배

48. 거림교회

○ 주 소 : 둔덕면 거림리 215-1번지
○ 목 사 : 이 일 균
○ 연 혁

- 1947. 4. 27 방하교회에서 분립하여, 현 거림교회 위치에 부지 70평을 윤학률 장로님이 기증하여 윤학률, 유용기, 김부근, 제암이, 김달구 목사가 힘을 모아 교회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해 4월 27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몇년 후에 헌 함석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흙벽도 개량하였다.
- 1947~1948 강원균 목사 초대교역자로 약2년 시무 후에 사임
- 1948. 초기의 사택을 지음
- 1948. 김용천 목사 시무
- 1949. 김용천 목사 시무 사임
- 1949~1970 윤학률 장로 부임과 사임
- 1970~1972 손자문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73. 최성대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74~1976 원용삼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77～1980 제장봉 집사 부임과 사임
- 1981. 70평 대지 위에 건평 32평 교회를 신축하다. 교회 건축과 사택 신축에는 고재상 강도사의 공이 크다.
- 1982. 제정오의 논을 10만원 지급하고, 55평을 기증받아 건평 18평으로 사택 1동과 화장실 1동을 건축하다.
- 1981～1983 고재상 강도사 부임과 사임
- 1984～1985 방형율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85. 진왕현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85～1987 김흥식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89. 9～'90. 5 김흥식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90. 7. 8 이동진 전도사 부임
- 1990. 9. 5 이동진 목사 안수 후에 청빙
- 1991. 9. 5 이동진 목사 사임
- 1991. 9～'99. 3 최경수 전도사 부임과 사임
- 1999. 2. 25 이인규 목사 부임(현재 시무 중)

49. 거제중앙교회

○ 주 소 : 둔덕면 하둔리 365-43번지
○ 목 사 : 김 창 영
○ 연 혁

- 1953. 12 류용기 영수 가정에서 교인 15명으로 하둔교회라 명칭하고, 김길윤 전도사가 개척
- 1954. 1 둔덕면 하둔리 426번지에 소지한 대지 156평에 초가 4칸 1동을 매입하여 사택으로 사용
- 1965. 12 36평의 석조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
- 1967. 1 교회 명칭을 거제중앙교회로 개명
- 1978. 3 24평의 교육관을 건립
- 1980. 3. 22 16평의 목사관을 건립
- 1992. 3 교회는 예배 장소의 협소함을 인식하고, 정기 제직회에서 이전하기로 결의하여, 건축위원회를 구성
- 1992. 12 둔덕면 하둔리에 소지한 365-43, 44, 45번지 205평을 거제시

로부터 매입
- 1994. 12. 29 둔덕면 하둔리 소지 365-42번지의 대지 매입
- 1995. 8. 10 성전 건축 기공식
- 1996. 9 김창영 목사 시무 중
- 1998. 4. 6 거제중앙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거제중앙교회로 변경

50. 방하교회

○ 주 소 : 둔덕면 방하리 537번지
○ 목 사 : 김 행 일
○ 연 혁

- 1925. 2 통영대화정(현 문화동) 교회 선교회에서 박시순 전도사를 산방리에 파송하여, 전도하다가 김또방씨 집에서 설립예배
- 1931. 김봉임 집사의 주선으로 방하리 27번지 가정집을 매입하여, 수리 예배 처소를 옮김
- 1950. 방하리 537번지 현 예배당 위치에 방 하나, 부엌 하나의 목조 사택 건물 을 건축
- 1951. 방하리 537번지 현 예배당 위치에 5칸 목조 예배당을 신축하여 이전
- 1972. 3 현 예배당 재건축
- 1983. 현 사택 증축

51. 술역교회

○ 주 소 : 둔덕면 술역리 708번지
○ 목 사 : 양 경 수
○ 연 혁

- 1976. 3. 25 호곡교회에서 분리하여, 술역리 708번지 대지 50평 부지에 1차 교회 스레트 23평 건물을 건립
- 1990. 6. 16 2차 성전 건축을 동 대지 위에 85평 슬라부 건물을 건립

52. 어구교회

○ 주　소 : 둔덕면 어구리 74번지
○ 전도사 : 김 필 주
○ 연　혁

1967년 3월 김형구·김창근·문정언·김채옥·장종애·윤덕지·문병오씨가 하둔교회(현 순복음 거제중앙교회)에 나가 봉사하다가 거리가 멀고, 불편을 느껴 어구리에 교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아 기도하는 중에, 1967년 4월부터 이병철 전도사를 모시고, 김채옥 집사 집에서 1년간 예배를 드렸다.

이병철 전도사가 사면하고, 장은필 전도사가 부임하여, 1969년 봄에 김장조 집사 소유전 50평을 구입하게 되었다. 건평 20평의 성전을 건축, 1990년 10월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전 건축 후 30여 년이 지나, 노후된 관계로 1999년 2월에 어구리 73, 74, 75번지에 있는 전·답 147평을 매입하게 됨.

농지 전용 후, 1999년 10월 19일에 구 성전을 헐고, 10월 25일 11시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 처소를 임시로 김경달·양상호 집사 댁에서 드리고 있으며, 1999. 12. 25일 새 성전 입당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53. 화도교회

○ 주　소 : 둔덕면 화도리 635번지
○ 전도사 : 신 수 영
○ 연　혁

- 1982. 4. 17　박영찬씨가 녹산교회 당회에 청원하여, 당시 당회장 원치연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의 열심으로 화도기도소 설립
- 1983.　초대 교역자로 어구교회 교역자 배재희 사모를 모심.
- 1983. 3. 20　신수영 전도사 부임
- 1985.　박영찬 집사가 현 교회 부지 69평을 화도교회에 증여
- 1991.　사택 증축 육군 파도부대 2대대 지원으로 자재 운반을 하여, 그 해 11월에 완공
- 1992.　부속 건물 및 환경 정리하여, 그 해 8월 18일 성전 봉헌예배

54. 거제침례교회

○ 주 소 : 사등면 사등리 금포 2174-1번지
○ 목 사 : 박 원 대
○ 연 혁

- 1966. 4. 조성찬 집사집에서 첫 예배
- 1966. 7. 현 소재지 대지 60평 구입, 건평 20평 교회 건축
- 1966. 8. 전공우 목사 부임
- 1966. 10. 목사 사택 8평 건축
- 1970. 6. 이기복 목사 부임
- 1971. 3. 교회 13명 증축
- 1984. 강종원 목사 부임.
- 1987. 7. 2 박원대 목사 부임(현재 시무 중)
- 1992. 10. 사택 20평 양옥으로 신축
- 1996. 9. 교회 붉은 벽돌 건물로 증·개축(총 45평)
- 2000. 3. 20 창원 보석침례교회 개척(김정렬 목사 파송)
- 2001. 8. 31 대지 184평, 종교 용지 193평, 건물 : 교회 연건평 45평, 사택 20평, 부속건물 15평

55. 광리순복음교회

○ 주 소 : 사등면 덕호리 292번지
○ 목 사 : 이 정 재
○ 연 혁

- 1975. 5. 10 사등면 덕호리 281번지에 4~5명의 성도가 모여 교회를 개척
- 1994. 11. 1 덕호리 292번지로 교회 이전
- 1997. 10. 3 교회당 건축 기공
- 1998. 4. 30 교회당 건축 완공

56. 금포교회

○ 주 소 : 사등면 사등리 금포 2015번지
○ 창건자 : 조기준(장로)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목 사 : 박 종 선
○ 연 혁

- 1909. 사등·금포 초 신자들의 사등성내에 초가 6간을 매입하여, 손안로 선교사의 인도로 첫 예배
- 1912. 1. 5 금포 2013번지 진종학씨 아랫채를 기도소로 정하고, 주일예배는 사등교회에서 밤 예배는 기도소에서 드림
- 1915. 4. 5 금포 2013번지에 12평의 기도소 건축
- 1928. 3. 15 금포 2013번지에 20평의 기도소 증축
- 1932. 9. 5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에서 금포교회 설립 허락
- 1934. 금포 2013번지에 32평 성전 확장 건축
- 1949. 2. 8 성포교회 개척하고, 방종걸·이덕정 전도사 파송
- 1964. 5. 25 교회가 분열하여 침례교로 일부 이적했으나, 1980년에 대다수 성도들 복귀.
- 1980. 3. 15 금포 2015번지 125평 대지에 60평 새 성전 건축
- 1980. 금포 2013번지 구 성전을 헐고 목사관 25평 신축
- 1984. 10. 5 금포 2015번지 125평 대지에 60평 새 성전 건축 봉헌
- 2001. 5. 31 금포 1965번지 300평 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230평 성전 건축 준공

57. 두동교회

○ 주 소 : 사등면 두동리 829-1
○ 목 사 : 진 형 봉
○ 연 혁

- 1950. 6. 25 한국전쟁으로 피난민들이 김용진 목사의 일행 성도들과 12월말에 신현읍 장평리 현재 성결교회 위에 판자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
- 1951. 5 장평 지구가 전쟁포로 수용소 확장으로 장평에서 두동으로 소개되어, 현재 위치인 사곡리 829-1번지에 판자교회가 세워짐. 김용진 목사는 부산으로 이거하고, 이신용 목사가 시무
- 1953. 4 월남 성도들이 부산 양정 3동에 이거하여 교회를 세웠고, 남은

성도들은 사등교회로 참석하다가, 남갑식 장로 가정 외 4가정이 모여서 예배. 조윤길 장로 시무

- 1953. 5. 17 진형봉 목사 부임(현재 시무 중)
- 1960. 2 판자 건물은 철거하고, 20평 예배당과 9평 사택 건축
- 1983. 5. 2 새 성전건축위원회 조직
- 1986. 5. 13 새 성전 건축 착공
- 1989. 1. 3 헌당 예배 1층 40평, 2층 50평, 3층 12평, 새 사택 30평 신축

58. 사등교회

○ 주 소 : 사등면 사등리 성내 825
○ 목 사 : 이 도 재
○ 연 혁

- 1909. 7. 7 임기주씨 집에서 50여명이 모여 창립예배
- 1909. 10. 25 손안로 선교사가 원석범·양재우를 영수로, 양구환·진종학을 집사로 첫 직원을 세우고, 10여명에게 학습문답
- 1910. 초가 6칸 예배당 기공·왕대선 선교사 예배당에 소학교 설립하여 ,교사를 채용해 교육함
- 1922. 2. 26 본동 281번지 대지에 와가 목조 20평 예배당 기공
- 1932. 5. 1 금포교회 분립, 송진율 장로 금포교회로 이명
- 1954. 7. 17 남갑식 장로 두동교회로 이거(두동교회 피난민 교인들 부산으로 이거하므로 두동교회 재건을 위해)
- 1982. 7. 4 신축 성전 준공 입당 예배

59. 성포교회

○ 주 소 : 사등면 성포리 297-1
○ 목 사 : 정 삼 조
○ 연 혁

- 1952. 11. 20 조병익씨 집을 기도소로 정하고 첫 예배. 성포 조기환씨 집으로 기도소를 옮김.
- 1954. 6. 13 경남노회에서 성포교회 설립을 허가. 방종길 전도사 시무

- 1956. 12. 28 조기환 안수 집사로 임직
- 1958. 4. 3 항도 25번지 조병익씨의 대지 15평을 기증 받아, 예배당을 신축. 이덕정 전도사 시무
- 1966. 10. 8 성포리 287-2번지에 건평 22평 목조 스레트 예배당을 신축
- 1973. 9. 10 건평 17평의 목사 사택을 신축
- 1983. 9. 18 성포리 317-8번지에 건평 71평 예배당 신축
- 1990. 6. 10 건평 26평의 목사관 신축

60. 오량교회

○ 주 소 : 사등면 오량리 806-1번지
○ 목 사 : 이 효 석
○ 연 혁

- 1951. 6. 25 1.4 후퇴로 피난선을 타고 온 피난민들이 오량초등학교에 모여 생활하던 중, 황봉찬 목사와 조용호 장로를 모시고 첫 예배
- 1953. 8. 6 사등면 오량리 1300-6번지 사적지 공터 위에(50평) 초가 삼간형 10여 평 정도로 볏짚 지붕 형식으로 교회를 세움.
- 1953. 사라호 태풍으로 교회가 무너져 잠시 교회를 닫게 됨. 유종준 집사 집에서 예배
- 1960. 현 위치에 교회를 새로 수리 확장하면서, 사택 4평을 포함 함석으로 지붕을 개조
- 1979. 오량리 806-1를 매입하여, 블록 스레트로 16평의 사택을 건축
- 1988. 3. 1 오량선교원 설립인가를 받아 원아 30여 명을 모집하여, 교역자를 원장으로 개원

61. 지석교회

○ 주 소 : 사등면 지석리 908-1번지
○ 목 사 : 정 성 진
○ 연 혁

- 1954. 거제도에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설립

- 1955~1971 임도오 목사 순회 강단
- 1991. 9. 26 새 성전 건축 기공예배
- 1992. 4. 10 새 성전 완공
- 1992. 6. 30 정성진 목사 담임목사 취임예배 겸 입당예배
- 1994. 4. 21 새 성전 봉헌

62. 창호교회

○ 주 소 : 사등면 창호리 750-1번지
○ 목 사 : 김 중 길
○ 연 혁

- 1950. 11. 15 이용규 장로(당시 집사)가 설립. 그 이후 교역자로서 임도호 목사, 김용길·박종열·한명철 전도사, 박원실 목사, 이태오·정봉현 전도사, 박상호 전도사로 각각 2, 3년간씩 시무

63. 청곡교회

○ 주 소 : 사등면 청곡리 805번지
○ 목 사 : 김 종 인
○ 연 혁

- 1965. 오량교회에 출석했던 이현주·이유권 집사의 가정을 중심으로 분리하여, 이현주 집사 가정에서 1년 동안 예배
- 1968. 예배장소를 이유권 집사 집으로 옮김
- 1968. 성전 건축을 위하여 청곡마을 이현주, 들막마을 이규권, 갈곶이마을 박무근씨가 땅을 내놓아 제비뽑기로 가운데 마을인 현재 돌막부락에 건축키로 결정
- 1971. 최의교 전도사 부임하여 , 동년 12월말까지 시무

64. 다공교회

○ 주 소 : 연초면 다공리 402-1번지

○ 창건자 : 토마스 메모리얼(Tomas Memorial Mission)
○ 목 사 : 정 휘 준
○ 연 혁

- 1954. 7. 11 미국 선교사 토마스 메모리얼(Tomas Memorial Mission) 목사와 손근수·정순국·오문환 장로와 그의 부인 이씨가 모여 창립예배 드림.
- 1954. 9. 5 경남노회 가입
- 1967. 5. 1 제철수씨가 월남전 참전용사 때 받은 생명과 바꾼 돈, 일백만원을 십일조 헌납하여 20평 예배당을 건축
- 1994. 7. 1 성기남 집사는 무의탁 노인으로, 자신의 재산 전부인 밭 70평 헌납.(연초면 다공리 403번지)
- 1995. 6. 5 50평 새 예배당 입당
- 1996. 12. 1 안용기 집사 대지 70평 (장목면 시방리 소재)헌납
- 1998. 11. 1 새 사택 23평 건축 입택

65. 송정교회

○ 주 소 : 연초면 송정리 671-5번지
○ 목 사 : 변 재 철
○ 연 혁

- 1935. 3. 연초면 이목리 이남마을에 추마전 선교사에 의하여 복음 전파
- 1936. 교회당 10평 건축
- 1948. 일부 교인 가정이 하청면으로 이사함에 따라 교회당을 이목리 본 마을로 이전
- 1962. 3. 교회 부지 54평 매입
- 1962. 4. 10여평 교회당 건축
- 1971. 5. 교회당 30평 신축
- 1979. 5. 건설부 공업용수 댐 공사로 인하여 연초면 송정리 671-5번지 부지 178평 매입
- 1979. 5. 교회당 50평, 사택 19평 건축
- 1987. 12. 교회 부지 268평 매입

- 1996. 3. 교회 부지 185평 매입 확장
- 1996. 5. 새 예배당 건축, 연건평 400평(본당 120평)

66. 연사교회

○ 주 소 : 연초면 연사리 242번지
○ 목 사 : 서 금 수
○ 연 혁

- 1903. 손영철 씨가 국산(옥포)교회 주국언 영수로부터 복음을 듣고 2년간 국산(옥포)교회에 출석
- 1905. 10. 20 연사 마을에 가정예배 드림(8명)
- 1906. 1. 30 7평 예배당 신축
- 1999. 4. 24 새 예배당 준공(연건평 270평)

67. 연초중앙교회

○ 주 소 : 연초면 죽토리 765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
○ 목 사 : 강 광 만
○ 연 혁

- 1946. 7. 옥봉구 영수, 옥봉호·옥치강·조성학·윤명구 집사를 비롯하여, 여섯 가정의 20여 성도들이 연사교회에서 분립하여, 연초면 죽토리 방곡부락 311번지에 초가 3간의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죽토교회 시작되다.
- 1955. 사소한 의견 충돌로 옥봉구 영수 가정을 중심하여, 10여 성도들은 본 교회에서 분립하여 같은 마을 방곡리 457번지에다 판자집 3간 예배당을 건축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죽토교회라 하다가, 본 교회당은 대한기독교성결회 죽토교회로 명칭을 변경하다.
- 1962. 3. 이명연 집사가 양지 부락 436-7번지 대지 68평을 매입하여, 교회에 헌납하므로 브로크 함석 예배당 20평과 사택 스레트 10평을 건축하고 교회를 이전하다.

- 1977. 10 22년동안 나누어져 있던 본 지역의 양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결교회 조일규 집사와 장로교회 옥순련 집사가 주축이 되어, 성도들의 기도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죽토교회로 합함
- 1983. 7. 17 죽토리 764번지 전 309평을 교회부지로 매입
- 1983. 7. 21 죽토리 765번지 전 463평을 2차 매입
- 1984. 4. 마산노회의 인준을 얻어, 그 공안 일부지역의 이름인 죽토교회를 연초중앙교회로 개명
- 1985. 7. 9 죽토리 436-7번지 부지에 32평의 콘크리트 스라브조형 예배당을 신축하여 봉헌함
- 1985. 12. 17 옥순련 장로 장립
- 1985. 목사관을 죽토리 1111-1번지의 2층에 전세로 12년 사용
- 1986. 5. 22 조일규 장로, 옥오련·옥용운· 조용국 집사 장립
- 1990. 1. 11 죽토리 766번지 전 446평과 죽토리 779-1번지 전 180평을 교회부지로 매입하다.
- 1992. 11. 10 이병우, 강성수 집사 장립 및 손덕순, 곽유금, 조전순 권사 취임
- 1995. 12. 13 죽토리 1038번지 대화A 다동 303호를 매입, 목사관으로 함
- 1996. 12. 14 죽토리 765번지를 중심하여 새 성전 건축 허가서 제출
- 1997. 3. 20 기공함(3층 약 300평 규모, 주은종합건설)
- 1997. 10～'98. 4 IMF 및 주은 부도로 공사중단
- 1998. 5. 본 교회가 자체공사를 시작, 8월 30일 입당
- 1998. 11. 26 준공검사 필함
- 2000. 8. 22 새 성전을 신축하여 봉헌하고, 옥용운, 조용국 장로 장립 및 옥명철, 이석주 집사 장립

68. 오비제일교회

○ 주 소 : 연초면 오비리 842-2
○ 목 사 : 이 현 재
○ 연 혁

- 1987. 1. 4 김성순 성도 가정에서 첫 예배. (정재섭 전도사가 개척)
- 1987. 2. 4 신옥두 집사 텃밭에 천막교회 개설

- 1988. 1. 연초면 오비리 842-2번지에 시멘 블록 스레트 지붕으로 20평 교회당과 7평 사택 건축
- 1992. 3. 24 오비리 841-3번지 답 203평 구입
- 1995. 3. 2 매입한 답 203평을 옥치중 집사 명의로 등기
- 1995. 4. 10 목사 서재실 5평(조립식), 샤워실, 예배당 보일러 난방시설 설치
- 1997. 3. 4 교회 신축 기공예배
- 1997. 9. 11 새 성전과 대지 203평을 교단유지재단에 귀속 등기
- 1999. 12. 27 컴퓨터 교과공부. C·M·S 영어공부 선교원 개설

69. 한내교회

○ 주 소 : 연초면 한내리 493
○ 종 파 : 고려파(고신)
○ 목 사 : 제 대 언
○ 설립배경

한내에서 연사교회로 출석하는 성도들이 거리관계로 불편을 느껴 오다가, 1950년도에 신석률씨 가정에서 기도소를 설치함으로서 한내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설립 당시의 교역자는 성명 미상의 피난민 유전도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2년에 3간의 초가집으로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1973년도에 작은 마을(2구)에서 큰 마을로(1구) 예배당을 옮겼으며, 1987년에 예배당을 신·개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역대 교역자로 14대째 제대언 강도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서, 60여 명의 장년성도가 언제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연 혁

- 1951. 성명 미상의 피난민 유전도사가 전도하여 첫 예배
- 1952. 초가 3간의 예배당을 신축
- 1973. 한내리 작은 마을(2구)에서 큰 마을로(1구) 예배당을 옮김
- 1995. 제대언 전도사 부임(현재 시무 중)
- 1998. 제2교육관 매입

70. 효촌교회

○ 주 소 : 연초면 연사리 97-1
○ 목 사 : 최 하 규
○ 연 혁

- 1989. 9. 8 연초면 연사리 121번지(효촌) 옥영만씨 셋방에서 가정 예배로 개척교회 시작함.
- 1994. 8. 11 연초면 연사리 97-1번지에 식품공장 대지 226평과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수리·이전하다. 당시 연초초등학교 교장 옥미조, 김옥순 집사 부부의 헌신적인 공헌이 지대함.
- 1995. 2. 6 제52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서지방 회의시, 신설교회로 효촌교회 청원 허락 받음.
- 1995. 4. 20 효촌교회 창립예배. 최하규 목사 제1대 교역자로 취임
- 1995. 7. 23 태풍(페이)에 사택 지붕 피해로 교회 전체 수리와 지붕을 덮고, 동월 28일에 다용도 식당을 건립
- 1995. 5. 4～'96. 11. 12 최하규·유옥선 명의로 된 대지와 건물을 2회에 걸쳐 교단본부(총회) 유지재단에 헌납 기증
- 1997. 4. 17 제2회 영남지역총회(김해제일교회)에서 최하규 목사 안수와 후에 취임식

71. 대곡교회

○ 주 소 : 하청면 대곡리 300번지
○ 목 사 : 김 달 곤
○ 연 혁

- 1966. 4. 1 교회 창립, 초대 목회자 정동화 목사(1967년), 초대집사 3명 김도수·옥삼석·신두순
- 1981～현 재 김달곤 목사 시무 중
- 역대 목회자 : 정동화, 김용출, 김장록, 신종남, 최영조, 송정근, 남상문, 이종삼

72. 석포교회

○ 주 소 : 하청면 석포리 166-2

○ 목 사 : 김 범 두

○ 연 혁

• 1955. 12. 14 당시 연초면 이목리에서 이목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던 옥행선씨가 친척들의 중매로 본동 제종우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얻어, 큰딸 이선이를 유계교회에 출석하게 하여 학습교인이 되고, 혼기가 되어 기도하던 중, 이모를 통해 부산 해운대교회 김근식 집사와 결혼하게 되어 신혼생활 중, 신앙의 불이 타서 고향에 교회를 개척하여야 되겠다는 각오 아래 친척, 성도들과 상의하여, 하청교회 신용봉 집사와 부인 제성선 집사가 주선하여 하청교회 도움으로 신용봉 집사가 전도인으로 파송되어, 당시 동사무소를 임시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마을에서 동사무소를 비우라고 독촉하니, 갈 곳이 없어 기도하던 중, 고 김평국씨 상점이 비어 있어 예배 처소를 허락하는 미덕이 있었음.

• 1956. 신대기 전도사를 시찰회에서 파송하니, 신대기 전도사가 사역 중 부산 부전교회 도움으로 초가 삼간을 구입하여, 당시 고 김종두씨 가옥 건평 9평, 총 대지 60평을 구입하여 개조할 때 재정적으로 마루를 못 깔고 있을 때, 고 권종악 여사가(김광두 장로 모친) 석포마을에 나온 하청교회 신용우 장로에게 교회가 어려워서 마루를 못 깔고 있으니, 산에 나무를 기증하라고 하여, 신장로가 마루를 깔아 주었으며, 그 해 연말 하청 농방에 주문한 소형 강대상을 구입하여, 그 해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음.

하점동 권사 사역 중, 호주 선교회 보조 사택을 2간 마련하여 자체 부흥회로 50명의 성도를 얻었다. 김범두 무료 8년간 봉사, 장승포 제일교회 지기호 집사 매월 5천원 거제지방 도루가회 보조가 연결되어, 유진원 전도사를 모시게 되었음.

유진원 전도사 사임, 최영자 전도사 부임. 한달 생활비를 교회 건축 헌금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제직회 통과, 거제제직연합회의 도움으로 각 교회 헌금이 지원되었음. 이 때, 최영자 전도사 부친 최영조 전도사가 자전거로 거제 일주 모금운동을 하는데 무료봉사도 하였음.

• 1975. 20평의 교회를 완공하였으나, 부채가 있어 부산 가야교회 김근

식 장로 전담하니, 부채를 완전 정리하였음. 교역자가 공석되므로 김범두 집사 당회장 승인으로, 진도인으로 하여금 4년간 봉사, 강춘식 전도사 부임, 강전도사 사역 중 사택을 증축하고 종탑도 세움.

73. 실전교회

○ 주 소 : 하청면 실전리 937번지
○ 목 사 : 이 상 기
○ 연 혁

- 1969. 미국 의료 선교사로 온 손요한 원장의 인도로 실전병원에서 최초로 예배
- 1973. 7. 24 정혜련 전도사 초대 교역자로 부임
- 1974. 7. 24 대청교회 도움으로 대지 76평에 건평 20평의 교회를 세움.

74. 연구교회

○ 주 소 : 하청면 연구리 650번지
○ 목 사 : 권 재 오
○ 연 혁

- 1962. 3. 칠천도 교회에 출석하던 옥삼순·홍계순 두 사람이 곡촌부락에 기도소로 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 오고 있었음. 그해 3월 칠천도교회 당회로부터 정식으로 기도소 설치 허락을 받음. 이후 연구부락 서당(현 교회당 위치)으로 옮겨서 예배
- 1976. 8. 교회당 건물 신축(현 교회당 건평 24평)
- 1977. 11. 교회 사택 신축(현 건평 10평)

75. 장안교회

○ 주 소 : 하청면 어온리 598-1번지
○ 목 사 : 서 성 조

○ 연 혁

- 1974. 4. 1 칠천도 장안부락 정혜련 전도사 개척
- 1979 교회부지 56평 구입
- 1981. 5. 천막교회 5평 건축
- 1983. 5. 1 서성조 전도사 부임
- 1983. 8. 11평 천막교회 확장
- 1987. 3. 교회 부지 315평 구입
- 1991. 11. 1 교회 건축 기공예배
- 1999. 3. 1 교회 건축 완공 입당예배
- 1999. 4. 5 교회 봉헌 및 권사 취임

76. 재건칠천도교회

○ 주 소 : 하청면 어온리 160-1번지
○ 전도사 : 박 선 호
○ 연 혁

- 1987. 2 이기한 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심
- 1993. 교회가 누추하다고 판단하여, 박선호 전도사는 제직회를 소집하고, 교회 증축을 의논하였으나, 모두가 입을 열지 않아, 1994년 4월에 각 교회에다 호소를 했고, 노회에서 15만원 허락을 받음. 그 다음 예산 1,500만원을 각 교회에서 헌금으로 보내주어서, 1994년 6월에 교회 증축을 시작하여 붉은 벽돌을 쌓아 창문과 현관문을 만들어, 1994년 12월 16일 각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봉헌식을 성대히 가짐.
- 1999. 두모교회 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심.

77. 칠천도교회

○ 주 소 : 하청면 연구리 옥계 298-2번지
○ 목 사 : 김 태 관
○ 연 혁

- 1925. 호주선교사, 왕목사, 추목사, 신미애 선교사에 의해, 옥계 부락

에 예배당이 세워짐.

- 1940. 1면 1교회 정책으로 하청교회에 병합됨.
- 1948. 홍순필 전도인이 진해에서 돌아와 선친과 배봉학, 김대윤 집사와 같이 자택에서 예배드리기 시작
- 1949. 10. 연구리 금곡부락에 목조기와 예배당 건축(13평)
- 1983. 8. 11 예배당을 연구리 298-7번지의 옥계마을로 옮기고, 예배당 헌당. (34평)
- 1991. 12. 5 새 예배당 건축기공식(현 예배당)
- 1999. 12. 28 김대관 목사 시무 중

78. 하청교회

○ 주 소 : 하청면 하청리 673번지
○ 목 사 : 이 동 용
○ 연 혁

- 1918. 하청리에 살던 고(故) 신영지씨가 웅천 명동리 주성찬씨로부터 전도받고, 신약성서를 열독하여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달아 전 가족이 입교하니, 이것으로 하청교회 설립의 효시가 되었으며, 신영지씨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신영식씨가 자가에서 2년간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음.
- 1920. 신영식씨 자가출력(自家出力)으로 하청리 창동에 초가삼간(草家三間)의 예배당을 신축 헌납함.
  영수(令袖)에 신영식, 집사에 신용건·신용봉 제씨가 피선되었으며, 당시 호주선교회 왕대선(王大善 Rev. R. P. Waston)선교사와 지방 전도사 진종학·김형옥씨가 순회하며 제단을 돌봄.
- 1925. 하청 창동에 예배당을 건립, 수년간 전도하였으나, 한 사람의 신자도 더 얻지 못하고, 심한 배척과 박해를 받아 오던 중, 마침 유계리 서항에 당시 거제중학 강습회를 개성인 강재풍씨가 설립, 본 교회와 상호 협조하여 경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입교자가 그곳에서 배출됨으로 유계리 서항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음.
- 1933. 유계리 서항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던 중, 진영에서 신용우씨가 하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집사에 피선되고, 교인들도 성심으

로 교회를 받들어 날로 교세가 흥왕, 이후 8년간 계속 부흥하였음. 그러자 하청에서는 원거리 관계도 있고, 교회내 사정도 분립할 만한 경우가 되어, 유계와 하청 경선인 해명고개(지금의 신순기 박사 본가 뒤편)에 예배당을 새로 지어 양 교회로 분립함.

- 1936. 신영식 영수 가정이 만주로 이거, 대풍(大風)으로 인하여 해명고개에 세웠던 교회당이 전복됨.
- 1937. 신용우 집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교인들의 협력으로 하청리 중앙에(현 하청중학교 뒤편) 함석지붕 건평 24평의 아담한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 직원을 다시 선임하니, 2대 영수에 윤봉기씨가 피선되고, 남집사는 신용갑·신용우·윤치운, 여집사에 배안순·하점동 제씨가 피선됨. 왜정의 압박으로 월1회 예배드림.
- 1945. 8. 26 광복의 기쁨을 감사하며 감격의 광복기념예배를 드린 후, 새 직원을 조직하니, 제3대 영수에 신용우, 남집사에 신용갑·윤치운·신용돈, 여집사에 배안순·하점동·이봉선 제씨가 선임되고, 전도사에는 신용건씨가 작정되었으며, 교회가 날로 발전(초대 당회장 송상석 목사)
- 1947. 4. 21 노회로부터 당회 조직 허락을 받아 장로를 택하니, 신용우 영수가 피선되어, 시찰의원 진종학 목사, 임도오 목사, 양재군 장로 등이 회집 내빈 다수 참석리에 성대히 장립식을 거행하고 시무
- 1949. 8. 10 신용건 초대 목사로 부임
- 1991. 12. 27 새 예배당 헌당(연건평 298.4평, 1층 362.85㎡, 2층 355.44㎡, 3층 110.23㎡, 지하 157.95㎡) 권영진 원로장로 추대, 신좌기·김태두 장로 장립, 이영기·신복남·정연곤·신병선 집사 안수, 주수임·이옥순 권사 취임
- 1996. 3. 17 러시아 모스크바 딸돔 하청교회 개척예배(교인수 40명, 전도사 볼꼬브 로만)
- 1998. 4. 1 이동룡 목사 부임(현 담임목사)
- 2001. 8. 31 현 제직현황-원로장로 : 신용훈·권영진·신철규, 은퇴장로 : 김태인·김태인·신좌기, 시무장로 : 김백훈·유상근·김태두·정연곤, 안수집사 : 이영기·신복남·신병선·최명관·박동진·신용부·신종주·신용철·배효생·김용언, 은퇴권사 : 주임수·김영아·하서운·신문선·윤종악·박순단, 사무권사 : 남명순·주수임·이옥순·김윤자·박정애·김덕보·배장명·진명숙

79. 황덕도교회

○ 주 소 : 하청면 대곡리 황덕도 4번지
○ 전도사 : 이 영 표
○ 연 혁
- 1989. 3. 김상수 목사 개척
- 1994. 9. 5 이영표 전도사 부임. 현재 시무 중

80. 유계교회

○ 주 소 : 하청면 유계리 962-3번지
○ 창건자 : 권재호, 권영욱, 주세웅
○ 목 사 : 오 영 식
○ 연 혁

- 1918. 진해 웅천 사람 주성찬씨가 하청 창동 부락에 와서 복음을 전함.
- 1925. 호주 선교사와 신태익씨가 유계 서항부락으로 이동하여 신용우씨의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
- 1933. 신용우씨가 하청 해명고개에 교회를 세우고 하청, 유계 합동으로 예배를 드림.
- 1936. 태풍으로 교회 건물이 전복되어 하청, 유계로 분리하게 됨.
- 1937. 4. 10 권채호, 권영욱, 주세웅 제씨 등이 유계리 1047-4번지에 목조건물 18평을 세우고 예배를 시작함.
- 1990. 10. 18 유계리 668-5번지에 157평을 기공함.
- 1991. 12. 8 입당하여 현재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

81. 관포교회

○ 주 소 : 장목면 관포리 524번지
○ 목 사 : 조 용 안
○ 연 혁

- 1978. 1. 관포리 417번지 관포교회 건축

- 1978. 2. 19 기공예배
- 1978. 4. 20 입당예배
- 1994. 9. 16 관포리 524번지 신 교회 부지 매입
- 1997. 3. 30 기공예배
- 1998. 2. 26 입당예배

82. 구영교회

○ 주 소 : 장목면 구영리 380번지
○ 목 사 : 김 형 식
○ 연 혁

- 1918. 9. 24 황포교회와 분리
- 1919. 예배당 건축(초가 3간)
- 1960. 8. 8 양철제 예배당 5간을 신암혜 주동
- 1973. 4. 보로크식 양옥 건평 30평을 이일장 전도사외 여러 교우 일동으로 건립

83. 농소교회

○ 주 소 : 장목면 농소리 676번지
○ 목 사 : 박 교 선
○ 설립목적

구영교회 진종학 목사로부터 복음을 받아, 예배 처소가 마땅치 않아 농소마을 약국을 매수하여 예배 처소로 개설

○ 연 혁

- 1928. 교회 설립(농소마을 개인 가정)
- 1943. 일제 신사참배 강요로 예배당 철거
- 1946. 예배당 2차 건축(기와)
- 1965. 사택건축

84. 대금교회

○ 주 소 : 장목면 대금리 265번지
○ 목 사 : 이 부 일
○ 연 혁

- 1949. 5. 15 설립예배
- 1994. 1. 30 교회당 신축 입당예배
- 1997. 4. 29 교회당 헌당예배

85. 서목교회

○ 주 소 : 장목면 외포리 서목 555번지
○ 목 사 : 문 성 섭
○ 창건자 : 윤 덕 율(영수)
○ 연 혁

서목지역은 1940년경 윤덕율·손석줄·윤달조 제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외포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거리 관계로 1952년도에 외포교회에서 분리하여, 윤덕율 영수, 김재봉·손갑봉·손석줄 집사 외 다수가 윤덕율 영수 자택에서 임시 예배 처소로 정하여 예배를 드려오다가, 손석줄 집사가 장목면 외포리 서목 480번지에 대지 70평을 기증하여, 온 교우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1952년 10월 10일 영광의 창립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서목교회의 첫 출발이었음.

1970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 오던 중에도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고 교회 이전을 계획하던 중, 현 시무 장로인 손철환 장로가 서목 555번지 대지 127평을 기증하여, 서목교회 전 교인들과 부산 영락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교회가 설립되었음.

지난 47년간 목회자 15명, 장로 3명, 안수 집사 2명, 권사 5명의 중직들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왔으며, 서목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어,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고 있음.

86. 송진교회

○ 주 소 : 장목면 송진포리 671번지
○ 목 사 : 김 현 철

○ 연 혁

- 1924. 김치덕 · 배경수 · 윤학금 등이 송진기도소 설립
- 1928. 박문호 전도사 시무
- 1930. 기도소에서 이전하면서 송진교회로 승격
- 1961. 4. 1 예배당 33평 신축 공사 착공

87. 신명교회

○ 주 소 : 장목면 외포리 1387번지
○ 목 사 : 이 태 석
○ 연 혁

1950년 2월 교회 창립, 장목면 외포4구(김홍조 부친댁 행랑) 교회당 건축 및 사택 건축. 1차 1951년 10월(목조 건평 20평), 2차 1968년 3월 4일(시멘블록 건평 40평 현재), 목사관 1981년 12월 26일(25평 현재)

88. 유호교회

○ 주 소 : 장목면 유호리 584번지
○ 창건자 : 이 일 장(목사)
○ 장 로 : 이 재 형
○ 연 혁

- 1973. 11. 1 이일장 전도사가 장목면 유호리에 이사하여 개척 시작
- 1973. 11. 4 개척 첫 예배
- 1973. 12. 2 창립예배 및 김진수씨의 가정에서 교회 조직예배
- 1973. 12. 2 교회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유호교회로 함
- 1974. 1. 6 주일학교 예배를 동회 회관에서 드리다가, 마을 주민 몇 사람의 반대로 예배를 못하고 김진수씨 가정에서 예배
- 1974. 3. 8 성전 대지 구입 본동 11-1번지 전(田)
- 1974. 4. 10 성전건축 기공예배
- 1974. 5. 26 신축예배당에서 예배
- 1998. 8. 30 성전 건축하기로 결의함. 본당 30평, 종탑 5평, 식당 11평, 총

공사비 오천만원, 총 46평

- 1998. 9. 29 성전 건축 기공식 예배(약60명)

89. 율천중앙교회

○ 주 소 : 장목면 율천리 309-2번지
○ 전도사 : 정 영 수
○ 연 혁

- 1989. 1. 15 박돈규 전도사가 이 곳을 개척하기 위해 뜻을 품고 기도하고 있던 중, 창원중앙교회의 신원효 집사가 현 위치에 580평의 땅을 사서 기증함으로, 천막 막사 안에서 시작
- 1989. 10. 15 옥영수 성도가 92만원을 헌납하므로 교회 건축 시작
- 1990. 1. 15 입당예배. 광리교회의 박강식 집사는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받지 않고 건축 공사 완공
- 1990. 8. 27 첫 부흥회 개최(박용병 목사)

90. 외포교회

○ 주 소 : 장목면 외포리 1029-1번지
○ 창건자 : 안 명 옥(영수)
○ 목 사 : 송 순 진
○ 연 혁

- 1922. 장목면 외포리 70-1번지에서 안명옥 영수외 몇 사람으로 교회 설립
- 1948. 김홍조 장로외 다수가 신명교회로 분리
- 1951. 서목교회가 분리
- 1980. 3 삭개오 할머니로부터 외포리 1029-1, 2, 3번지의 땅을 헌납 받아 이거함
- 1980. 4. 1 장목면 외포리 1029-1번지에서 기공예배
- 1980. 11. 10 입당예배
- 1993. 3. 29 예배당 기초가 부실하여 재건축 기공예배를 드림
- 1994. 3. 1 현 예배당 준공 입당 예배

91. 장목교회

○ 주 소 : 장목면 장목리 243-1번지
○ 목 사 : 김 충 호
○ 연 혁

- 1951. 함흥 동부교회 피택 김재술 집사가 UN 진료소 원장 임무를 가지고 장목면에 들어왔음. 예배당을 찾던 중, 본면 소재지 예배당이 없어 걱정하다가, 북에서 온 목사·전도사·여조사 등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재술 집사가 목사 1인을 청원하니, 교역자회에서는 청원서를 받고, 즉시 목사 1인을 허락, 황해도 덕안교회 목사 허응숙·박석 전도사, 윤옥신 조사와 함께 부임
- 1951. 3. 1 김갑률씨 사가 3간을 매입 2간을 증축 수리
- 1951. 5. 17 헌당식, 담임 목사 허응숙, 전도사 박석, 조사 윤옥신, 신도수 40~50명, 유년주일 학생 100명
- 1951. 10. 14 두모교회와 합동. 두모예배당은 폐지하기로 합의

92. 장목제일교회

○ 주 소 : 장목면 장목리 231번지
○ 목 사 : 홍 은 영
○ 연 혁

- 1969. 8. 31 교회설립
- 1984. 12. 10 김응수 목사 부임

93. 재건두모교회

○ 주 소 : 장목면 두모리 212번지
○ 창건자 : 조 창 동(장로)
○ 목 사 : 이 상 기
○ 연 혁

- 1940. 조창동 집사에 의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
- 1978. 12. 28 교회부지 사택 40평(건평 15평), 예배당 100평(건평 30평) 신축하여 예배 드림.
  교인수 : 장년 15명, 유년 15명
- 1997. 1. 14 이상기 목사 부임(현재 시무중)

94. 황포교회

○ 주 소 : 장목면 구영리 763번지
○ 목 사 : 정 지 택
○ 연 혁

- 1918. 9. 24 구영교회에서 분리하여, 변은조씨 집 아래채에서 주치선·변은조·김광오·이봉임·이재영·장길생·강유아·김순이 외 3명이 첫 예배를 드림.(장목면 황포 763번지)
- 1920. 8. 초가 3간을 구입하여 방 두 칸을 통합하고, 예배처소로 사용
- 1927. 제1차 성전 건축(12평)
- 1936. 제2차 성전 건축(15평)
- 1940. 성전 증축(5평)
- 1957. 5. 29 배영호 전도사 사면
- 1957. 6. 1 최재균 전도사 부임
- 1958. 4. 13 박춘수 장로 장립
- 1960. 5. 성봉덕 전도사 부임
- 1965. 5. 1 권재입 전도사 부임
- 1966. 4. 제3차 성전 건축(30평)
- 1967. 10. 10 변수경 목사 부임
- 1974. 2. 12 변기조 장로 장립
- 1976. 3. 사택건축(17평)
- 1976. 4. 13 하종용 목사 부임
- 1976. 10. 11 김홍기, 박만술 집사 장립
- 1977. 3. 10 하종영 목사 위임 및 김자군, 김명호, 윤경율 집사 장립
- 1979. 5. 3 강석수 목사 부임
- 1980. 12. 23 김홍기, 반만술 장로 장립

- 1985. 제4차 성전 건축(150평)
- 1987. 3. 10 최기동 목사 부임
- 1987. 8. 14 교회헌당 및 주성애, 장정악 권사 취임
- 1989. 8. 3 최기동목사 위임, 김명호 장로 장립
- 1990. 8. 16 변기조·김홍기 장로·주성애 권사 은퇴, 김자군·윤경율 장로 장립, 김치길 집사 장립, 김말선 권사 취임.
- 1993. 6. 사택 33평 완공
- 1993. 8. 24 이규범 목사 위임
- 1995. 9. 윤인학 전도사 부임
- 1995. 11. 17 장정악 권사 은퇴
- 1997. 6. 1 태령식 전도사 부임
- 1998. 8. 14 정지택 목사 부임
- 1998. 9. 10 스타랙스(12인승) 구입
- 1999. 1. 10 김상학 전도사 부임
- 1999. 5. 10 정지택 목사 위임 및 박안술 장로 은퇴
- 1999. 8. 8 이강자, 옥순연 권사 피선
- 2000. 5. 4 이강자, 옥순연 권사 임직
- 2000. 12. 25 주민초청잔치(30명)

95.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 하유교회

○ 종 파 : 안식일교회
○ 소재지 : 장목면 유호리 하유
○ 창건자 : 이 용 진(목사)
○ 유 래

1959년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자가로」 씨가 문서전도차 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 유지들이 장목중학교는 거리가 멀고, 본 마을은 오지라, 이 마을에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중학교과정인 고등공민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도 세우게 되었고, 그후에 재정 사정으로 학교는 4년간 경영악화로 폐교되고,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96. 새 장승포교회(장승포제일교회와 장승포중앙교회가 통합됨)

○ 주 소 : 장승포동 350-1번지
○ 목 사 : 박 창 덕
○ 연 혁

○ 장승포 제일교회

- 1924. 4. 오형선 장로의 전도로 시작. 장승포교회로 명칭
- 1928. 3. 교회당 건축(주일선씨가 대지를 헌납)
- 1973. 교회 명칭을 장승포제일교회로 변경
- 1976. 9. 14 지기호 장로 장립
- 1979. 최재호 전도사 부임

○ 장승포중앙교회(아양교회)

- 1937. 3. 10 진정률·김부연·노경이 제씨 아양교회 설립
- 1956. 12. 6 이치조 장로 장립
- 1957. 12. 6 강국환 장로 장립
- 1964. 3. 교회 신축(30평)
- 1974. 8. 옥포조선 설립으로 아양마을 및 교회가 옥수동으로 이주
- 1974. 9. 9 교회 신축
- 1974. 11. 30 신축교회 완공
- 1975. 4. 교회 명칭을 장승포중앙교회로 변경
- 1979. 2. 8 김보형 목사 부임

○ 새 장승포교회

- 1979. 2. 16 연합당회 모임(양 교회를 통합할 것을 결의)
- 1979. 2. 17 양 교회의 제직 전원이 장승포제일교회에 모여 당회 결의에 동의하는데 합의
- 1979. 4. 6 경남노회에서 양교회 통합 승인 및 김보형 목사를 임시 목사로 허락
- 1979. 5. 장승포동 350-1번지, 현 위치에 교회부지 523평 매입
- 1979. 6. 7 건축위원회 8인 구성
- 1979. 10. 경남노회에서 교회 명칭을 새장승포교회로 승인 및 김보형 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
- 1979. 10. 새 장승포교회 신축허가

- 1979. 11. 4 교회 신축공사 기공
- 1980. 8. 30 지상 3층 공사 완공, 부지 523평, 건평(단면적 110평, 연건평)
- 1993. 11. 8 370평 증축(본당, 교육관)

97. 장승포교회

○ 주 소 : 장승포동 322-1번지
○ 종 파 : 한국기독교장로회
○ 목 사 : 육 순 종
○ 창 건 자 : 이성령 목사, 진도선 장로
○ 교회약사

장승포교회는 1989년 화재로 인하여 교회 역사가 거의 소실되었음. 그래서 교회 역사를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장승포교회의 설립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존 신도들의 기억이나 구전에 따르면, 1920년대 중반으로 추정. 장승포지역에서는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음. 이렇게 시작된 신앙의 맥은 1943년에 이르러서 일제의 전국적인 탄압으로 인해, 2년간 폐교회를 당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해방 후 첫 주일날 비로소 7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됨.

그러나 6·25를 전후한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 속에서 고신(현 염광교회), 통합(현 새장승포교회), 기장(장승포교회)로 분열하게 됨.

교회 분열 후, 장승포교회는 심기일전하여 선교에 정진하게 되는데, 이 때 거제포로수용소가 해체되면서, 당시 포로수용소 책임자였으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대커 대령의 도움으로 포로수용소 철거 자재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됨. 당시 담임 목사였던 이성령 목사와 진도선 장로 등은 교회 건축에 드는 부대 비용들도 미군측에서 부담해 줄 것을 청원하여 승낙을 얻게 됨. 그리하여 현 교회 자리인 장승포 322-1번지 300평의 부지 위에 포로수용소를 건축했던 골조와 자재 등을 이용하여 예배당과 부대시설 80여 평의 목조 건물을 1954년 3월 22일 건축을 완료하게 됨. 장승포교회는 교회를 짓고 입당한 이 날을 창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음.

그 이후 지역사회 선교에 매진하여 자라 온 장승포교회는 1979년도 후반, 이 지역에 대우조선이 들어오므로 인구가 대량 유입되어,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기틀을 다지게 됨.

98. 옥림중앙교회

○ 주 소 : 마전동 649-13
○ 종 파 : 한국기독교장로회
○ 목 사 : 명 기 식
○ 연 혁

- 1983. 10. 9 장승포교회가 개척하여 창립예배. 초대 양천석 목사 시무
- 1984. 3. 25 옥림중앙교회의 설립 공인예배
- 1986. 3. 15 대지 643-1번지 구입
- 1988. 3. 28 양천석 목사 사임.
- 1993. 10. 3 철근 콘크리트 2층, 130평의 옥림중앙교회당 건축하여 준공검사
- 1993. 11. 3 옥림중앙교회당 입당예배
- 1993. 11. 13 옥림중앙교회당 헌당예배
- 1994. 12. 14 벽돌 스라브조 25평의 목사관을 준공하여 입주예배를 드리고 입주

99. 옥수교회

○ 주 소 : 능포동 600-90번지
○ 종 파 : 한국기독교장로회
○ 목 사 : 이 성 률
○ 연 혁

- 1952. 8. 20 아주동 4구 하용부락에서 아주교회라고 명칭을 정하고 출발함. 당시 진정률 집사가 하용부락의 기본 건물과 논 1,400평으로 초대교회 예배처소를 마련함. 6.25 이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공황의 상태에 있는 거제도 주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려는 사명감에 교회를 창립
- 1974. 7. 1 대우조선 설립에 따라 아주교회는 현재 능포동 위치로 이주하고, 옥수교회로 개명함.
- 1985. 교회 증축
- 1998. 2 고현에 개척교회 부지 구입
- 1999. 8. 29 이성률 목사 부임

- 2001. 8. 26 연건평 38평 교회 건축을 위한 교회건축 기공예배 드림.

100. 참예수교회

○ 주 소 : 능포동 371-7번지
○ 종 파 : 한국총회
○ 목 사 : 오 희 도
○ 연 혁

- 1983. 박영묵 자매 가정집회 시작
- 1987. 3. 23 장승포읍 옥명 2동 743번지 집회소 마련
- 1989. 4. 20 이엘리사 목사 개척 부임
- 1989. 12. 3 윤득도 목사 개척 부임
- 1990. 4. 28 장승포시 능포동 497-1번지로 이전
- 1991. 2. 24 교단에서 교회 승인됨.
- 1994. 3. 1 김승도 목사 부임
- 1996. 1. 29 허덕인 목사 부임
- 1997. 6. 20 장승포시 능포동 371-7번지로 이전
- 1998. 2. 1 오희도 목사 부임. 현재 시무 중

101. 염광교회

○ 주 소 : 능포동 660-13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장로회
○ 목 사 : 박 금 철
○ 유 래

염광교회가 세워진 것은 1946년 5월 12일이다. 해방의 감격과 함께 정화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던 출옥성도들의 신앙을 따라,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장승포교회'에서 나와 장승포동 294-1번지에 박영기 전도사를 모시고, '장승포읍교회'로 시작하였다. 그 이후 교회당을 현재의 능포동 660-13번지로 이전하여, 1981년 4월에 교회 명칭을 '염광교회'로 변경하고, 1982년 6월 27일에 새 예배당으로 입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2. 장승포순복음교회

○ 주 소 : 아주동 365-1번지
○ 목 사 : 김 해 동
○ 연 혁

- 1985. 4. 23 장승포동 307번지의 2층 건물에서 창립(40평)
- 1989. 8. 20 동 건물 지하 교육관 구입(40평)
- 1990. 11. 15 아주동 365-1번지에 305평 교회 대지 구입
- 1992. 2. 7 기공예배(지하 1층 : 100평, 지상 1층 : 100평)
- 1992. 6. 21 새 성전 입당예배
- 1999. 11 현 교회 설립, 김해동 목사 시무

103. 아주교회

○ 주 소 : 아주동 1128-1번지
○ 목 사 : 김 성
○ 설립동기

해안지역의 우상숭배(무교)가 성한 우리 나라인지라, 이 지역 역시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뜻을 가진 박향수씨와 배끝년 선생이 어린이 15명을 데리고 김종학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내곡 1091번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음.

○ 설립경위

제일동포 박석악씨가 내곡 1128-1번지 대지 179평을 기증하여, 1968년 11월 23일에 현교회(18평)를 건축하고, 아주교회에 시무하던 김종학 목사가 기도소를 운영해 왔음.

○ 교회분립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비좁아 새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교회의 설립 동기와 설립 경위를 존중하는 20여 명의 성도들은 현 건물과 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이를 다시 구입하여, 1996년 3월 16일 아주교회로 교회 이름을 다시 찾고, 교회의 갱신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증거자로 설 것을 다시 결단하였음.

○ 교회발전사

- 1996. 3. 16 이정은 장로 외 20여 명의 성도가 분립함.
- 1996. 6. 6 차정환 목사 부임
- 1996. 10. 15 분립선언식 및 차정환 목사 취임예배 드림.

104. 갈릴리교회

○ 주 소 : 옥포 1동 551-10번지
○ 목 사 : 이 종 삼
○ 연 혁

- 1996. 5. 5 마전동 524-9번지 3층 건물의 2층에 부산 상애교회에서 개척하여, 이명길 목사를 파송, 교인 이경련·박경옥 등과 개척예배를 드리므로 설립
- 1987. 3. 15 능포동으로 예배당을 이전
- 1988. 3. 20 2대 이종삼 목사 부임
- 1988. 8. 21 교회당을 옥포지역으로 옮겨, 입당예배(구 진광교회)
- 1989. 1. 3 옥포 1동 제일아파트 605호로 사택 이사
- 1990. 3. 23 현재 교회당 부지 구입(옥포 1동 551-10번지. 103평)
- 1991. 4. 24 성전 건축기공 예배
- 1992. 1. 1 건축 중에 성전 1층에서 예배
- 1992. 5. 3 3층 본당에서 예배
- 1993. 3. 1 선교원 개원
- 1993. 5. 11 교회 창립 8주년을 기하여, 성전 봉헌예배 및 안수집사 1인, 권사 2인을 임직함.
- 1996. 3. 20 교회 옆 551-9번지 어린이집 부지 구입(96평)
- 1996. 7. 7 어린이집 건축 기공예배
- 1997. 1. 11 어린이집 2층으로 사택 이사
- 1997. 2. 18 어린이집 준공예배(1층 60평, 2층 사택 20평)
- 1998. 2. 15 안수집사 5인 임직(박영목, 윤석원, 양성룡, 신성기, 박종안)
- 1998. 3. 17 유치원 설립

105. 섬김의 교회

○ 주 소 : 옥포1동 535-38번지
○ 목 사 : 김 은 성
○ 연 혁

- 1982. 7. 12 개척예배(옥포리 437-2)
- 1982. 9. 12 예배실 이전(목사관 : 옥포리 347-15)
- 1983. 5. 2 교회 부지 매입(67평)
- 1983. 9. 13 교회당 입당
- 1986. 7. 성전 신축 부지 매입
- 1988. 3. 14 새 성전 건축 기공식(건평 118평)
- 1988. 7. 31 새 성전 입당
- 1994. 6. 18 사택 구입
- 1996. 1. 14 교회 부지 46평 매입

106. 옥포교회

○ 주 소 : 옥포 1동 417번지
○ 종 파 : 장로교
○ 목 사 : 고 일 성
○ 연 혁

옥포교회는 1896년에 거제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당시 명칭은 '거제교회(또는 국산교회)로 불렸다가, 국산마을에서 옥포마을로 이전되면서, 옥포교회라고 공식으로 불렀다.

당시 거제 국산마을에는 천주교가 첫 뿌리를 내렸다.(1886년 윤봉문씨가 공소를 설립) 이러는 와중에 주금주(당시 35세, 유생)를 비롯한 주씨 문중과 윤씨 문중간 미묘한 갈등으로 분쟁에 휩싸여 불화를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생 주금주는 천주교와 비슷한 종교를 믿으라는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호주 선교사와 함께 옥포로 와서 기독교 신자로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 뒤로 국산에 교회를 설립하고(본가에서), 후에 옥포본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초기 옥포교회의 신도는 주금주(朱今柱), 주형찬(朱亨贊 초대장로), 주인찬(朱仁贊), 주종찬(朱宗贊 3.1운동 피검), 주옥련, 주남옥, 진정률(陳正律) 장로 등으로 시작하여,

교세를 넓혀 나갔다. 1909년에 박한주씨에게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며, 주옥련씨는 전도인으로서 거제지방회 전도회에서 활동하면서, 전도와 야학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옥포교회를 통하여 거제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하게 되며, 주종찬은 옥포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일으키는 민족주의 신앙자로 추앙을 받기도 하였다. 1905년대에는 유년 주일학교를 통하여 성경지식과 더불어 인성교육에 힘썼으며, 1920년도에는 강습소를 설립하여, 야학 청소년들에게 조선어와 성경, 찬송, 수신(체육),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수십명의 청소년들이 이 교육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1920년대 야학운동은 민족운동으로 문맹퇴치와 병행된 교육방침이었다. 이곳에서 민중들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배웠고, 민족운동을 해야 하는 당의성, 정의감을 키울 수 있었다 한다.

107. 성도교회

○ 주　소 : 옥포 2동 881-2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 목　사 : 황 정 식
○ 연　혁

- 1994. 8. 21　황정시 목사가 설립한 이래, 오로지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온 교인이 전도에 힘쓰고 있음. 교회 대지 70평에 건평(1, 2층) 84평, 옥포 2동 88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도 수는 주일학교 40명 정도, 장년 5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

108. 거제옥포교회

○ 주　소 : 거제시 옥포 2동 1293-5번지
○ 종　파 : 대한예수교 침례회
○ 창건자 : 박 옥 수(목사)
○ 유　래

6.25전쟁 이후, 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상태가 발견되어,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중, 듸욕, 말론베이커, 데릭어얼, 해리와이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전도와 한국의 전도자들을 길렀는데, 그중 박옥수 목사(대전한밭교회시무)도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국내 어느 곳이던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쉼 없이 복음을 전해 오고 있다. 지금도 전국의 대형 체육관이나 홀, 방송국, 교도소, 군부대, 나환자촌 등을 1년에 수 차례씩 돌며 복음전도 집회를 열어, 죄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09. 덕포교회

○ 주 소 : 거제시 옥포2동 덕포 464번지
○ 목 사 : 김 성 덕
○ 연 혁

- 1951. 6 피난민 변채선 부부가 옥포교회를 다니다가, 평양에서 온 김우필 장로 등과 함께 덕포리 609번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
- 1958. 9 사라호 태풍으로 교회가 완파되어, 덕포리 1026번지로 이전
- 1970. 반영근·반태진·원정부·김수정씨와 이창석 전도사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
- 1972. 7. 12 윤형연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과 신앙으로 뭉쳐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
- 1974. 1차 21평의 성전을 개축 완공
- 1987. 8 교회 대지 4,235평 구입
- 1989. 4 교회 대지(대지 800평, 도로 170평) 토목공사
- 1989. 5. 9 새 성전 건축 기공예배
- 1989. 10. 새 성전 입당

110. 반석교회

○ 주 소 : 옥포2동 872-2번지
○ 목 사 : 이 성 만
○ 연 혁

- 1986. 8. 24 옥포2동 3블럭 2롯트에서 설립예배

- 1991. 9. 11 예배당 대지 102평 구입(옥포 2동 872-2)
- 1992. 2. 27 예배당 기공(연건평 150평)
- 1992. 7. 19 새 예배당 입당
- 1997. 3. 8 수양관 부지 10,200평 매입(연초면 죽토리)

111. 새옥포성결교회

○ 주 소 : 옥포2동 522-3번지
○ 목 사 : 홍 재 식
○ 연 혁

- 1987. 2. 5 장승포읍 옥포리에 초대목회자 이충진 전도사 내외와 평신도 4명이 새옥포교회를 개척하여 창립예배
- 1987. 교회당 건축 부지 매입(옥포동 6블럭 1롯트 3호)
- 1989. 5 교회당 건축 착공
- 1989. 7 교회당 헌당예배

112. 예닮침례교회

○ 주 소 : 옥포2동 1281-24
○ 목 사 : 김 영 균
○ 표 어 : 전도·교육·열매
○ 연 혁

- 1989. 9. 15 아주동 445번지 창립예배
- 1995. 11. 2 옥포2동 1281-24번지 성전 건축 봉헌 예배

113. 옥포새중앙교회

○ 주 소 : 옥포 2동 1891번지
○ 종 파 : 대한예수장로회
○ 목 사 : 정 장 현
○ 연 혁

- 1998. 1. 25 첫 유아세례식 서성휘, 김주향에게 세례
- 1998. 12. 20 옥포 2동 1891번지에 33명의 성도들이 정장현 목사를 중심으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여 일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실천 목표로 새롭게 출발
- 1998. 12. 24 새중앙 작은음악회 개최
- 1998. 12. 27 교회학교 부장 및 성가대 책임자 임명(유아부장 : 김두원, 중고등부장 : 이재홍, 청년부장 : 민병일, 성가대장 : 민병일, 지휘 : 이요한, 오르간 반주 : 정수진, 피아노 반주 : 정유진 · 이현주 · 유순자)
- 1998. 12. 31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서리집사 55명과 11명의 구역장 23명의 권찰, 24명의 교사, 25명의 성가대원 임명
- 1999. 1. 3 신년축하예배 신년교례회
- 1999. 1. 17 첫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열어 7,200만원의 일반제정을 책정하고, 서광훈 · 이재훈 · 이재홍 · 이요한씨를 장립 집사로, 김석주 · 김정자씨를 권사로 인준
- 1999. 2. 19 9구역 주관으로 연합구역예배 후 전교인 친교윷놀이
- 1999. 2. 22~4. 4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새벽기도회
- 1999. 4. 4 첫 세례식을 통해 신영철 · 이애자 · 석지미 · 유종화 · 이경미씨에게 세례를 베풀어 세례교인 65명이 됨.
  오늘부터 1000일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 일천번제를 매일 밤 10시에 본당에서 쌓기로 하고, 매일 드리는 헌금은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함.
- 1999. 5. 22 이수도분교에서 야외예배
- 1999. 5. 31 교회 주변 2,000여 세대에 전도용 책자와 티슈를 전달
- 1999. 6. 7~10 부흥사경회를 개최, 주제 : 변화 받은 삶, 강사 : 김종순 목사 (부천 송내중앙교회)
- 1999. 7. 4 일반경상비를 수경하여, 1억 1천만원으로 공액하고, 플린트 김상칠 선교사와 필리핀 정원기 선교사, 장현교회를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함.
- 1999. 7. 19 일천번제 일백번제 큰잔치
- 1999. 7. 23~25 유치부와 아동부 성경학교를 가짐.

- 1999. 8. 2~3 청년회 수련회를 가짐.
- 1999. 8. 8 장년부 등록 교인이 100명 돌파
- 1999. 8. 13~14 학생회 수련회(흥남해수욕장)
- 1999. 10. 5 제87회 경남노회에서 옥포새중앙교회의 설립 허락
- 1999. 10. 10 제1회 새중앙 가족 체육대회(외포초등학교)
- 1999. 10. 17 아동부 친구초청잔치와 인형극 공연
- 1999. 10. 20 일천번제 200번제 예배
- 1999. 10. 23 시온성가대 중심으로, 옥포교회 성가대와 횃불 남성선교중창단, Belcanto Trio를 초청하여 일천번제 이백번제 기념음악회 개최
- 1999. 11. 23 추수감사절 구역별 음식축제
- 2000. 1. 30 15인승 승합차 기증 받다.(대구주영산업사 박정기 집사)
- 2000. 4. 2 일천번제 1주년 감사 예배
- 2000. 4. 30 새중앙 축구 선교단 창단
- 2000. 5. 11 교회 설립예배 드리다.
- 2000. 5. 30 유오디아 선교단 창단
- 2000. 8. 14 일천번제 오백번제 기념 수련회(일시 : 8. 14~15 흥남해수욕장)
- 2000. 11. 26 육백번제 기념음악회(문화관광랜드)
- 2000. 12. 20 설립 2주년 감사 예배
- 2000. 12. 23 성탄맞이 찬양
- 2001. 4. 4 일천번제 2주년 감사 예배
- 2001. 4. 5 장승포지역 교회연합 축구대회에서 우승
- 2001. 4. 22 새중앙 성서연구원 개원(제자학교, 전도학교, 기도학교)
- 2001. 5. 20 교회 홈페이지 개설
- 2001. 6. 11 일천번제 팔백번제 감사 예배
- 2001. 7. 8 교회발전 연구위원회 조직

114. 옥포실로암교회

○ 주 소 : 옥포 2동 1987번지
○ 종 파 : 대한예수장로회
○ 목 사 : 김 택 원

○ 연 혁

- 1982. 대우조선 초창기 노무자가 30,000명이 될 때, 따라서 다방과 술집이 급증하였는데, 그로 인한 노무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 그해 10월부터 1983년 5월까지 대우조선 기숙사 내에서 8개월간 노무자들에게 복음전도 및 신앙지도를 하였음.
- 1983. 6. 29 대우조선의 노무자가 많은 옥포 2동에 옥포실로암 천막 개척교회를 창설함.
- 1985. 교회의 성장으로 임대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 1988년 9월 서울 88올림픽 대회 때 선교활동과 1993년 9월 대전엑스포 세계 박람회 때 대전에 왕복하며, 3개월간 선교활동을 하였음으로, 서울 기독교중앙방송국과 대전극동방송국에서 선교간증 방송에 출연함.
- 1990. 3. 12 장승포시 장승포지역 교역자회 회장 및 장승포시 교회연합회 발기 창립회장에 피선이 되었으며, 또한 경남노회 거제시찰장을 역임함.
- 1997. 6. 낡은 가정주택 교회당을 철거하고, 옥포 2동 1891번지에 2층 교회당을 120평 신축함.
- 1997. 10. 3 입당예배시 교단의 노회장의 설교, 거제시장, 거제 경찰서장, 대우조선 사장의 축사가 있었음.
- 1998. 4. 교회에서 무료 주부교실 개설과 운영을 하였음.(영어회화, 문법, 꽃꽂이, 스텐실, 수지침, 기타, 바이올린 교실 등)
- 1992. 8. 현재까지 9년간 김택원 담임 목사가 거제경찰서 유치장 수인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계속하고 있음.

115. 옥포은혜교회

○ 주 소 : 옥포 2동 519-6
○ 목 사 : 옥 수 형
○ 연 혁

- 1984. 12. 20 옥수형 목사를 중심으로 5명 첫 예배
- 1985. 1. 10 현 위치 대지 120평 구입

- 1985. 2. 10 성전 신축 기공예배

116. 옥포제일교회

○ 주 소 : 옥포 2동 1520-1번지
○ 목 사 : 이 상 근
○ 연 혁

- 1983. 3. 27 옥포 1030번지 가정집에서 오전 11시 정각에 교인 3명이 모여 이상근 전도사 인도로 첫 예배. 이에 앞서 오전 9시에는 유치부 2명, 유년부 2명, 총 4명이 모여 첫 주일학교 예배
- 1983. 4. 8 첫 구역예배 드림(윤순옥씨 집에서 남자 1명, 여자 8명)
- 1983. 4. 17 대구 달서교회 오용구 목사의 사회로 창립예배. 예배 후에는 서리집사 6명, 권찰 1명, 교사 3명 등의 제직 임명. 이날 교회명을 옥포제일교회로 정함
- 1983. 5. 30 건축 부지 110.9평을 계약(옥포 2동 388-7)
- 1983. 7. 5 교회를 옥포 2동 328번지(중앙시장 옆) 2층 전세로 옮김
- 1987. 5. 7 교회 증축을 위해 38B 6L 땅 130평 계약(1520-9, 1027-2번지)
- 1993. 8. 31 옥포 2동 1294-9번지 사택공사가 완공되어 사택 입주
- 1996. 4. 4 옥포제일교회 신축예배당 1,129평 건축 허가

117. 옥포중앙교회

○ 주 소 : 옥포 2동 523-30번지
○ 목 사 : 임 종 빈
○ 연 혁

- 1984. 7. 8 새장승포교회에 출석하던 옥포지역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옥포종합백화점 3층에서 설립예배
- 1984. 10. 10 경남노회로부터 교회 설립을 허락 받음.
- 1985. 1. 3 초대교역자 김성곤 전도사 부임
- 1986. 2. 4 교회부지 242평 매입
- 1986. 7. 13 지하 예배실 입당예배

제3장 천 주 교

제1절 천주교의 전래

거제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다. 그 당시 두 사람의 신자가 거제도로 귀양왔다는 기록이 있다.

첫째는, 1801년 10월 전주 감영에서 순교한 유한검(아오스딩)의 막내아들 유일석(柳日碩, 세례명은 모름)이다. 유황검은 「호남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열렬한 사람이다. 박해가 전라도 지방을 휩쓸 때, 제일 먼저 체포되었다.

부인 신회(申喜), 큰아들 유중철(柳重哲. 요한)과 며느리 이순이(李順伊. 루갈다), 차남 유문석은 참수형을 당하고, 딸(9살)은 흑산도로, 삼남 유일문(柳日文. 6살)은 신지도로, 막내 유일석(3살)은 거제도로 귀양갔다고 한다.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편지 참조)

3살 난 어린 생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애석하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둘째는 1801년 11월 5일(음력)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황사영(알렉산델)의 모친 이윤혜(李允惠)이다. 기록에 의하면, 황사영이 죽은 후 가산은 적몰(籍沒)되었고, 그의 처 정명련(마리아, 정약현의 딸)은 제주도로 귀양갔고, 아들 황경한(黃景漢)은 추자도로, 모친 이윤혜는 거제도로 귀양 갔다고 한다. 이윤혜의 세례명은 알 수 없고, 거제도 어느 곳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다. 평창(平昌) 이씨였던 그는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거제도로 귀양 온 동생 이치훈(그는 신자가 아님)과도 친척이지만 내왕이 없었다. 1801년 12월 겨울 거제도 어딘가에 죄인의 몸으로 귀양와서 기도로써 일생을 보낸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 첫 전교자 윤사우(尹仕佑, 스타니슬라오)

신유박해의 결과로 두 순교 성인 가족이 거제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본격적인 거제 전교의 출발은 1866년에 일어난 병인 박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주도하여 일으킨 병인 박해는 경기 지방에서 시작하여, 경상도 지방까지 이르러 천주교인들을 말살하려 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산 속으로 숨었고, 부산까지 밀려온 일부 신자들은 목선을 이용하여 대마도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이 때, 양산 사람 윤사우도 부산 동래에 살면서 대마도로 신앙을 찾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대마도를 향해 떠났다가, 풍랑에 의해 거제도에 표류되어 서이말 근처에 살면서 다시 기회를 찾다가, 거제도 안쪽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설은 부산에서 출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용이한 거제도에 숨어 들어와 장목면 유호리(버드내)에 살다가 외포, 덕포를 거쳐 옥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어떻든 날품팔이 필묵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을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날 필묵을 팔려고 서당에 들렀다가 진씨라는 접장을 만났다. 윤사우의 유식함에 문답이 오고가던 중, 윤사우가 변소 간 틈을 이용하여 그의 봇짐을 살펴보니, 성교 문답집이 있어 천주교인임을 알게 되었다. 윤사우는 진씨 접장을 신앙인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가 훗날 거제도의 첫 신자가 된 진진보(陣進寶)이다. 진시는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여, 윤사우와 함께 걸어서 경주 성주땅 먹방으로 가서 요한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 뒤, 진요한은 딸 진순악(陣順岳. 아네스)과 윤사우의 아들 윤봉문(尹鳳文. 요셉)을 혼인시켜 주었다. 윤사우의 큰아들 윤경문(尹景文. 베드로)도 지세포사람 주관옥의 딸 주또금과 결혼하여 신자 집안이 많아지도록 한 것이다.

주씨(朱氏) 집안에서는 주재용(朱在用. 바오로 1975년 작고) 신부가 배출되었다.

1887년 11월 칠곡 신나무 골에 은거하고 있던 프랑스 사람 로베르 김신부(한국이름 金保祿)는 그 동안 준비해 온 거제도의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진목정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하였다. 이 방문에서 거제도의 첫 영세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진진보의 가족과 제산 공소의 씨앗이 되는 한상필(도마)등 15명이었다.

이들은 진씨의 사랑채에 모여, 공소 예절을 보며 본당으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40년 뒤인 1926년 5월 30일 진목정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하여, 첫 본당 신부로 김후상(바오로) 신부가 부임하게 됨으로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본당이 거제도의 첫 본당이며, 현 옥포 본당의 전신이다.

1886년 한불 수호조약으로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지방에서는 관헌에 의한 사사로운 박해가 끊어지지 않았다. 진목정 공소도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 했는데, 천주교를 미워한 진목정 주민들에 의해 관의 박해를 받았다. 이때 윤봉문(요셉), 한상필(도마), 진명석, 주남이 등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 윤봉문은 통영으로 압송되었다가, 진주로 이송되어 3개월 동안 문초를 받았다.

고문을 당한 뒤, 1888년 2월 22일(음) 옥 담장 널판 밑으로 넣은 올개미로 교살당해 순교하였다. 유해는 순교 직후 진주의 비라실(장재동)에 안치하였다가, 유족에 의해 옥포의 족박골 산에 이장되었다.

순교 당시 윤봉문에겐 아들과 딸이 각각 있었다. 아들 윤학송(루까)은 자라서 장승포 김씨 가문으로 장가들었다. 딸 윤송각은 신부옥에게 시집가서 시가에서 딸 하나를 낳고

죽었다. 신부옥은 재취하여 후처 주씨와의 사이에 신상도(辛尙道) 신부가 태어났다. 신상도는 1968년 작고했다.

※ 자료제공 정계석(벨라도)

1. 옥포성당

○ 소재지 : 옥포 1동 543-7번지
○ 종 파 : 카톨릭
○ 창건자 : 배진구(베드로) 신부님
○ 유 래

- 1916. 1. 1 진목정(국산) 신축경당 헌당식
- 1919. 5. 27 통영에 본당으로 분리 거제단독 공소가 됨.
- 1926. 5. 30 국산성당 신설. 초대신부: 김후상(바오로)
- 1935. 6. 16 명진(거제) 지방분리 이명우(야고보) 신부 부임
- 1942. 1. 1 제2대 우경선 신부 부임
- 1946. 1. 1 제3대 김준필(아오스딩) 신부 부임
- 1949. 1. 1 제4대 최비안네 신부 부임
- 1950. 4. 16 제5대 박문선 신부 부임, 해성중·고등학교 설립
- 1958. 1. 1 제6대 강영철 신부 부임
- 1962. 1. 1 장승포 본당을 분리
- 1964. 1. 1 제7대 김영재(요한) 신부 부임
- 1965. 1. 1 장승포 본당을 분리
- 1983. 7. 19 헌당식 및 첫 미사
- 1984. 5. 1 성모상 제막식 거행
- 1986. 7. 1 옥포성당 승격, 초대회장 한영수(실베들)
- 1987. 2. 14 황창건 신부 부임
- 1987. 8. 15 제2대 회장 임태성(올바노)
- 1988. 5. 23 순교자 윤봉문 요셉 100주년 헌양대회
- 1988. 8. 15 제3대 회장 박동균(유스티노)
- 1990. 10. 20 제4대 회장 김상훈(프란치스코)
- 1991. 7. 1 김용덕(요셉) 사제시품식(옥포본당 출신)
- 1991. 7. 2 서원열(라파엘) 신부 부임

- 1993. 10. 20 제5대 회장 김석윤(토마스)
- 1994. 8. 26 송재훈(라파엘) 신부 부임
- 1995. 1. 1 제6대 회장 김석윤(토마스)
- 1997. 8. 29 진선진(마태오) 신부 부임
- 1998. 1. 1 제7대 회장 도영만(베드로) 신부 부임
- 2000. 1. 1 제8대 회장 이정전(마태오)
- 2000. 1. 28 이성학(아브라함) 신부 부임

2. 거제성당

○ 소재지 : 거제면 동상리 593
○ 종 파 : 카톨릭
○ 소유자 : 박정일
○ 유 래

- 1935. 동부면 명진리에 본당 설립, 이명우(야고버) 신부가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
  당시 교우 수 842명, 공소 11개
- 1943. 태평양전쟁이 심해지자, 외국인 신부들의 연금으로 신부가 부족하여, 옥포본당 신부가 거제를 관리
  옥포성당 박상태 신부가 부임하여, 1946년 명진리의 본당을 현위치(동상 598)에 신축성당 건립.(60평 시멘트)
- 1957. 8대 주임으로 이상호(레이문도) 신부가 부임하여, 꾸리마 설립과 지금의 석조 건물을 신축.(120평)
- 1972. 부산교구 소속에서 마산교구 소속으로 변경되어, 지금 24대 주임신부로 이재영(바실리오) 신부님이 본당을 맡고 있음.

○ 거제성당 주임 신부님 연혁

- 1대 : 이병우(야고버)
- 2대 : 고군삼(베네딕도)
- 3대 : 김필립보
- 4대 : 박문선(야고보)
- 5대 : 최병선(요한)

- 6대 : 김동욱(마지아)
- 7대 : 주콘스탄티노
- 8대 : 이상호(레이문도)
- 9대 : 최인달(바테오)
- 10대 : 손덕만(토마스)
- 11대 : 정인식(알벨도)
- 12대 : 배봉용(바오로)
- 13대 : 왕영수(프란치스코)
- 14대 : 장덕범(바오로)
- 15대 : 강영구(루치오)
- 16대 : 박두환(베니딕도)
- 17대 : 이강해(스테파노)
- 18대 : 김영식(알로이시오)
- 19대 : 김길상(안드레아)
- 20대 : 김순곤(비오)
- 21대 : 권창현(요셉)
- 22대 : 김국진(가우덴시오)
- 23대 : 백남해(요한보스코)
- 24대 : 이재영(바실리오) 현재 재임 중

3. 장승포성당

○ **소재지** : 장승포동 519
○ **종 파** : 천주교
○ **소유자** : 천주교 마산교구청
○ **유 래**

1886년경 윤사우(스나니슬라오) 일가가 병인박해시 거제도로 피신, 전역을 다니며 은신, 전교함.

1888년 봄, 윤사우의 둘째 아들 윤봉문(요셉)이 천주학의 괴수로 인정되어 관가로 잡혀, 1888년 음력 2월 22일에 한 많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더 선포하지 못하는 유한을 지닌채 순교하였으며, 그의 시신은 진목정 족발골산으로 이장하였다. 그후부터 진목정을 천주학 쟁이가 죽은 통명이라 하여 국산이라 고쳤고, 그후에 옥포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 1935. 장승포 공소를 설정(옥포성당 소속 마전동 551번지), 회장 정순용(마두)
- 1937. 7. 14 공소 경당 건립(마전동 552)
- 1953. 11. 29 본당 설정(마전동 552), 초대 주임신부 박문선(야고보) 신부 8개공소 건설
- 1954. 6. 28 해성중고등학교 설립(마전동)
- 1964. 4. 4 본당 신축과 이전(현재 위치 장승포동 519)
- 1966. 8. 15 옥포본당이 장승포본당 관할공소로 편입
- 1973. 7. 15 교구 관할구역 조정으로 부산교구에서 마산교구로 편입
- 1983. 7. 11 옥포 본당 분리 및 부속건물 신축
- 1983. 7. 23 본당출신 김석중(루도비꼬) 신부 사제 서품
- 1991. 7. 1 본당출신 김대열(가브리엘) 신부 사제 서품
- 1993. 2. 지세포 본당 분리 및 부속건물 신축
- 1994. 8. 24 본당출신 임효진(야고보) 신부 사제 서품
- 1999. 1. 28 본당출신 이중기(도미니코)신부 사제 서품
  이현우(요한) 신부 사제 서품
- 1999. 10 만남의집 개장

4. 고현성당

○ 소재지 : 신현읍 고현리 755-7
○ 창건자 : 천주교 마산교구청
○ 소유자 : 천주교 마산교구청
○ 연 혁

- 1903. 본당 관할 제산공소가 당시 진목정 공소에서 분리되면서 시작함.
- 1906. 이원이(마테오)가 진들부락으로 이사오다. 그는 제산공소에 다니면서 장평 지역에 전교를 시작, 첫 신자로서 김임출(가이오)이 나타남.
- 1926. 제산공소에서 장평공소를 분가, 김가이오 집에서 공소예절 시작
- 1935. 명진본당이 신설됨으로 옥포본당 소속에서 명진으로 바뀌다. 당시 회장은 김암우(가비노) 신사 65명

- 1952. 장평공소를 신축 전쟁 직후라 활발한 전교활동이 일어남.
- 1963. 고현공소의 필요성으로 고현리 755번지의 대지 매입(610평)
- 1971. 장평공소를 매각 고현공소(30평)를 신축하고, 장평신가는 고현공소에 와서 침례를 보다.
- 1975. 고현공소, 본당 승격
- 1976. 3. 27 초대 민라파엘 신부 부임
- 1977. 9. 29 본당 인섭 대지 220평 매입하고, 신축성당 기공식
- 1979. 3. 19 신축성당 낙성식, 5월 1일에는 신현면이 읍으로 승격됨을 기해 본당명칭을 신현본당으로 고침.
- 1980. 본당 부속 성미유치원 개원, 초대원장 민라파엘 신부
  2대 원장 박명조(헤레나)
- 1981. 2. 24 제2대 서정술(프란치스꼬) 신부 부임
- 1983. 4. 3 수녀원 신축 기공식
- 1985. 2. 18 제3대 신은근(바오로) 신부 부임
- 1986. 4. 19 성당증축 기공식
- 1987. 5. 예수성심 선교수녀회 수녀 부임
- 1988. 10. 7 장병욱(베네딕도) 신부 부임
- 1990. 8. 25 제5대 노영환(마티아) 신부 부임
- 1994. 4. 12 장평성당 건립 및 분리 장평지역과 3개 공소 분리(칠천도, 송진포, 하청)
- 1994. 8. 25 제6대 김병운(라이문도) 신부 부임
- 1995. 3. 1 거제군이 거제시로 승격되므로, 본당 명칭을 고현본당으로 고침
- 1996. 11. 대지 170평 매입, 교육관 건립공사
- 1997. 5. 11 교육관 축성식
- 1998. 1. 30 제7대 제찬석(세자요한) 신부 부임
- 2001. 2. 9 제8대 박창균(시메온) 신부 부임

5. 장평성당

○ 주 소 : 신현읍 장평리 23-5번지
○ 대 지 : 379평(건물 벽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면적 240평)
- 공 소

- 하청 공소 : 하청면 해안리 박성률(스테파노)
- 칠천도 공소: 하청면 연구리 회장 손석금(요셉)
- 송진포 공소: 장목면 송진포리 회장 김석철(요한)

· 1994. 4. 2 고현 성당에서 분리되어 장평 본당이 되었다.
· 1994. 4. 12 성전 봉헌식(관할구역 신현읍 장평리 및 3개 공소)
· 1994. 4. 14 초대 주임 신부 정홍식(마르꼬) 부임
· 1994. 7. 10 제1대 평신도 협의회 결성. 회장 정계석(벨라도)
· 1994. 8. 28 성모상 봉헌(설계 황지영 젤뚜르다. 시공 대한종합건설)
· 1995. 4. 23 바다의 별 구리아 창립(단장 옥강수 안드레아)
· 1995. 11. 1 하청 공소 평신도 협의회 발족(회장 이판석 바오로)
· 1996. 7. 10 제2대 평신도 협의회 회장 정계석(벨라도)
· 1997. 8. 27 초대 주임 신부 정홍식(마르꼬) 이임
· 1997. 8. 29 제2대 주임 신부 이성렬(요셉) 부임
· 1998. 1. 1 제3대 사목협의회 회장 정계석(벨라도)
· 1998. 9. 15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수녀 부임
· 1999. 4. 15 본당 옆 부지 매입 109평
· 1999. 12. 24 제4대 사목협의회 결성 회장 강길현(바오로)
· 2000. 5. 30 부지 매입 30평
· 2000. 9. 1 제3대 주임 신부 박호철(요한) 부임

※ 자료제공 : 정계석(벨라도)

제2절 공 소 현 황

1. 제산공소

제산공소는 본당 3관내의 가장 오래된 공소다.

제산공소의 씨앗은 한상필(도마)이다. 그는 본래 진목정(옥포)에 살고 있었는데, 윤사우의 첫 아들 윤경문(베드로)의 권유로 가족이 모두 입교하게 되었다(1887). 그 중에 큰며느리가 반 유리안나인데 친정이 제산이었다. 윤봉문(요셉) 순교자가 체포될 때(1888) 한상필도 함께 붙잡혔는데, 며느리 반 유리안나의 노력으로 포졸들이 놓아주었다. 그 뒤, 한상필은 진목정에 살 곳이 못된다고 판단, 사돈댁(반 유리안나의 친정)이 있는 제산으로 이사하였다. 제산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사돈댁과 가까이 지냈고, 특

히 반 유리안나의 헌신적인 모범으로 친정 아버지 반석호(우발도)는 입교하게 되었다. 이때 함께 영세한 사람 중에 제산의 사도라고 불리운 김성환(베난시오) 초대회장도 있었다.

반 우발도는 입교하자, 자기 집을 꾸며 공소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제산공소의 출발이 된다(1893). 그 뒤 제산공소는 연초, 장평, 문동, 양정공소와 거제본당의 명진, 두동공소를 분가시켰으며, 신현, 거제본당의 모체로써 오늘에 이른다.

○ 연 혁

- 1893. 옥포소재 진목정 공소에서 분리되어, 한상필(도마)집에서 공소예절을 시작함, 당시 신자 20여명
- 1900. 양정리 제산부락 849번지에 대지 149평, 초옥 12평(현 공소자리)을 매입하여 공소로 사용함.
- 1914. 초옥을 헐고 공소를 지음.
- 1917. 11월말쯤 안플로리아노 주교가 공소 순회차 다녀감.
- 1952. 이 지역에 포로수용소가 들어서면서, 미국인 군종 변신부와 한국인 보좌 장신부가 공소에 거처함. 매일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얼마 후 미군들이 작전상 인근민가를 불태울 때 중단되었음. 이때 유서 깊은 공소도 불타 버림.
- 1954. 장승포본당 박문선 신부의 주선과 불태운 보상금으로 현 공소를 재건하여 오늘에 이름.

특이할 사항은 초대회장 김 베난시오, 8대 김인도, 현 회장 김안당은 3대째 이어오는 회장집안임. 공소소재 신비로운 장미 Pr.은 본당 내에서 제일 오래된 레지오임.

2. 연초공소(옛이름 : 효자문공소)

연초공소의 첫 신자는 윤수찬(비오)이다. 그는 제산공소 2대 회장 반석호(우발도)의 조카였다. 외삼촌이었던 반석호는 윤수찬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았다. 1906년 2월 당시 문산에 와 있던 마리오 권신부(한국명 權裕良)는 옥포공소로 판공을 나왔는데, 윤수찬은 이때 영세하였다.

일생을 독신으로 산 윤수찬은 영세 후 더욱 신앙에 매진하였고, 전교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윽고 1910년 연초지방에 첫 공소가 탄생하는데, 장소는 윤수찬의 집이었다. 당시 윤수찬은 효자문 동네(현 연초면 효촌리)에 살았으므로 효자문 공소라 불리었다.

○ 연 혁

- 1910. 제산공소에서 분리되어, 연초면 효자문 부락의 윤수찬(비오) 집에서 공소 예절을 시작함.
- 1933. 옥포본당으로부터 효자문 공소를 정식으로 인정받다. 공소관할을 연초면, 하청면 전역으로 정함. 효자문 공소로부터 하청, 유계, 외포, 석포 공소가 분리됨.
- 1952. 거제로 포로수용소가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은 관계로, 그곳에서 강제 철수 당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큰 부락을 형성하게 됨.
- 1954. 장승포 본당에서는 여기에 구호 급식소를 차리고 구호사업을 펴고, 교세 확장에도 노력하였음. 또한, 효자문 공소집이 협소하여 이주민들이 사는 연사리 연중 부락으로 공소를 옮겼고, 이때부터 연초공소라 부르기 시작하였음.
  때를 같이하여, 수도원 자리를 물색하러 장승포본당에 와 있던 프란치스꼬회 강지홍(도나도 깔마리니) 신부가 매 주일 연초공소에 와서 미사를 집전하고, 1년 가까이 교우들을 보살폈다. 또, 연초국민학교 교사 박 세시리아 선생님이 교리를 가르치며 헌신적으로 교우들의 신앙을 돌보아, 교우 수 300명을 헤아리는 황금시대를 이루었음.
- 1955. 연초면 죽토리 1194번지에 대지 251평을 매입하여 공소를 지었는데,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어 비가 많이 새는 실정이었고, 구호물자가 끊기면서 교우들도 급격히 줄어들었음.
- 1974. 공소 본 건물을 헐어 버리고, 부속 가옥을 꾸며 공소로 개조, 오늘에 이르고 있음.

3. 양정공소

유난히 물이 좋아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양정(良井)은 옛부터 농사가 잘 되는 지방이었다. 추계(秋溪) 추씨와 영산(靈山) 신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엔 공소설립 이전부터 신자가 있어, 제산공소에서 첨례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그들은 추병화(베드로), 김함수(도마) 등이며, 특히 추 베드로는 제산의 김 베난시오 회장으로부터 교리를 배웠고, 그의 손녀(김월선 · 비리시다)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열심한 신자 집안을 만든 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당 사목위원 추영복(안스가리오)씨의 조부이기도 하다.

양정에 실질적인 공소건립이 이루어진 것은, 하청에서 임주현(이냐시오)의 가족이 이사해 오면서 부터였다. 임씨 집안의 입교는 임 이냐시오의 선친 임지식(베드로)에 의해서였다. 그는 하청에 살면서 제산의 김 베난시오 회장에게 교리를 배워 1906년에 영세하였는데, 제산까지 걸어다니며 공소예절을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집안인지라 신현본당의 첫 사제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임상엽(마르꼬) 신부(1976년 서품현 필리핀 유학)가 그이다. 특이한 사항은 임지식씨의 손자 임만엽(마지아)군과 추병화씨의 손녀 추복남(마리아)양이 혼인함으로써, 두 집안이 하나가 된 사실이다.

○ 연 혁

- 1942. 제산공소에 인접한 까닭에 분가가 늦었다. 그러나 임주현 집에서 공소예절을 시작함으로써, 이 해에 인준을 받았다. 초대 공소회장엔 추병화씨의 아들 추정환(젤마노), 당시 신자는 65명
- 1952. 포로수용소가 들어오면서, 전 지방민이 소개(疎開)당하여 강제 이주하였고, 공소예절도 중단되었다.
- 1961. 포로수용소가 없어짐으로 다시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공소예절도 재개됨. 장승포 본당 박문선 신부가 양정리 400-3번지에 대지 100평을 매입하여 공소건립 기성회를 발족시켜, 자체모금을 주선함.
- 1972. 임시 장승포 본당을 맡았던 서재선(요셉 알젠틴인) 신부가 사비로 공소건립을 도와주어 착수하게 되었고, 이듬해 3월 공소건물 20평을 준공하여 오늘에 이름.

4. 하청공소

하청은 맞은편에 칠천도가 있어,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래서 물 하(河)와 고요할 청(淸淨)이 합쳐 하청이란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하고 단결력이 있으며, 매우 부지런하여 옛부터 부촌을 이루어 왔다고 한다. 특히, 1926년 하청사람 신용우(辛容禹)가 일본 산업시찰 때, 맹종죽(孟宗竹) 2주를 갖다 심은 이후부터 하청은 우리나라 죽순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죽순단지가 되었다.

이 지역의 첫 신자는 임지식(베드로)이었고, 1906년 제산의 김회장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영세했는데, 그 뒤부터 하청에는 1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수계생활을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 이때 중심이 되어 활약해 온 이는 윤병용(모이세) 회장이다. 그는 자택을 공소로 제공했고, 장승포 본당의 교리교사를 초빙, 창동부락의 마을회관을 빌려 교리를 가르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5년 정식으로 공소발족을 보았다.

최근에는 협소한 구 건물을 헐어 버리고, 윤학규 회장을 중심으로 전 신자가 일치, 현대식 새 건물(32평)을 다시 지었다. 그 과정에서 타 본당으로 죽순 판매를 나갔으며, 도시 본당의 귀한 도움을 받기도 했다.

○ 연 혁

- 1955. 연초공소에서 분리되었고, 박문선 신부가 하청면 하청리 310번지 대지 281평 및 가옥을 매입하여, 하청공소를 발족시켰다.(그러나 뒤에 부지 일부는 매각되었고, 현재 부지는 143평임)
- 1986. 공소의 발전으로 신자 수는 증가했고, 또 공소건물이 낡아 새로운 건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부응하여 도로변 일부 땅을 매입, 길을 넓히고, 새 공소건물 및 공소사택을 신축하게 됨(낙성 7월 21일).

5. 칠천도공소

칠천도는 거제도 부속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둘레가 60리를 넘는다. 섬 안에 일곱 개의 개울이 흘러 칠천(七川)도라 불리었다 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른다. 옛부터 매우 조용한 섬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굴 양식이 본격화되면서, 매우 바쁜 섬으로 바뀌었다. 이북에서 피난 온 박양진(요한)이 첫 신자이며, 그의 전교와 노력으로 오늘의 공소가 있게 되었다.

○ 연 혁

- 1957. 박양진, 박중호, 손영무 등이 바다를 건너 하청공소에 다니면서 교리를 배워 영세하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칠천도 내에서 공소예절이 시작되었으며, 전쟁 직후라 구호물자를 타기 위해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 1958. 박문선 신부의 선처로 하청면 연구리에 215평의 대지와 일본인 가옥을 매입, 공소로 사용케 함.
- 1977. 공소 건물을 새로 신축함(11월 20일 낙성). 공사 중 손영무(베드로), 박하성(야고보)은 역대 장승포 본당 신부들을 찾아 모금에 힘썼고, 민라파엘 신부의 도움과 자체 모금으로 충당되었음.

6. 유계공소

○ 연 혁

1957년 연초공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던 하청면 유계리의 20여 세대 교인들이 장승포 본당신부의 승인을 받고, 제갑생(분도) 집에서 공소예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유계공소가 시작된다.

1959년 교인들의 자체모금과 지방유지의 협조로 유계리 1507번지에 대지 108평을 매입하고, 공소를 지어 다음 해 정월 준공식을 가졌다.

1981년 공소 수리와 담장 정리를 하였다. 급격한 이농 현상으로 신자 수가 격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7. 송진포공소

○ 연 혁

- 1959. 민병도(바오로)가 부산에서 장목면 송진포리로 이주해 옴.(2월) 신자였던 그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전교를 시작함. 옥포본당의 강영철(방지거) 신부를 초청 첫 미사를 올렸고 부산 중앙성당의 지원과 구호물자의 덕으로 신자 수는 불어났음.
- 1973. 민병도 회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송진포리 573- 4번지, 대지 61평 및 건물을 교구에 헌납함.(8월 1일) 이 터와 집은 초창기부터 공소로 사용하여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매입 당시 옥포의 강신부가 당시 돈으로 25,000원, 송진포 교우들이 5,000원, 나머지는 민회장의 개인 돈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 1986. 현재 송진포에는 4가족이 신자생활을 함. 역대 공소회장은 민병도(바오르)

8. 외포공소

○ 연 혁

1956년 연초지역에 살던 윤또애(빅토리아)가 장목면 외포리로 출가하여, 시부모의 이해로 연초공소까지 걸어다니며 신앙생활을 함. 그후 장승포본당 박문선 신부가 판공을 기하여 방문하였고, 정남기(토마스)가 자기 소유의 논을 기증하여 공소를 신축하려고 목

재까지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태풍 사라호와 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그 뒤 외포공소는 집도 없이 윤 빅토리아의 개인 점포(금포 다방)에서 판공을 보고 미사를 드리며, 오늘에 이른다.

9. 문동공소

○ 연 혁

- 1902. 문동리(옛이름 문골)의 이일주(안셀모)가 제산 공소의 김 베난시오 회장의 권유로 입교하면서 시작됨. 그는 이웃에 복음을 전하며 자기 집에서 공소예절을 보았다. (문동공소 첫 신자임)
- 1914. 옥이홍(아오스딩) 집에서 공소예절을 봄. 그의 자녀 중에는 옥삼종이 있었는데, 삼종기도 배우기가 어려워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 1918. 추만율(말딩) 집에서 공소예절을 봄.
- 1920. 이춘이(원선시오) 집에서 공소예절을 봄(이일주의 아들임)
- 1928. 추만율 집에서 공소예절을 봄.
- 1938. 추장수(다두) 집에서 공소예절을 봄. 그는 추만율의 자녀임.
- 1950. 이두일(바오로)이 자기 소유의 밭을 희사하여 공소를 짓도록 함.
- 1952. 포로수용소 관계로 공소가 중단됨.
- 1954. 이두일(바오로)이 회장이 되면서 희사한 밭에 공소를 지음.
- 1971. 공소직이의 실화로 공소가 전소되었고, 다시 지을 힘이 없어 양정 공소에 편입됨. 공소 땅은 소유주에게 돌려줌.
- 1976. 신현본당 승격과 함께 문동 구역으로 조정되어 공소는 없어짐.

특이한 사항으로는 문동공소가 이일주의 집안에 의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두일(바오로)은 자신의 밭을 공소부지로 제공하였고, 자신이 직접 나무를 찍어내어 공소를 짓는데 전력을 쏟기도 했다. 또한, 당시는 전쟁 직후라 군인들의 감시하에서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뒤 이두일은 거제로 소개(疎開)나가서 거기서 선종했으며, 자녀 중의 하나가 제산의 이석자(아가다)이다.

10. 석포공소

○ 연 혁

- 1957. 부산에서 이주해 온 이화영(벨라도)이 이웃의 4, 5세대를 입교시켜 공소예절을 시작하였고, 이화영의 노력과 장승포 박문선 신부의 도움으로 석포리 258번지에 대지 94평과 건물을 매입하여 석포공소를 발족시킴.
- 1973. 장승포 최동오 신부가 명목뿐인 석포공소를 매각하고, 유계공소에 편입시킴으로써 폐쇄되었음. 당시 공소 매각금 95,000원은 석포공소를 다시 짓게 되면 주는 조건으로 장승포 분당에서 보관하고 있음. 공로자 이화영의 딸 이점순(안나)은 현재 동정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 김귀선(분다) 할머니만이 유일한 석포지방의 신자로서 남아 있음.

※ 자료제공 : 정계석(벨라도)

11. 산달공소

거제면 법동리 산달 1구 김또아지(수산나) 할머니가 집안에 우환이 끝이지 않아서, 1954년 2월경 거제 성당에 입교하여 마을 할머니 두 분과 매주 토요일 저녁에 노 젓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와서 10리 길을 걸어서 성당에서 잠을 자고, 일요일 미사를 마치고 다시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갔다.

영세는 1955년에 받았다. 그 후, 방 한 칸을 구하여 저녁 예배를 드렸다.

1966년 5월 27일 성당을 마련하여 공소 낙성식을 가졌다. 김또아지(수산나) 초대 회장에 이어, 1966년부터 최재림이 회장을 맡고 있다.

12. 탑포공소

남부면 탑포리 441번지에 있는 탑포공소는 탁초관(卓哨官)이 통영에서 거제 남부면 탑포리에 이주해 오면서, 윤원중(尹元仲) 방지거로부터 천주교 진리에 대한 말과 권유로 동부 부촌에 있던 진고스마에게 가서 교리를 배워, 1897년 정유(丁酉)부터 1917년까지 교우 15인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1921년 신유(辛酉)년에 한성현(韓聖賢, 한가밀로)이가 제1대 회장을 하였고, 현재 11대에 이르고 있다.

제4장 기 타 종 교

제1절 재단법인 한국 SGI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5-8번지
○ 규 모 : 조직수 28개방면(方面), 96개권(圈)
○ 회원수 : 전국회원(1,430,000명)
거제회원(6,000명)
○ 유 래

한국 SGI는 1975년 1월 26일 SGI의 결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올바르게 계승해 불법의 근본 이념인 인간생명의 존중을 바탕으로 진실한 인간부흥운동을 추구함으로써,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한 생활추구와 국가번영,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순수한 종교단체이다.

SGI는 초대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2대회장이 불법을 근간으로 인간변혁과 사회건설을 위해 국제창가학회의 전신인 창가교육학회를 결성(1930년),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전쟁상황이 악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에서는 국가신도를 강요하였고, 마키구치 초대회장은 군국주의에 협력하기를 단호히 거절하여 도다 회장과 함께 사상범으로 체포, 끝내는 옥사하기에 이른다. 출옥한 도다 회장은 창가교육학회를 창가학회로 개칭하였고, 이때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창가학회는 이케다 3대회장 시절인 1975년 전세계적 일대평화단체인 SGI(국제창가학회)로 발족되게 되었다.(한국은 1978년 SGI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됨)

현재 163개국·지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SGI는 또한 UN산하의 여러단체에 비정부기관(NGO)으로 등록, 민족분쟁·에이즈·기근·환경파괴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화 평화전, 난민구호운동 등 세계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회는 불법의 진수이며, 미법(未法)의 법화경인 니치렌대성인의 불법사상에 입각한 인간주의, 평화주의, 문화주의의 철학을 가정과 사회에 전개해감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확립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 주요업적

• **사회활동** : 국토대청결운동, 양서보내기운동, 헌혈, 고아원·재활원·양로원 돕기운동, 농촌일손돕기운동, 중국 조선족 심장병어린이 돕기, 효세계화전진대회 등

• **환경운동** : 푸른환경예술제, 각종 환경음악회,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개최, 지구헌장회의 개최

• **교육운동** : 교육부세미나개최, 각종 교육기관에 장학금 설립, 각종 교육기관에 기자재 기증, 교육기관 도서기증

• **표창현황** : 대통령표창·내무부장관표창·환경부장관표창, 서울시의회·부산시장·대구시장 등 각 시·도관청의 모범단체 및 환경우수단체로서의 표창

○ 주요사업

- 불법의 연구와 화도(化道)에 관한 사업
- 각 지역의 문화회관 건설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불교문화의 연구발전과 해외교류에 관한 사업
-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 교육·문화 및 환경보호 사업 등 복지사회 건설에 관한 사업
- 기타 보리(菩提)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사업

제2절 대한천리교 고현교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04
○ **종 파** : 천리교
○ **창건자** : 천 열 선
○ **유 래**

6·25사변이 지나고 포로수용소의 정리문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전쟁의 잔해(굶주림과 병마)가 남아 어려움에 허덕이는 거제시민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제의 종교 천리교 포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상(질병)과 사정을 구원받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비방과 조롱이 한이 없었지만, 차츰 구원의 메아리가 퍼져서 시민들의 이해와 합심으로 오늘날의 천리교 고현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다.

제3절 대한천리교 옥포교회

○ 소재지 : 거제시 옥포1동 275번지
○ 종 파 : 천리교
○ 창건자 : 김 강 동
○ 유 래

옥포에 살던 김강동이 간질병과 간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회생불능 상태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천리교에 다니면 병이 낫는다는 전도를 받고, 부산 남성교회를 찾아가서 천리의 의치를 배우고 기도를 하여 병이 나았다.

천리 의치에 대한 교리를 알리기 위하여, 1962년 7월 15일 옥포 바닷가에 조그마한 집을 구하여 대한천리교 옥포교회를 창건하고, 부인 이대연과 함께 포교활동을 하였다.

1984년 초대회장 김강동이 출적(죽음)하고, 부인 이대연이 2대 회장으로 부임하여 포교활동을 하면서, 현재의 교회 건물 2층 40평을 건립했다.

이대연 회장은 원남성교회에서 자신이 살아온 천리교의 길에 대한 감화 말씀을 남기고, 그 자리서 출적(죽음)하였다. 제3대 회장은 합천 대량 사람으로 거제에 와서 술과 노름으로 방탕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천리교의 포교에 입교하여 죽음의 늪에서 크게 구제를 받았다. 옥포교회 총무로 성실히 일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1995년 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제4절 여호와의 증인 거제 회중

○ 소재지 : 신현읍 상동리 994 8B4L
○ 장 로 : 제 구 익
○ 규 모 : 대지 150평, 건물 75평
○ 유 래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활동은 187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Charles Taze Russell)을 중심으로, 일단의 성서 연구생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이사야 43:10에 근거를 두고 있다. 1879년에 정기 간행물인 「파수대」가 창간되었으며, 현재 141개 언어로 월 2회 매호 23,042,000부

가 발행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서 전체를 하느님의 영감 받은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 전체의 표준은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신조가 아니라 성서에 고착한다. 교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으며, 성서적 자격을 가진 장로들이 회중(교회)를 대표한다. 2001년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 235개 나라에서 6,117,666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있는 93,154개의 회중과 연합하고 있다. 한국에는 약 988,239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다.

한국에는 1912년 선교인 R.R 홀리스터가 내한,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일본 정부의 기독교 탄압 정책과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본 정부가 강요하는 궁성 요배와 신사 참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당시 여호와의 증인 다수가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6.25동란 중에 대전, 군산, 대구, 전주, 부산 등지에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이 설립되었으며, 1952년 10월 '사단법인 워치 타워 협회'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에 임시 사무소를 두었다가, 1954년 3월에 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1982년부터는 인쇄 출판 및 선교 업무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거제시에는 1959년에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64년에 거제면과 장승포읍에 성서 연구 그룹이 형성되었고, 1965년에 그 두 곳에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70년대 말에는 장승포 회중을 중심으로만 활동이 유지되다가, 1984년에 거제면에 다시 회중이 설립되었다. 1987년에는 옥포에 회중이 설립되었다.

2000년 10월 현재 거제시에는 6개의 회중이 '왕국회관'이라는 집회 장소에서 매주 5시간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성경적 자격을 가진 남자들이 혹은 감독자로서 회중을 돌본다. 거제시에는 약 330명의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인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거제시에서 성서의 말씀을 전파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5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거제가정교회

○ **소재지** : 신현읍 고현리 790-6번지
○ **목 사** : 김 갑 석
○ **유 래**

창시자 문선명 목사는 1920년 1월 6일(음)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에서 출생하여, 16세인 1935년 4월 17일 부활주일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을 목표로 새로운 성서의 해석으로 원리강론을 펴고,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하며 세계적인 합동결혼식을 통한 참사랑으로 세계평화와 세계통일을 이룩한다는 사상과 세계통일은 공산주의 몰락을 위해 국제승공연합과 남북통일국민연합운동으로 두익사상(頭翼思想)의 하나님 주의로 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뜻을 두고,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회) 창립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 교회 확대에 따라, 1961년 12월 12일 박상진 목사에 의해 시작. 2대 1963년 김관해 목사, 3대 1965년 최재인 목사를 비롯해, 21대 황성배 목사까지 인사이동 되었다.

1977년 4월 8일부터 문선명 목사에 의해, 세계 185개국의 교회는 일시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교회로 바꿈으로, 거제시에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거제가정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6절 세계 밀알 선교회

○ **소재지** : 동부면 부춘리 65번지
○ **창건자** : 윤 영 애
○ **대 표** : 정 태 봉
○ **유 래**

세계밀알선교회는 1967년 1월 10일 설립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루마니아 그리고 태국에 다수의 지회를 설립 운영 중이며, 회원들의 교육 훈련과 예배를 위해 1979년 10월 현 위치에 ‘밀알회 수양관’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특별히 본 수양관을 통해서 동부면을 비롯하여 거제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노력하고자 한다.

제7절 반야원(般若院)

○ **소재지** : 동부면 부춘리 346
○ **소유자** : 정재우 원장(지우스님)

○ 유 래

- 1994. 2. 24 도공스님이 치자마을이란 이름으로 지체장애인과 생활하면서, 불법을 전파시켰다. 도공스님 본인도 지체장애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2000년경에 법인단체에 인계
- 2000. 3. 17 사회복지법인 내원으로 발족함
- 2000. 6. 23 장애인 생활시설인가를 받음.
  (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시설. 25명)
- 2000. 10. 7 시설명은 반야원(般若院)으로 개칭

○ 주요업무 직원현황

- 원장 정재우, 사무국장 1명, 사회재활교사 1명, 생활재활교사 8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취사원 1명, 세탁원 1명, 장애인 25명(7세부터 53세까지)
- 운 영 : 거제시지원 및 반야원 운영위원회(스님), 독지가 성금 등

제8절 원불교 신현교당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697번지

○ 유 래

원불교는 '○'을 일원상의 진리로 하여, 원망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불신불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종교다.

1970년경에 신현 서문에서 불법의 전당을 만들어 포교하다가 상동으로 옮겼다.

제9절 국제도덕협회일관도 박고법단

○ 소재지 : 신현읍 고현리 476-2번지

○ 규 모 : 법당 340평

○ 유 래

1984년 통영 정일법단 신축 낙성식 때 본 일관도 전법 전인이신 김복당, 1975년경 현 진주 정성법단 주지 수님 김명자 점전사가 통영 정일법당 주지스님으로 계실 때, 거제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크게 건지시리라고 거제라는 지명까지 중생의 입을 벌려 전파되었으니, 개황해야겠다는 마음 일구월심으로 간직하고 있던 중, 인연이 닿아 거제 장승포읍 능포리 옥수동 앞 한행규씨 산을 1,020평 매입하여 통영 정일법당 도친이 주축이 되어 분공합작으로 불사를 시작하다가, 뜻밖의 사정으로 불사 중단 상태를 당하여 상천 노모전에 중생의 허물을 진참회 간절히 발원기도 하던중, 김명자 점전사가 상천 노모의 현화가 내려 꿈속에 스님이 김점전사를 찾아와,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볼 일이 있으니, 나를 따라 오라.' 하며 말없이 앞장을 서서 김점전사가 따라 가보니 현 법당 자리였으며, 바로 옆 위로 포로수용소가 보이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수없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통영 정일법당 도친일동이 성심어린 정성으로 340평 대지를 매입하여, 1987년 9월 10일 기공식을 하고, 건물 1, 2층 110평 철근 콘크리트 한옥으로 지어, 1988년 11월 12일 준공하였다.

1988년 10월 4일 전국 도형제가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가져, 현재 고도점전사 1명, 단주 15명, 섬성도친 30명, 국도인 수는 1,300명이 수행하고 있다.

○ 주요업적 및 업무

우리 나라에 심법전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공수곡인 김복당 노 전현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본관은 경주 김씨로 13대 조부께서 조선 19대 숙종 때 중국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중국에 영주하게 되었다.

1914년 갑인년 8월 말일에 중국 대북성 무읍현에서 탄생하여, 1938년 무인년 25세 때 18대 궁장, 자계조사가 천진 도덕단에서 도무를 펴고 계실 당시 그곳에서 구도한 후, 일관도가 진도진법임을 확신하였다.

1945년 32세 때 천면을 받은 후, 1947년 34세 때 18대 궁장, 자계조사로부터 진도진법(眞道眞法)을 한국에 전도하라는 명을 받아 낯설고 물설은 한국에 본도환원의 홍세대원을 세우고 돌아왔다.

조국으로 돌아와 국제도덕협회 일관도를 설단하여, 1991년 귀공성도 할 때까지 44년을 진천대도의 삼조보도를 위해 명예, 재물, 가족, 공덕, 생명의 5대 희생으로 사수성도하였다. 그 뜻을 이어 계왕성개래학의 심법전도는 계속되고 있다.

각자 자기 원을 세워 요를 마칠 때까지 극기 복례하는데 있다. 자기에게 있는 물욕의 마음을 이겨내어 본래 자기 자신에게 있던 치우침 없는 천리양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마음자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생 동안 미혹하여 윤회해오면서, 굳게 닫혀져버린 마음자리를 백양기를 통해 열어주고 있다.

즉, 본래의 순수하고 착한 생각이 동(同)하기 전의 마음의 상태(上頭)를 지시함으로서 고해에 헤매는 원불자를 심법으로 건지고 있는 것이다. 옛 윤리 강산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어 마음으로 집을 짓고, 마음으로 집을 끝나기도 한다. 성인심법으로서 인심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를 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다.

대학에 이르기를,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致知) 진리를 알려면 먼저 마음의 물욕을 없애야 한다.(格物)

격물이라는 것은 극기(克己)이다. 지금 우리 도(道)의 목적은 격물하는 법으로서 극기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거제시지부 박고불단은 전인이 옛것을 널리 펴라는 단호를 내려, 착한 인재를 배출하여 수도하라 하였다. 인연있는 불자들은 여기 크게 삼조보도하고 있으니, 불가에 불(佛)·법(法)·승(僧) 세 가지를 전해 받아 성불(成佛)하기 원한다.

○ 역대주재

연번	성 명	직 위	재 직 기 간	재임기간	
1	김 만 옥	점 전 사	1988 ~	5개월	
2	김 선 옥	점 전 사	1988 ~	1년	
3	최 수 익	점 전 사	1988. 11 ~ 1992. 11	1년	
4	고 옥 희	단 주	1989 ~ 1992. 3	3년	
5	김 숙 희	점 사	1992 ~	4개월	
6	김 명 자	점 사	1992. 4 ~ 1998. 4	6년	
7	송 부 석	단 주	1992. 5 ~ 1994. 5	2년	
8	박 세 호	단 주	1994 ~	6개월	
9	김 명 진	단 주	1995 ~	3년	
10	송 상 원	점 사	1998. 2 ~ 1999. 2	1년	
11	김 정 애	단 주	1998. 1 ~ 1999. 5	1년 4개월	
12	조 정 애	점 사	1999. 6 ~ 현재		